

# 장편소설 - '분홍빛 교실'

이용희 著



## 소개글

본 소설은 쏘45장의 上, 下권800쪽 분량으로 著者이용휘의 자전적실화소설임. 전직 정치학교수 출신인 이정호가...자신을 첫사랑으로 간직한 옛 제자 윤선희를 우연히 만나...사랑과 낭만과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진 그들의 다이나믹한 사랑은 '분홍빛교실' 에서 거침없이 분출되고...정치를 꿈꾸며...선희는 떠나는데.../\*첫사랑에 울었다. 그러나 내 생애 최후의 사랑에는 울어야 할 이 유가 없다. 여한도 후회도 없다. 흐르는 눈물은 너의 과감한 선택과 도전을 보는 기쁨의 눈물이다. 이제 나는 훌륭한 정치가가 되어 돌아올 너를 기다리는 것을 낙으로 살린다. 너의 건투를 빈다\* [본문 중에서]

# 목차

1 장편소설 - 분홍빛 교실	
-----------------	--

- 제 1 장 - 우연한 만남
- 제 2 장 - 즐거우면서도 몹시 힘들었던 밤
- 제 3 장 - 왜 눈물이 나왔을까
- 제 4 장 - 길거리에서의 성애(性愛)
- 제 5 장 - 콘호텔에서의 정사(情事)
- 제 6 장 - 뭇으로 호수에 구멍 뚫기
- 제 7 장 - 봉건제도에서 배워야 할 것
- 제 8 장 - 리더십과 멤버십
- 제 9 장 - 사건과 사건, 오해와 오해
- 제 10장 - 역사의 양금(鴛鴦)
- 제 11장 - 분홍빛 교실
- 제 12장 - 관제 빨갱이
- 제 13장 - 갈등의 이웃나라 '日本'
- 제 14장 - 샌님과 깡패의 대결
- 제 15장 - 오아봉 곤조(親分根性)
- 제 16장 - 일본인의 성관념(性觀念)
- 제 17장 - 미국이 만든 후란켄슈타인- '日本'
- 제 18장 - 충청도 아줌마
- 제 19장 - 대안(代案)과 대안(對案)
- 제 20장 - 고문(顧問)
- 제 21장 - 파벌(派閥)
- 제 22장 - 실용주의(實用主義)
- 제 23장 - 파벌과 봉건제도와 내각책임제
- 제 24장 - 정치문화와 정치적 낭만주의
- 제 25장 - 대중문화와 기조(基調)
- 제 26장 - 불길한 예감들
- 제 27장 - 가치관(價値觀)과 가치체계(價値體系)
- 제 28장 - 개성(個性)
- 제 29장 - 면죄부(免罪符)를 팔아라
- 제 30장 - 인연성(因緣星)/사랑한다 말은 못하고
- 제 31장 - 신토불이(身土不二)
- 제 32장 - 분홍빛 교실을 위한 건배
- 제 33장 - 역사의 산물
- 제 34장 - 학원 모리배(謀利輩)
- 제 35장 - 빛 좋은 개살구
- 제 36장 - '먹.구.노' 大學
- 제 37장 - 두목근성(頭目根性)
- 제 38장 - 대통령 놀이
- 제 39장 - 최후의 만찬
- 제 40장 - 운명적 재회
- 제 41장 - 보내는 마음, 만나는 마음
- 제 42장 - 산성(山城)에서의 외침
- 제 43장 - 마음의 갈등
- 제 44장 - 전격적으로 결정된 미국 유학
- 제 45장 - 무기휴강에 들어가는 '분홍빛 교실'

# ‘분홍빛 교실’

— 사랑과 낭만과 진리가 있는 —

“대중이 이 책을 읽는 걸 알면, 교수들 정치가들이 기분 나쁠 거야”



이 용 휘 著



本貫은全州이며, 1960년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매화리 1141번지에서, 父 이보락 선생과 母 남필조 여사와의 사이에서 3男2女 중 次男으로 태어나, 매화초등학교 및 매화중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시의 협성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하여, 3년간 학비전면장학생으로서 전교 차석을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1979년 1월 6일 한일은행에 입학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著者が 걸어 온 길-**

- 한일은행 계장
- 대구 팔공산 양진암 등에서 약5년간 사법시험, 행정고시 준비
- 현대종합학원 강사
- 문화사상신문 정치 전문기자
- 대구 데일리안 논설위원
- 개혁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당(한미준) 공동대표
- 서울뉴스 발행인 겸 편집인
- 정치개혁시민회의 공동대표
- 한국중군연예인협회 자문위원
- 미래정경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회 수석부회장
- 녹색문화예술세계연맹 부총재
- 직능사회단체정책연대 공동대표
-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전국불교연합회 서울시회장
- 박근혜 특별보좌역
- 박근혜 대통령경선캠프 사이버문화위원장(후보직속)
- 제18대 국회의원 출마(서울 중랑을)
- 친박연대 서울특별시장 수석부위원장
-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경호비서학과 외래교수(담당과목-생활과 정치)
- 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ASS) 고문
- 국제디지털대학교 민간조사아카데미 최고위과정 자문교수

## 제1장 - 우연한 만남

“어머~ 교수님!”

“아니, 이게 누구야! 선희 아니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매표소 입구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이 우연한 만남이 무척이나 반가운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윤선희에게는 그냥 반가운 정도가 아니라 놀라움 그 자체였다. 두 사람은 한 때 교수와 학생 사이였던 것이다.

“어디 가세요. 교수님?”

“대구에...그런데 넌?”

“목포예요. 아이~ 그럼 같은 차는 못 타겠네요”

“그렇군”

“하지만 교수님, 우리 어디가서 차라도 한잔 해야죠? 그냥 헤어질 순 없잖아요”

“당연하지. 그럼...차표부터 사 놓고 하도록 할까? 매표소가 다르니깐 차표를 사서 이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구...지금 4시5분전이니깐 5시경으로?”

“싫어요. 6시”

“난 빨리 가 봐야 되는데”

“아이~ 6시로 해요”

“그럼...그러지 뭐”

약 10분 후.

두 사람은 터미널 2층 커피숍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다.

“목포엔 왜 가니?”

“제 집이 목포잖아요. 교수님이야 제게 관심이 없었으니까 몰랐겠지만”

“그렇게 무관심하진 않았지. 넌 항상 깜찍하고, 귀엽고, 특히 전라도 사투리가 매력적인 학생이라고 생각했지. 목포란 것까지야~”

“그게 무슨 관심이예요?”

이렇게 말하는 그녀는 몹시 서운하다는 듯이 살짝 눈을 흘겼다. 그런 그녀의 눈빛이 어쩐지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이 녀석아! 그만하면 큰 관심이지 더 이상 무슨 관심을 가지란 말이야? 그건 그렇고...너 지금 몇 학년이지?”

“고것봐여. 역시 무관심 허니께 거시기 하잖아요”

선희는 서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평소 사투리는 잘 쓰지 않는 편이었지만, 좀~ 까분다 칠 땐 전라도 사투리가 절로 튀어 나왔다. 두 사람은 평범한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 이상의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지만, 그녀는 옛날 애인이라도 만난 듯이 강짜를 부린다.

“아이쿠! 또 너한테 당했구먼~ 미안!”

“저...벌써 4학년인데요?”

“벌써? 아~ 세월 한번 참 빠르구나”

이렇게 말한 이정호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한숨을 쉬듯 내뿜는다.

“하για 내가 학교를 그만 둔지도 벌써 3년이 다 되가니까. 휴~!”

이 교수의 한숨소리에 갑자기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전 교수님이 학교를 그만두신 걸 몇 달 후에야 알았어요. 교수님 과목을 듣지 않아서...한동안 교수님이 교내에 보이질 않아서 교수실에 가 봤지라. 그랬더니 글썄~”

그녀는 시무룩한 표정이었지만 제법 차분하게 말을 이어 나갔다.

“교수님이 학교를 그만 두신다면 다른 애들은 몰라도 저에게는 ‘떠나신다는 말 한마디쯤은 하고 가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니 ‘그럴만한 사이도 아닌 걸~’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네게만 그런 게 아니었고, 학생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교직원들한테도 일일이 떠난다는 소릴 하지 않았으니까”

“왜 그렇게 갑작스레 그만 두셨지라?”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어. 모 일본인과 학교 사이에 미묘한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 일본인을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나였거든. 잘못된 쪽은 학교였지만...이편저편도 듣기 어려워 내가 없어서 주면 저희들끼리 마음대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아~ 그랬었군요”

“안 그래도, 어용교수 노릇이나 하는 정치학 교수 자리가 맘에 들지 않았던 차에, 사업가로 한번 변신해 보고 싶었던 게지. 선희는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절 어린애 취급하시는 건 아직도 여전하시네요? 전 교수님의 그런 태도가 항상 불만이었던 걸 모르셨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수님의 그런 모습 땀에 어리광부리기가 더 편했던 것도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그녀 특유의 감직하고 발랄한 모습으로 금방 돌아갔다. 윤.선.희. 보기 드문 미모와 몸매에 나이에 걸맞지 않는 의젓함까지 갖춘 여대생이었으나, ‘여학생 노-터치’가 신조어처럼 박혀있는 이정호 교수는 어떤 여학생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고, 그녀에 대한 감정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가끔, 강의 중인 정호를 향해 야릇한? 모습으로 즐겨보는 일은 간혹 있었지만, 약간 사시(사팔뜨기)인 탓이려니 생각했을 뿐이었는데,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녀는 평소 이정호 교수에게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다.

“교수님, 지금은 뭘 하고 계세요?”

“응, 서울에서 조그만 무역업을 하고 있지. 본사와 생산공장은 대전에 있구”

“그런데 대구엔 왜일이세요? 혹시 가족이 대구에...?”

“그래, 가족은 아직 대구에...애들 학교문제도 있고...요즘은...주말때미리...그...비둘기 아빠 신세지 뭐야”

“참 불편하시겠어요?”

이렇게 묻고 있는 선희의 눈은 야릇하게 빛나고 있었다. 학교를 그만둔 이 교수는, 그해 가을에 부인과 이혼했지만 그 사실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았다. 재혼하라는 주변의 권유를 받는 것도 싫고, 홀아비라고 이상하게 보이는 것도 싫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선희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아냐! 이것 역시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구”

“그래, 사업을 해 보시니 어떠세요?”

“많이 고달프지. 하지만 고달픈 대신 많은 걸 배우고 느낄 수 있어서 여간 보람되지 않아. 학교에 그냥 있었다면 알 수 없었던 많은 것들도

알게 되고...”

“그래도 교수님이 더 좋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구~, 사업이야 뭐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교수님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그게 아니더라고. 교수는 아무나 할 수 없고 사업은 아무나 하면 된다고 생각들 하는 모양인데, 막상 사업을 해보니까 정 반대야”

“정 반대라고요?”

“교수는 공부 가르칠 정도의 머리만 있으면 되지만 사업은 그렇지 않더라 말이지”

“그럼 교수는 아무나 할 수 있어도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없단 말씀이세요?”

“그렇지. 사업가는 그냥 머리만 좋은 정도가 아니라 팔방미인이 돼야 해. 또 순간적인 판단력도 있어야 하고 멀리 내다보는 안목도 있어야 하는 거야. 거기다가 배짱도 있어야 하고...인내심, 용단력도 있어야 하고...운도 따라 줘야 하지”

“그럼 교수님은 아주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ㅋㅋ”

“웃지 마! 사실이야. 난 지금 야전사령관이 된 기분이거든? 교수실에 틀어박혀 하는 공부니~ 연구니~ 하는 것들은 뭐 남들 보기엔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풍류를 노리고 취미생활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어. 틀려도 나중에 고치면 그만이고, 이렇게 해봤다...저렇게 해봤다...하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잖아? 그러나 야전사령관의 판단과 결정에는 실험, 예행연습, 이런 것들이 없어. 한번 결정하면 그만이야”

“듣고 보니 그러네요”

“학문상의 잘못된 판단에는 그리 큰 피해가 없고, 있다고 해봤자 조금 부끄러운 정도지만...사업상 실수나 오판에는 경제적 손실이 따르지. 야전사령관이 한순간 판단을 잘못하면 그 회사는 곧바로 망하는 거야”

“야전사령관의 판단?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소리네요”

“모든 사람들이 교수라면 대단한 사람이고 사업가는 그저 돈밖에 모르는 장사꾼으로 알지. 내가 사표를 낼 때도 모든 사람들이 말렸고, 심지어는 미친 짓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막상 사회에 나가서 학교를 객관적으로 보니까...학교만큼 썩은 곳도 드물더라구. 모든 잘못이 결국은 교육의 잘못 때문으로 보이더라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육자다 교수다 하면 무조건 존경이 앞서니까...”

암튼...교수 자신들의 자기과시욕도 만만치 않구...”

“그래도 교수님은 명강사라는 소리도 듣고...여학생들에게 인기도 있었는데요?ㅋㅋ”

“요 녀석! 또 까불래? 뭐가 그리 우스워?”

“교수님한테 ‘요녀석’ 소리 들어 본지 참 오랜만이네요? 교수님은 특하면 ‘요녀석~’

하면서 꿀밤을 주곤 하셨죠? 한번쯤 교수님 꿀밤....맞아보고 싶었는데”

정호는 선희가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관심이 많았으나보다 생각했다. 기분은 좋았지만...그렇다고 ‘좋아라~’ 내색할 수도 없었다. 두 사람이 만나지 1시간 30분여가 지났을까? 정호가 손목시계를 쳐다본다.

“어? 벌써 5시30분이잖아. 이제 일어서야지?”

“전 6시30분차예요. 교수님 배웅해 드릴려구 조금 늦은 걸 샅지라”

“요런 깍쟁이 같으니!”

이 교수는 그녀의 마음씀씀이가 고마웠고 기분이 좋았지만 걸으로는 깍쟁이라고 야단(?)을 쳤다. 둘은 오랜 연인이라도 된 것처럼 제법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승차장으로 향했다. 걸으면서 이 교수가 선희에게 물었다.

“선희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선희는 팔짱을 꺾던 손을 놓으며 정호의 팔을 가볍게 꼬집으면서 말했다.

“에이! 교수님두...이렇게 어렵게 다시 만났는데 당근이죠. 교수님...명함 한 장~”

내미는 선희의 손바닥이 너무나 예쁘고 귀여웠다. 명함을 건내며 정호가 물었다.

“벌써 여름방학인가? 너 혹시 선보려고 일찍 집에 내려가는 건 아니야?”  
“결혼은 무슨 결혼...전 결혼 같은 건 안하지라”  
“그래, 흔히들 그렇게 말하지. 그럼...시집가기 전에 맘껏 해야지? ㅎㅎ”

선희는 눈을 흘기며 이 교수의 팔을 살짝 꼬집었다. 정호는 선희의 이런 태도가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선희에게...이정호 교수는 맘속 고이 간직한 ‘첫사랑’이었으니까.

## 제2장 - 즐거우면서도 몹시 힘들었던 밤

“예! 이 전무입니다”  
“저...선희예요”  
“어~!? 네가 웬일이야?”

의외의 전화에 정호는 깜짝 놀랐다.

“그래...그날 잘 갔지?”  
“그럼요, 그리고...여긴 서울인데여?”  
“그래? 언제 서울로 올라온 거야?”  
“지금 막. 여기 강남터미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갈 건데?”  
“아이! 교수님 만나러 왔지라!”  
“그래? 날 만나러?”

정호는 그녀에게 명함을 주기는 했지만 설마 찾아오겠나 했는데...얌튼 반가웠다. 그러나 반갑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짐짓 이렇게 묻고 있었다.

“아~이 참! 교수님 보러 왔는데 왜는 뭐 왜라요?”  
“그래? 미안. 날 보러 일부러 왔다는데 지금 만나야지. 터미널 2층에 지난번 만났던 커피숍 있지? 거기서 기다려 곧 갈게”

시계를 보니 오후 5시15분전이다. 7시에는 방금 상담을 끝내고 돌아간 미국인 바이어를 접대해야 하는데, 일이 바쁘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급히 터미널로 달려갔다.

“와~! 우리 선희가 더 예뻐졌네? 일주일 만인데 말이야”

과감하게 노출된 다리와 터진 블라우스 사이로 보이는 어깨의 곡선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으나 차마 그 말은 하지 못했다.

“교수님도 그런 소릴 다 할 줄 아시네요. 예쁘다 그런다고 누가 좋아 할까봐? 체~”

선희는 발정 난 암고양이처럼 잔뜩 토라져 있었다. 정호가 전화를 잘못 받은 것이다. 여자 다루는 솜씨가 서툰 정호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

리해야 좋을지 몰랐다. 무엇보다...왜 왔는지 궁금했다.

‘정말로 날 보러 왔을까?’  
‘아님? 무슨 부탁이 있어 왔을까?’  
‘그냥 심심하니깐 잠시 들렸을까?’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 녀석아! 예뻐서 예쁘다는데 웬 시비아?”  
“체~ 보고 싶지는 않았어라?”  
“짜식! 보고 싶었으니까 예쁘게 보이지. 자~ 차부터 한잔 해야지?”  
“교수님, 제가 정말 예뻐요?”  
“그럼...정말로 예쁘다니까?”  
“그럼 됐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좀 수척해 지셨네요?”

선희의 성이 아까 보단 조금 풀어진 것 같았다.

“응! 난 선희가 보고 싶어 잠도 못 잤다니까. 허허~”  
“웬일이야? 교수님도 그런 소릴 할 줄도 알고. 사업하시더니 많이 늘었나봐?”  
“얌! 늘었고 말구. 선희도 조심해! 내 레이더망에 걸리는 여자는 전부다 침 한방씩 안 맞고는 못 배기니까...”  
“호호호! 혹시 그 레이더망...뱃테리 다 떨어진 건 아니지라?”

선희가 특유의 눈을 흘기며 상기된 얼굴로 배시시 웃는다. 두 사람의 은근한 대화는 오랜 연인처럼 아예 노골적이다.

“선희야!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나 차표부터 사와야지. 막차는 몇 신지 모르겠네?”  
“교수님 너무했어! 어떻게 매번 쫓아버릴 궁리만 하셔? 아이~속상해!”

선희가 또 토라졌다.

“아니...아니야! 실은~”  
“아니긴 뭐가 아니예요? 교수님 싫어요!”  
“선희야! 사실은 말이야. 내가 오늘밤엔 미국에서 온 바이어가 있어서 접대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좀~”  
“아이 잘됐네요 뭘. 교수님...그럼 저도 접대하는데 데리고 가요. 네?”  
“안돼! 그냥 식사나 하는 자리가 아니고 요정에서 한잔하는 거야”  
“요정이면 어때요? 저도 요정이라는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참 잘됐다”  
“무슨 소리. 넌 요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접대부들이 나와...심지어는 손님하고 같이 서로 옷까지 벗고...”  
“아~잉!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었던 말이에요. 데리고 갈 거죠? 네?”  
“그래도 그렇지. 학생이 어떻게 그런 곳에...”  
“저도 이젠 어엿한 졸업반인데...그런데서 알바 하는 여학생도 많다던데...체!”  
“그래도 너와 난...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요정에 가다니...그건 말도 안돼!”  
“안 돼 긴 왜 안돼요? 이젠 사제지간도 아니잖아요...난 꼭 따라 갈 거야”

선희가 또 토라지며 앙탈을 부린다. 어리광을 떠나 이젠 숫제 반말 조다. 정호는 실로 난감했다. 딸 같은 어린 여학생을...더군다나 제자를 데리고 요정에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희의 모습을 봐선 쉬 떨어질 것 같지 않으니...이것 참 야단났다.

“저기 말이야. 요~옆 호텔에 스위트룸 하나 잡아 줄 테니 꼭 쉬면 어때?”

“싫어...싫어웃!”

큰 소리로 앙탈부리는 모습에 주위 사람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쳐다본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정호는 어쩔 줄 몰랐다. 바이어를 만날 시간은 다 돼 가는데 정말 큰일이다. 선희가 은근히 어깨를 포개며 말을 건 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풍겨 나오는 삼푸 내음이 정호의 코끝을 자극한다.

“교수님, 전 압전히 그냥 앉아만 있을게요. 교수님은 호스테스랑 놀고...저는 구경이나 할게요. 아니? 그건 오히려 어색할 것 같구...저가 교수님 곁에서 호스테스 역할을 하면 좋겠다. 저 술 잘 따르거든요? MT가서 남학생들한테 많이 배웠는데...교수님 우리 그렇게 해요. 예?”

정호는 차마 대답을 못했다. ‘이놈이 철이 없는 건지...아님, 걱정하고 오늘 나에게 침을 맞기로 한 건지...’

“난 죽어도 따라 갈 테니 알아서 하세요”

이젠 숫제 험박조다. 막무가내로 들이 대는 선희의 최후통첩.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내심 정호가 더 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에라~모르겠다” 는 심정으로 못이긴 척 데리고 나가버려?’

“그럼 말이야, 아무에게도 제자란 말은 하지 말고 내가 자주 다니던 요정의 호스테스인데...오늘 우연히 만나서 같이 왔다고 해야 해. 그리고 그 집의 호스테스는 따로 불러야 해. 개들도 직업인데 네가 남의 영역에 함부로 침범할 순 없잖아. 넌 그냥 내 옆에 압전히 앉아 있어야 돼. 알았지?”

“아이~신난다! 교수님은 오늘 양손에 꽃이다”

선희는 또 ‘좋아라~’ 까불어 댄다. 정호는 그러는 그녀를 보며 아랫도리에서 솟구치는 왕침을 애써 진정시키면서도 마음은 영 개운치가 않았다. 잠시 뒤 닥쳐 올 상황이 눈에 선했기 때문이다. 북한산 자락 밑에 위치한 T요정 야방궁. 선희는 뜻밖에도 전혀 어색함 없이 분위기에 맞추어 잘 놀았다. 마치 능숙한 접대부라도 되듯이, 계란돌리기에 따라 거침없이 웃을 벗었고...미국 바이어가 연거푸 따라주는 폭탄주도 마다하지 않았다. 곧잘 영어를 하기도 하니...미국인 바이어도 신이 났다. 시간이 지나며 정호를 보고 전무님이라 하다가 교수님이라 부르는 일이 잦아졌다. 이상하게 생각한 요정아가씨가 “왜 교수님이라고 부르냐?” 고 하니, “교수님 때 저희 요정에 자주 오신 분이래 입에 익어서 그렇다” 고 천연덕스럽게 받아 넘긴다. 정호는 혹시 그녀가 학생이라는 것이 탄로 날까봐 가슴이 철렁거렸다.

모두가 발가벗고 ‘부어라~ 마셔라~’. 세상사 모든 가식의 껍질을 벗고 한데 어우러진 환락의 밤. 정호에겐 이 밤이 내심 즐거운 밤이기도 했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선희에게 신경 쓰느라 몹시 힘든 밤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정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는 미친 듯이 술을 마시며 뭔가를 잊어버리려는 듯 했다. 질편한 육주(肉酒)의 놀이판이 끝나고,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선희는 정호의 품에 안겨 곤히 잠들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로운 내음이 정호의 전신을 자극했다. 흥분에 못이긴 그의 왕침이 바지를 뚫을 기세로 솟아올랐다. 정호는 그녀를 안아 살포시 그의 무릎위에 올렸다. 정호의 솟아오른 왕침이 그녀의 엉덩이 사이를 지긋이 찔러갔다.

“으음~ 아~”

“선희야...안 잤어?”

“응, 오빠! 나...지금...거시기 해주면 안돼?”

“아니...여기선...기사아저씨가 보고 있잖아”

“괜찮아요. 저는 신경 쓰지 말아요”

기사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속마음은 그것 뿐이었을까? ㅎㅎ 두 사람의 진한 애무를 시기라도 하듯이, 어느새 택시는 휘청거리는 서울야경을 뒤로하고 손살같이 한강을 넘어 P호텔 지하주차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정호가 비틀거리는 그녀를 부축하려고 하자, 그녀는 그의 손을 냉정히 뿌리쳤다.

“으~음...교수~니~임! 교수님은 나중에 올라와...알았쥐? 액!”

만취한 그녀를 먼저 엘리베이터에 태워 보낸 정호는, 뒤따라 올라가며 생각했다.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말자’

‘이 순진한 아이를 더 이상 더럽혀서는 안 된다’

‘사제 간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자’

‘같이 자서는 절대 안 돼!’

방안에 들어서니, 선희는 아무 말도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벽을 향해 서 있었다. 왈칵 다가와 정호의 품에 안길 줄 알았는데...뜻밖이었다.

‘그래, 여기까지다’

“선희야 잘 자라~ 아침에 올게”

“으...응. 잘 가~ 쪽! 굿~나잇!”

정호는 그녀의 잘가라는 말이 왠지 몰래 씩씩했다. 선희와 헤어진 후, 정호는 갑자기 허탈해졌다. 선희가 묵고 있는 호텔 건너편 모텔에 혼자 누웠으니, 그녀의 촉감, 그녀의 체취가 그리워진다. 술집 여자가 아닌 여자와 이런 황홀경에 빠져 보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녀의 조개에 침을 놓고 싶은 마음은 꿀떡이었는데’

독신인 정호로선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그러나, 참기 힘든 밤이었지만 참으로 행복한 밤이었다. 정호는 숫구치는 왕침을 애써 달래며 잠이 들었다. 호텔방에 홀로 남겨진 선희. 이 교수를 보내고 난 그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작심하고 온 선희였지만 막상 호텔에 도착하니 기분이 이상했다. 그러나 이 교수가 그렇게 나가 버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교수요 신사라 해도, 여대생이다 영계다 하면 사족을 못 쓰고 달려드는 것이 남자들인데, 굴러들어온 호(好)떡을 그냥 두고 가다니’ 선희는 이 교수가 이내 돌아 올 것이라고 여겼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자존심이 상했다. 취했던 술이 확~깨버린다. 택시 안에서 정호의 왕침이 스쳐간 팬티와 바지는, 그녀가 쏟아낸 애액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옷을 훔~훔~ 벗어 던졌다. 알몸이 되니 정호의 살내음과 침이 더욱 그립다. 선희의 두 손은, 어느새 터질 듯한 젖무덤을 지나 조개둔덕을 더듬는다.

“야속한 교수님...한번만이라도 침을 놓고 가시지...아흐!”

### 제3장 - 왜 눈물이 나왔을까?

새벽5시.

“깡~깡!”

잠결인지? 꿈결인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선희야, 나야~ 문 열어!”

이 교수의 목소리인 것 같다. 엉겁결에 벌떡 일어나 보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다. 얼른 타월로 몸을 감쌌다.

“누구세요?”

“선희야~ 나야!”

틀림없는 이 교수다.

“교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허겁지겁 여행가방을 열어 잠옷을 꺼내 입었다. 양치질을 하고 머리 매무새를 대충 손질했다. 영화배우 뺨치는 얼굴에다 완벽한 S라인의 몸매.

“내가 봐도 섹시하긴 섹시하네? ㅋㅋ”

남자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건 여자의 본능이지만, 최소한 그녀는 여행 중에 잠옷 정도는 챙길 줄 아는, 그 정도 교양은 갖추고 있는 여인이었다. 방안에 들어선 정호는, 조개둔덕의 짙은 수풀림이 흰히 비치는 잠옷 차림의 선희를 보고 다소 놀랐지만, 태연한 척 말을 건넸다.

“내가 너무 일찍 깨웠나? 잘 잤어?”

선희는 갑자기 정호의 품으로 쓰러질 듯 안기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교수님 미워! 몰라~ 아~잉!”

그녀만의 독특한 살내음이 또 다시 정호의 코끝을 자극하며 전신을 돌아 아랫도리를 향해 힘차게 내달린다. 이 교수는 그녀가 흘리는 눈물의 뜻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했다. 그는 말없이 흘러내리는 그녀의 눈물을 혀로 부드럽게 핥아주었다. 어젯밤 요정에서 술 마시는 모습을 보며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는 것 같기도 하고...자신이 그녀를 홀로 버려두고 호텔방을 나와 버린 것 때문에 우는 것 같기도 하고...좀체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어제 밤 선희를 혼자 버려두고 간 것이 무척이나 후회스러웠다. 품에 안겨 흐느끼는 그녀를 안아서 조심스레 침대위로 눕혔다.

“미안해~ 선희야”

“교수님 미워. 흑! 흑!”

“선희야~ 미안해! 난 말이야...”

순간 선희의 가냘픈 손이 정호의 입을 막으며 그의 몸 위에 쓰러졌다. 선희의 도톰한 조개둔덕이 정호의 왕침을 지긋이 압박했다. 벌떡 솟구치는 정호의 왕침.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주체할 수 없는 욕정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교수님,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말아요”

정호는 선희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더듬더듬 말을 잇는다.

“저...난 말이야...선희와 오래오래 사귀고 싶은 거야. 같이 자고나면 그걸로 끝나버리지 않을까...솔직히 두려웠어. 선희가 내겐 너무 과분한 존재로 느껴지기도 하고...또...금방 깨져 버릴 것 같은 유리병 같기도 하구...그래서 도망 친 거야”

“아이! 몰라~”

선희는 두 팔을 벌리며 정호의 허리를 힘껏 끌어 당겼다. 이미 정호의 왕침은 주체할 수 없이 솟아 있었다.

“선희야!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말 뿐! 이미 정호의 입술은 선희의 혀를 찾아 정신없이 헤매고 있었다.

“오빠...아~”

선희는 마치 발정 난 암캐처럼 정호의 바지를 무자비하게 벗기더니, 무릎을 구부린 채...두 손으로 정호의 왕침을 잡고 입으로 거칠게 애무하기 시작했다. 사실...정호의 왕침은 그녀가 한손에 잡기에는 너무나 컸다.

“오빠 거시기...너무 잘생기고 근사해! 너무 좋아...응!”

“나두...아...흑!”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날을 기다려 온 것처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욕정에 굶주린 짐승처럼 뒤엉켜 쾌락의 정점을 향해 미친 듯이 치달고 있었다.

“선희야 소리 좀 낮춰! 옆방에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으~음, 그냥 놔둬! 원래 연애할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대통령이라고 별다를 줄 알아? 다 똑같은 거야. 안 그래? 내가 교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아~”

‘그래, 선희의 말대로 연애하는데 가리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그냥 짐승처럼...개처럼...하는 거야’

토실토실 알맞게 영근 그녀의 조개둔덕은 정호가 그동안 접해 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쁘고 먹음직스러웠다. 정호의 왕침이, 무성한 수풀림을 지나 그녀의 조개둔덕을 헤집고 구석구석 침을 놓아 갔다.

‘때로는 알게~, 때로는 깊게~’

정호의 시술에 따라 그녀의 색색거림은 괴성으로 변하며 방안 가득 울려 퍼졌다.

“아~오빠...으~으~”  
“선희야...그렇게 좋아?”  
“응!”  
“여기?”  
“응! 거기...더 세계~”

벌써 3시간째이던가? 참으로 오랜만에 맛보는 포만감이다. 쌍방울에 고였던 묵은 찌꺼기를 그녀의 조개에 몽땅 빼버렸으니 십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간 느낌이다. 포만감 뒤의 달콤한 휴식인가? 정호는 두개피의 담배를 연달아 피워 물었다. 아침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다리를 살짝 벌리고 수줍은 듯 누워있는 그녀의 알몸을 비춘다. 선희의 육체는 보고 또 봐도 너무나 환상적이었다.

‘신이랄도 이 같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

정호는 두 사람의 애액으로 질퍽해진 그녀의 조개둔덕을 정성스레 혀로 핥았다. 선희는 그런 정호를 흡족한 모습으로 바라보며 그의 왕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정호의 왕침은, 아직도 위풍당당 핏발을 세운 채 천장을 향해 우뚝 솟아 있었다. 정호가 봐도 물건은 물건이다.

“어? 아직도 안 죽었네? 나...또 하고 싶어”  
“그래? 아직도 아픈 곳이 있어?”

정호도 이젠 제법 꺾쪽한 농으로 응수한다. 몇 번을 더 선희의 숨넘어가는 교성이 지나고서야 광란의 몸부림은 끝났다.

“선희야! 난 이런 로맨스가 처음이야. 제자와 연애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희야! 앞으로 날 버리면 안돼! 알았지? 가끔이라도 좋으니 날 찾아 줘야 해...만일...선희가 이대로 날 버리고 떠난다면, 난 너무나 비참해 질 거야”

정호의 말은 진심이었다. 비정한 사업의 세계로 들어온 후로 처음 맛보는 쾌락이자, 생전 처음 맛보는 색다른 로맨스였다. 정호는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설령 독신이 아니고 아내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선희와 같은 여자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순간, 선희의 눈망울에 희미하게 이슬이 맺혔다.

“교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교수님은 몰랐겠지만 전 이 순간을 위해 지금껏 아무한테도 몸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교수님께 주려고 고이 간직해 왔지라...흑!흑!”

“미안해 선희야”

“알아요. 저가 처녀니까 흑 잘못되면 어쩌나하는 부담감이 계시겠죠. 그러나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원해서 한 일인데요 뭘”

“부담감이 아니야. 난 그냥 유리병을 고이 간직하고 싶었었는데...깨버려서”

“교수님, 저는 유리병이 아니에요. 교수님이 보고 싶을 때마다 어떻게 가만히 있었겠어요? 요즘 여자용 자위기구도 많아요. 그걸로...교수님과...오빠 것 보단 못하지만...ㅋㅋ”

다시 그녀의 양증맞은 손이 정호의 왕침을 살며시 잡는다.

“교수님, 저 아주 못된 학생이죠?”

“아니야, 난 충분히 이해해. 나도...실은~”

어느새 두 사람은 다정한 부부사이처럼 변해 있었다. 하룻밤 광란의 밤이 두 사람 사이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을 수 있다니. 더구나 스승과 딸 같은 제자 사이인데, 역시나...밥만 먹고 못사는 게 인간이던가?

“선희야, 우리 아침 먹으러 가야지? 네가 다 먹어 버린 탓에 배고파 죽겠는데?”

“이젠 농담도 제법이셔? 다 먹긴...뭘...다 먹어요? 알았어요. 씻고 내려 갈 테니 먼저 내려가 계세요”

식당에 내려온 선희의 얼굴은 약간 수척해 보였다. 하기가야, 밤새도록 그것을 했으니 오죽하겠는가?

“선희야, 이번 일요일엔 목포에 있을 거니?”

“아뇨? 당분간 외갓집이 있는 부산 광안리에 있을 거예요”

“경주에 오지 않을래? 난 이번 일요일에 경주에 있을 건데...신라의 여름매미 소리도 듣고 싶고”

“오라면 가야지. 하늘같은 서방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나요?”

“그래? 그럼 이번 일요일엔 경주에서...”

“근데...저...교수님, 떠나기 전에 교수님께 꼭 고백할 게 있어요”

갑자기 정색을 하며 고백할 것이 있다는 선희의 말에 정호는 바짝 긴장했다.

“뭔데?”

“저는요...사실은 아주 못된 아이예요. 교수님을 만나기 1년 전인 고3때 영어선생님을 좋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와서 꼬리를 잡히고 말았지요. 그 선생님의 사모님이, 학교로...집으로...찾아와서 창피를 주는 것도 부족해서, ‘이혼을 하겠으니 위자료를 내라’, ‘간통죄로 고소하겠다’ 는 등, 온갖 횡포를 부려서 돈도 많이 주었어요. 결국 그 선생님은 학교를 그만두고 건설회사에 취직을 한 후 중동의 공장으로 가버렸지요. 부인과의 이혼도 막고 제게서 떨어지기 위한 비참한 선택이었죠. 괜찮은 분이셨는데...하지만, 그건 사랑은 아니었고 작은 불장난이었어요”

선희는 감회에 젖는 듯 잠시 천장을 쳐다보다 말을 이어 갔다.

“그 영어선생님과 키스 정도의 스킨십은 나누었지만 잠자리까진 하지 않았었죠. 결국, 소문은 퍼지고...전...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지요. 그래서 교수님을 좋아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수하지 못했던 거죠. 교수님은 이제 선희의 완전한 첫사랑이 된 거예요. 오늘도 저 스스로 교수님께 몸을 드리고 싶어 드린거구...”

“.....”

정호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불일이 있어 조금 늦는다고 적당히 둘러놓고는 선희를 터미널까지 바래 다 주었다. 떠나는 차창으로 가볍게 손을 흔들며 선희는 또 울고 있었다. 울고 있는 모습조차도 아름다운 그녀. 뭔가 알 것 같기도 했지만,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녀의 눈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거친 섹스의 달인처럼, 아무 부끄럼 없이 정호를 능수능란하게 리더하고 과거를 아낌없이 고백하던 그녀가 아니던가!? 그러나, 나이만 먹었지 연애엔 초짜였던 정호는 선희가 흘리는 눈물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 선희는 영어선생과 결별한 후, 인생관에 큰 변화가 생겼다. 한참 예민한 사춘기시절에, 자칫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이해심이 많은 어머니가 곁에 있으면서 감싸 주었기에, 그나마 마음을 잡을 수 있었다.

“여고시절 너 또래의 나이에 선생님을 사모하는 것은 누구나 한번쯤은 겪는 일이야.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애정으로 변한 거지. 그러나 그 애정을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운데, 넌 그것을 과감히 행동으로 옮겼던 거야. 말하자면 넌 과감한 여자이고 강한 여자인 거야. 네가 정말로 강한 여자라면 과감히 잊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주위의 소문 따윈 신경 쓰지 마. 곧 잊게 될 거야. 엄마는 널 믿으니까”

어머니의 이런 설득은 선희에게 큰 위안이자 힘이 되었다. 하지만, 이 일이 있던 이후 그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사랑이란?’ ‘인생이란?’ 이런 것들에 대해 흥미도 유혹도 매력도 느끼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 그렇다보니, 선희는 대학교에 진학해서도 주위에 이렇다 할 친구

도 없었고, 같은 나이 또래의 남학생들은 숫제 동생 취급을 해버렸다. 하기가, 18살 어린나이에 아빠 같은 선생님과 연애를 해봤으니 그럴 수밖에...ㅠㅠ 그렇게 선희의 마음 한 구석은 늘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현명한 여자였기에 허무감에서 탈출하려고 불을 찾아 함부로 불속에 뛰어드는 불나방은 되지 않았다. 그녀를 허무감으로 몰아 간 것은 그녀 아버지의 영향이 더 컸다. 선희의 아버지 윤두식. 장군 출신으로 고위관료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전형적인 위선자요...전형적인 관료였다. 자신은 권력에 기생하여 뇌물을 받아먹고, 아침도 하고...비밀요정에서 온갖 추잡한 짓거리를 다 하면서도...항상 가정과 사회를 향해서는 윤리와 도덕을 내세우는 이중인격자의 탈을 쓴 위선자였던 것이다. 영 어선생과 선희의 관계가 터지자, 그렇게 점잔을 빼던 아버지는 그녀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 그의 걱정은 딸의 아픔과 장래에 대한 것도 아니었고, 오로지 자신의 명예에 먹칠을 하지는 않을까? 그것 한가지뿐이었다. 가톨릭에선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다’ 고 한다. 에덴동산에서 금단의 과실을 따먹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비극을 피하기보다는 도전하는 본능이 있다고 했던가? 선희는 이런 모습의 아버지에게 사죄함으로써 비극을 피하기보다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아주는 비극에 도전하고픈 충동을 느낀 것이다. 대학교에 입학한 선희는, 이정호 교수의 ‘한국 정치론’이라는 교양과목을 듣고, 이 교수가 지도하는 ‘UN학생회’에 가입하면서부터, 생애 처음으로 매력적인 남성상을 발견했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언제나 활기에 넘쳐있는 이정호 교수를 보면, 공연히 힘이 났다. 더욱이, 그의 명쾌하고 박진감 넘치는 이론전개와 거침없이 토해내는 정치.사회적 비판에 그를 통한 대리만족의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그녀도 몰래 이 교수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자신이 ‘그토록 나쁜관료의 자식이었던가?’라는 가책 속에서... 고위공직자의 자식들은, 공직자와 정치에 대한 비판에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십상인데 반해 선희는 그렇지 않았다. 어차피 자신은 여고시절 영어선생과의 불장난으로 인해,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헌 처녀’라는 낙인이 찍혀있어 온전한 결혼을 기대하긴 어려웠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독신으로 살면서 정치가가 되어, 자신을 멸시하고 비웃던 사람들을 향해 우먼파워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그래서 선희는 파워 넘치는 이 교수의 정치학 강의에 더욱 매력을 느꼈다. 숫제 가정학과에서 정치학으로 전과해 버릴까? 할 정도였으니...그녀의 맘속 깊이 자리했던 이 교수. 그런 이 교수가 어느날 갑자기 그녀의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이다. 선희의 가슴엔 또 하나의 허공이 생겼다. 그것도... ‘아주~, 커다란~’ 불장난을 거쳐 이제 갓 사춘기를 넘어 성에 대해 눈뜬 그녀였다. 무엇보다도...불꽃처럼 타오르는 성욕만은 참을 수 없었다. 아름다운 얼굴에...빠어난 몸매에...젊은 숫처녀에...성욕도 강함~ 한마디로 그녀는 세상의 모든 남성이 품고 싶은 가장 이상형의 여자였다. 갑자기 사라져버린 이정호 교수. 그림기 보다는 미울 때가 많았다.

어느 이른 봄날. 외갓집이 있는 부산 광안리 바닷가의 한적한 백사장. 선희는 이 교수의 모습을 떠올리며 혼자서 이 교수와 상상연애를 할 때도 있었다. 한편으로는...이 교수를 대신해 줄 남성을 발견할 수 없는 걸 괴로워하면서~ 4학년이 되면서부터 집에서 결혼을 재촉했지만 어떤 남자와 선을 봐도 이 교수의 모습이 아른거려 도저히 결혼할 자신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로 올라온 아버지가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야단을 쳤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선생과 연애질한 년이 선보는 곳마다 왜 퇴짜를 놓느냐”는 것이었다. 선희는 그 날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다.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그래~ 교수님을 찾자!”

## 제4장- 길거리에서의 성애(性愛)

토요일 늦은 오후, 경주역.

정호는 자꾸만 시계를 쳐다본다. 승객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벌써 다음 열차가 들어 올 시간이다. 도착시간이 20분이나 지났는데도 선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 안 오는 건 아닐까?”

정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날~좀 보소. 날좀~보소. 나알~좀 보오~소”

“하하하”

선희의 분위기와는 영 어울리지 않는 컬러링 소리에 정호는 배꼽을 잡았다.

“선희니? 지금 어디야?”

“나...지금...화장실에...음”

“아니, 그럼 그렇다고 전화라도 할 것이지...20분이 넘도록 안보여서 난 안 오는 줄 알았잖아. 그런데 뭘 하느라고 그렇게 오래 걸려?”

“응! 소변보러 왔다가 갑자기...음~ 빨리 나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줘요. 음”

‘나참! 혹시 화장실에서 그 짓을?’

정호는 그렇게 주절대면서도 선희의 모습을 상상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며 가빠지는 호흡. 대합실 밖으로 나간 정호는 담배 두개피를 연거푸 빨아 제켰다. 10여분이 더 지났을까?

“교수님 여기야! 많이 기다렸죠? 미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배시시 웃으며 천연덕스럽게 다가오는 그녀의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사랑스러워 보인다.

“아니, 화장실에서 뭘 그리 오래 있어?”

“네...거시기...별일 아니에요. ㅋㅋ”

정호는 그녀가 화장실에서 뭔짓을 했는지 알면서도, 짐짓 모른 채 느스레를 떨었다.

“아~ 신라하늘이 참 푸르네...구름 한 점 없이”

“ㅎㅎ, 교수님...거짓말!”

“아니야? 선희가 와서 오늘따라 더 푸른 것 같은데?”

“그런가요?”

“경주는 올 때마다 변하는 것 같아”

“자주 오시나 보죠?”

“응, 가끔. 20년전 은행 다닐 때 이곳에서 몇 년을 살았었지. 추억도 많은 곳이구”

“아~ 그랬었군요”

“내겐 슬픈 추억이 서린 곳이야. 또한...나를 버린 곳이기도 하지”

정호의 눈가에 가늘게 이슬이 맺혔다. 문득, 당시의 아린 기억들이 영화필름 돌아가듯 스치고 지나갔다. 경주는 정호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한일은행의 마지막 근무지였다.

‘요석궁(搖石宮)’ 추억속의 그 여인과 은밀한 밀애를 즐기던 곳.

“아! 요석궁은 아직 그대로 일까?”

“요석궁? 교수님...요석궁이 뭐하는 곳이야?”

“음! 요석궁은 요정이야. 원래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경주 만석꾼인 교촌(校村) 최 부자네가 살던 집인데, 처음으로 만석을 이루었던 시조

가 ‘대대로 만석이상은 불리지 마라’ 는 유언을 남겼고, 후손들은 그 뜻을 받들어 재산을 불리는 것 보다는 베푸는 일에 치중하다보니 점차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은 경주시에서 그 집을 사서 ‘요석궁’ 이라는 관광요정으로 사용한 게지”

“선희야! 우리 걸을까?”

“그래요 교수님. 선희가 난생 처음 교수님하고 ‘워킹데이트’ 도 해보네?”

어느새 그녀는 쫄르르~ 다가와 정호의 팔짱을 꼭 낀다. 스치듯 양증맞은 손으로 정호의 왕침을 살짝 건드렸다.

“교수님...셨네?”

“너...자꾸 놀릴래?”

정호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내심 싫지 않은 표정이다. 선희의 붉은 금새 발가스레하게 상기되면서도 오히려 한손은 찬호의 와이셔츠를 헤집고 들어와 그의 젖꼭지를 만지작거렸다.

“씨! 자~해볼테면 해봐요”

순간, 그녀의 도발적인 행동에 정호의 왕침이 참지 못하고, 바지를 뚫을 기세로 솟아올랐다. 인도(人道)엔 한 두 사람만이 간간이 지나갈 뿐, 너무나 한적했다. 걸어가면서도 그녀의 손놀림은 계속 이어졌다. 선희의 왼손은 정호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손은 그의 바지속에서 나올줄 몰랐다.

“오빠...좋아?”

“선희야, 그만해! 으~”

바지 속에 들어간 선희의 손놀림이 더욱 빨라졌다. 선희의 손놀림에 따라 가쁜 숨을 몰아쉬던 정호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다.

“으~으~익!”

순간, 막혔던 뱃물이 터지듯, 왕침에서 뭔가 빠른 속도로 빠져나갔다.

“크...쌌어?”

“응”

“좋아?”

“으응!”

“이거 장난이 아니네? 바지가 다 젖었네? 이를 어쩔 꺼냐”

“다~ 너 때문이잖아!”

“혼자만 좋으면 어떻게 해? 나두...응?”

정호는 그러는 선희의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담배 한 개피를 피워 물고 나서...살며시 그녀의 귓볼을 혀로 핥았다.

“아까 화장실에서...안했어?”

정호가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아이! 몰라~”

선희는 수줍은 듯 얼굴을 살짝 붉히면서, 정호의 손을 슬며시 당겨 그녀의 조개둔덕 위에 놓고 문지르기 시작했다.

“누가 보면 어떻게 해?”

“보긴...누가 본다고 그래? 아무도 없잖아. 빨리~”

“알았어! 여기?”

“응! 좀 더 위에”

“여기?”

“응! 아~으~흑!”

“했어?”

“으응!...아~”

긴 기다림을 지나 만난 두 사람. 오랜 가뭄 끝에 물 만난 고기처럼, 이렇게 둘의 성애(性愛)는 장소마저 잊어버렸다.

“오빠! 아까 하던 요석궁 얘기, 마저 해 줄래?”

그녀는 이제 대놓고 반말이다. 하기가, 둘 사이엔 이미 할 것 다하고 볼 것 다 봤는데, 가리고 자시고 할 것이 무에 있겠는가? 오히려 반말이 더 자연스러웠다.

“그래, 나중에 거기 가서 해 줄게”

대충 2시간 정도는 걸었을까?. 잠시 후, 보문관광단지 안의 호수가 시원스레 두 사람을 반겼다.

“오빠! 우리...저기~”

“저기 뭐?”

“아이! 저 호텔 말이야”

“아~ 저기...저...콩 호텔? 그런데 왜?”

“왜는 왜야? 그럼 밖에서 잘 거야? 근데...저 호텔 대게 좋아 보이는데...비싸겠지?”

“응, 이곳은 제주도에 있는 중문관광단지과 더불어 옛날 박통시절 통행금지가 있을 때도 통금의 구애를 받지 않았을 정도로 유명한 관광단지야. 그래서 대부분의 호텔은 5성급이지”

“그래? 자기가 우리 저 호텔에서 자자”

짧은 시간, 참 많이도 발전했다. 이젠 아예 교수님에서 오빠에서 자기로 발전해 버렸다. 선희가 호칭을 어떻게 쓰던지 정호는 전혀 어색한 느낌이 없었다.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일 뿐. 하룻밤 풋사랑에 만리장성도 쌓는다 하질 않았던가. 정호는 마침 한일은행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콩 호텔’ 의 ‘VIP멤버십’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서, 숙박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됐다.

“그래, 그럼 저기로 갈까요? 예쁜 공주님~”

“아이~ 신난다!”

이젠 정호도 대놓고 선희를 공주라고 부른다. 헐~!

## 제5장 - 콩 호텔에서서의 정사(情事)

콩호텔 909호실. 취해 비틀거리는 보문 호숫가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오빠 사랑해!”

선희의 양증맞은 손이 어느새 이 교수의 바지를 열고 그의 왕침을 꼭~움켜잡았다. 정호의 왕침이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불뚝 솟아올랐다.

“오빠 거시기...님 멋져부러~ ㅋㅋ”

“공주님, 일단 샤워부터 하셔야죠?”

“우리 같이하자! 응?”

“그럴까?”

선희는 발정 난 암캐처럼 이 교수의 옷을 거칠게 벗겨 나갔다.

“오빠...나도 벗겨 줘!”

“알았어!”

정호는 거친 손놀림으로 그녀의 옷을 빠르게 벗겼다. 이 순간만은 체면이고 뭐고 없었다. 윤리나 도덕 따위를 떠나 원초적 본능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거품 가득한 월풀 안. 정호의 입술이 그녀의 하얀 목덜미를 지나, 농익은 젖무덤을 헤집고 봉긋이 발기한 분홍빛 앵두를 잘근잘근 씹었다. 터져 나오는 선희의 색다른 교성.

“아~ 여보!”

정호는 선희의 두 다리를 벌려 어깨위에 올렸다. 발가벗고 시술을 기다리는 모습이 부끄러워서인지, 그녀의 조갯살이 파르르 떨린다. 핏발 선 정호의 왕침이 그녀의 조개둔덕을 부드럽게 파고들었다.

‘좌33...우33’

‘세 번은 짧게~, 세 번은 길게~’

“퍽!퍽!퍽!”

“퍼억~퍼억~퍼억~”

성애가 쾌락의 끝을 향해 치달으며 욕조의 물이 부딪치며 마찰음을 더한다. 왕침이 조갯살을 파고들 때 마다 그녀의 입에서 묘한 괴성이 터져 나왔다.

“으...으...으... 여보! 더 세게~ 응?”

욕조에서의 정사. 참으로 오랜만이다.

“오빠 힘들었지?”

“응! 조금...”

“오빠! 나 이젠 오빠 없인 못살 것 같아. 이를 어쩔어라?”

“.....”

“오빠...날 버리면 안돼...알았지?”

이 교수는 그러는 그녀가 한없이 사랑스럽게만 보인다. 중년을 넘어 지천명의 나이를 바라보는 정호지만 정력하나 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하는 그다. 녀의 속삭임에 정호의 왕침이 다시 불끈 솟았다. ‘아~ 참자. 하고 나면 허무한 것을~’

“나 힘들어. 이제 그만하자 응?”

“알았어! 오빠...”

격렬한 정사 뒤에 오는 허전함인가? 갑자기 배가 고프다. 아니나 다를까? 냉장고를 열어 시원하게 히야시 된 맥주 한캔을 비우고 나니, 선희가 아침을 먹고 요석궁에 가자고 보낸다.

“아니? 벌써 아침이 됐남?”

커튼을 젖히자 아침햇살이 쏟아져 들어 왔다.

욕조에서...침대로~

침대에서...욕조로~

그리고...소파에서.

둘은 그렇게 욕조와 침대, 그리고 소파를 오가며 성에 굶주린 짐승처럼 날밤을 깬 것이다.

요석궁(搖石宮)

“아~, 만석꾼 부자가 살던 곳이라 그런지 역시 다르네? 정말 대단하네요”

요석궁의 외관만 보고도 선희가 놀란다. 하지만, 오는 날이 장날이라 했던가? 마침 수리를 위해 휴관 중이라 안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었다. 정호의 지난 추억이 서린 요석궁. 정호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두 사람은 교천마을을 한 바퀴 돌고 난 뒤, 계림 숲을 지나 반월성으로 향했다. 정호가 요석궁에 대해 ‘쌀~’ 을 풀었다.

“선희야, 신라시대 원효대사(元曉大師) 알지?”

“네, 알고 있지라”

“원효대사는 절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고 맨날 민초(民草)들과 어울리던 괴승(怪僧)이었지. 그가 어느 날,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주면 내가 하늘을 받칠 기둥을 찍어 내겠다’ 고 외치고 다녔어. 그때 이 말을 들은 신라 무열왕은 ‘이는 필시 원효대사가 귀부인을 얻어 나라를 받칠 기둥이 될 자식을 낳겠다는 뜻이 틀림없다’ 고 생각하고, 과부였던 딸 요석공주(搖石公主)를 원효대사에게 주기로 한 후, 그를 궁(宮)에 들라고 명(命)한 게야”

“나도 알아요. 공주를 스님에게 줄려고 그랬잖아요. ㅋㅋ”

“그렇지. 무열왕의 명을 받은 신하는 머리가 꽤 잘 돌아 가는 놈이었지. 그는 원효대사가 징검다리를 건널 때 일부러 밀어뜨려 물에 빠지게 한 다음, 옷을 말리러 간다는 핑계로 원효대사를 요석공주가 기거하는 요석궁으로 업고 간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종과 공주의 로맨틱한 교

접이 일어나고 둘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신라 3대 석학(碩學)으로 불리는 설총(薛聰)인 게지”

“오홍! 그러니까 자루 없는 도끼는 남편 없는 요석공주요, 하늘을 받칠 기둥은 설총이었고, 짝이 없다는 말은...그거 하는 거? ㅎㅎㅎ”

“그어...그렇지. 그거~”

“오빠! 스님하고 하면...? ㅋㅋ”

“선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 요즘도 대승불교에선 부인을 둘 수도 있거든?”

“그래요? 난 몰랐는데? 스님이면 무조건 결혼은 못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지라. 근데 하필이면 요정 이름을 고귀하신 공주님 이름을 따서 지었을까?”

“아니야! 요정이름으론 ‘딱’ 이지. 로맨틱하잖아? 과부공주와 스님의 사랑...안그래?”

“선희와 교수님의 관계, 요석공주와 원효스님의 사랑보다 더 로맨틱 하지 않나요?”

이 교수가 그윽한 눈빛으로 선희를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특유의 묘한 눈웃음을 흘리며 정호를 훔 것 쳐다본다. 순간 정호의 왕침이 참지 못하고 슬그머니 고개를 쳐들었다. 이심전심이던가? 어느새 그녀의 양증맞은 손이 정호의 왕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오빠! 계속 얘기해 줘요”

“응응! 그래. 원효는 요석공주와 만난 후로 스스로 파계승임을 자처하고, 승복을 벗고 이름도 무애(無礙)로 바꾸어 광대패거리 등 천민들과 어울리며 바꾼 이름처럼 거리낌(碍) 없이(無) 살았지. 그래도 신라의 고관대작과 왕족들은 그를 만나기 원했고, 훗날 원효대사는 많은 저서와 불경을 남겨 불교계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공로가 많은 고승(高僧)이 된 거야. 음...그런데...”

선희가 고개를 가우뚱거린다.

“왜요?”

“처용가(處容歌)를 봐서도 그렇고...요석공주와 원효대사의 이야기도 그렇고...”

“뭐가요? 오빠! 신라인들은 로맨틱했다기보다 음당했다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처용(處容)은 용왕(龍王)의 아들로 신라왕을 돕고 있었다. 어느 달 밝은 밤에 집에 와 보니 방안에 다리가 넷 보였다. 역신(疫神)이 자신의 처와 자고 있었던 것. 처용이 노래와 춤으로 노여움을 달래니 역신이 감동을 하여 처용에게 사과하고 도망가 버렸다는 전설이다.’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지. 그땐 지금으로부터 약2천년 전이니까 고대(古代)그리스의 전성기와 동시대였지. 아마 신라에도 그리스와 같은 헬레니즘이 있었던 게야”

“헬레니즘? 알듯 하긴 한데...”

“쉽게 말하자면, 신분과 제도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의 이성(理性)으로 생각해 봐서 좋다면 좋은 것이다’ 는 주의지”

“좋은 게 좋다?”

“그렇지. 달리 말해서, 인간이 ‘좋아라~’ 하면 그것이 선(善)이요 진리(眞理)라는 게지. 그래서 쾌락이 곧 진리라는 사상도 생겨난 거구. 쾌락은 좋은 거니까..안그래?”

“쾌락이 진리라고? 오빠! 아니? 교수님! 그건 좀 심한 것 아냐?”

“공주님! 쾌락이 다 저질은 아니야. 예를 들어, 이 주장에 철저했던 그리스의 철학자 알리스토포가 창녀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의 친구가 ‘자네는 애정도 없는 고깃덩어리를 왜 그렇게 좋아 하는가?’ 라고 묻자, 알리스토포는 이렇게 답했지 ‘포도주와 고기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포도주와 고기를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 라고 말이야. 비록 신분은 창녀지만 내가 좋다면 선(善)이라는 게지. 창녀라고 하면 일단 색안경부터 끼고, 쾌락이라면 저속한 생각부터 떠올리는 한국인의 사고에 비해 대단히 합리적(合理的)인 게지”

“포도주와 고기와 창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즐길 수 있다? 내가 좋으면 그게 선(善)이다? 음...”

“그 당시엔 매춘을 합법화해서 매춘업에도 과세를 했었지. 그래서 돈 있고 점잖은 인사들은 창녀와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사랑을 함께 나누었지. 아무튼 무질서 속의 질서라고나 할까? 하지만, 돈 없는 건달들은 공짜를 찾아 처녀나 유부녀를 마구잡이로 겁탈하곤 했었지”

“아하! 그래서 서구에선 오늘날에도 저명인사와 창녀간의 스캔들이 있고, 포르노 여배우가 당당히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은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이군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지?”

“잠깐! 교수님...이제 알았어요”

“뭘?”

“교수님의 말씀! 쾌락은 선(善)이니까 원초적 본능에 충실해야 하는바...어헴! 고로 교미는... ㅎㅎ...아니...육체적 사랑은 짐승처럼...아니...개처럼 하되...정신적 사랑을 곁들이면 인간다운 사랑...질서 있는 사랑이 된다는 말씀, 한마디로 말하자면 ‘쾌락을 인간답게 즐기자’ ...맞죠?”

“그렇지! 바로 그거야. 개같이~ 인간답게!”

“아휴~ 어려워!”

“헬레니즘과 대립된 사상을 살펴보면 그 뜻을 보다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고대그리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헬레니즘에 반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난 헤브라이즘사상이 있지.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구체화 되고, 서구를 지배하게 되면서 헬레니즘시대는 사라져갔지. 헤브라이즘은 카톨릭시즘, 즉 ‘카톨릭주의’ 라고도 부르지요”

“교수님, 헤브라이즘이 헬레니즘과 다른 점은 뭐예요?”

“헬레니즘에선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법칙에 의해 진리가 변해간다’ 고 보는 반면, 헤브라이즘에선 ‘절대자의 뜻으로 진리가 결정되어간다’ 고 보는 거야. 가톨릭이란 강력한 종교가 전(全)유럽을 지배하게 되자, 진리탐구의 기준이 인간의 본능인 쾌락에서 절대자인 신의 뜻으로 바뀐 거야.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뜻’ 을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보는 게지”

“아하! 그래서 ‘주께서 가라사대~’ 로 시작하는군요”

“그렇지. 신라인의 헬레니즘도 불교가 들어와선 사라졌지. 대신, 석가라는 절대자의 뜻에서 진리를 구하게 되었고, 유교가 들어와선 공자와 맹자 같은 현인(賢人)의 뜻에서 진리를 구하게 된 게지”

“아하! 그래서 ‘부처님 가라사대~’ ‘공자 왈~’ ‘맹자 왈~’ 한 것이군요”

“그렇지”

“그럼 신의 뜻에 의한 심판이나 종말론 같은 것들은 전부 헤브라이즘에서 온 것이겠네요?”

“그렇다고 봐야겠지?”

“아~ 그렇구나!”

선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가 교수님과 이렇게 쾌락을 즐기고 있는 것도 헬레니즘에 입각하면 나쁜 짓이 아닐 수도 있지만 헤브라이즘에 입각하면 나쁜 짓이잖아? 교수님은 부인과 자식이 있는 몸인데, 더군다나 아빠 같은 나이인데, 내가 진실로 육체와 정신을 함께하며 교수님을 사랑한 것이 죄가 될까? 처녀성까지 교수님께 즐려고 고이 간직해서 드렸잖아. 난...ππ’

“공주님! 뭘 그리 골똘히 생각하셔?”

“아뇨...그냥...”

그녀는 지금, 자신의 행동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너무나 혼란스러웠다. 선희의 눈가에 잔잔한 이슬이 고였다. 정호는 그런 선희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듯, 그녀를 껴안았다.

“아~오빠!”

선희는 정호의 목에 매달린 채, 그녀의 입술을 헤집고 들어오는 그의 혀를 입안 깊숙이 빨아들었다. 꿀맛 같은 진한 키스의 여운이 끝나기도 전에, 이번엔 정호의 성난 왕침이 고개를 쳐들고 그녀의 도톰한 조개둔덕을 무자비하게 찢러왔다.

“오빠! 으~음~”

두 사람은, 서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둥켜안고, 길옆 덩굴 속으로 쓰러져갔다. 선희의 양증맞은 손이 정호의 바지 속으로 거침없이 들어갔다.

“오빠...여기 앉아 봐!”

“왜?”

선희는 정호의 얼굴을 뒤로한 채, 그의 허벅지 위에 걸터앉았다. 그녀의 치마 속엔, 무성한 수플림과 도톰한 조개둔덕만 있을 뿐, 아무 것도 없었다. 요석공주와 원효대사 이야기를 할 때, 너무 흥분한 나머지...팬티가 흠뻑 젖어 버려서...조금 전...소피보러 다녀오면서, 화장실 배수구에 버린 것이다. 선희가 그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자 말자, 정호의 성난왕침이 그녀의 조갯살을 뚫고 거침없이 파고들었다.

“아~좋아! 더...”

“이렇게?”

“으응! 더 세계...아~헉! 으~음~”

선희는 정호의 왕침이 놓는 현란한 시술에 연신 엉덩이를 들썩인다. 계림의 낙엽들은 부러운 듯 바스락거리며 다가오고...옛보던 태양은 부끄러운 듯 저 멀리 반월성으로 달려가 얼굴을 붉힌다.

“선희야...사랑해!”

“오빠...저 두요!”

두 사람은 어느새 반월성을 오르고 있었다. 반월성에 올라 내려다보니 계림의 숲과 경주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왔다. 선희는 정호의 등 뒤에 다가가 포근히 감싸 안았다.

“오빠~ 나...또 하고 싶어”

“그래...나두”

어느새 그녀의 양증맞은 손이 정호의 바지를 열고 성난 왕침을 잡아갔다. 석양에 붉게 타오르는 반월성을 뒤로 하고, 선희의 품만한 젖무덤이 정호의 등에서 요동을 친다.

## 제6장 - 못으로 호수에 구멍 뚫기

반월성을 내려오며, 정호가 갑자기 한쪽을 가리켰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비탈진 언덕 중턱에는 약간 평평한 잔디밭이 있고, 거대한 소나무 한그루가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서 있었다.

“선희야! 저기~ 저 소나무 밑이 내가 경주에서 한일은행 다닐 때 혼자 와서 사색에 잠기곤 하던 곳이야. 혼자만의 비밀아지트라고나 할

까?”

“오빠! 우리 저기서 잠시 쉬었다 갈까?”

두 사람은 길다란 소나무 가지를 이불 삼아 나란히 누웠다. 수북이 쌓인 짝지(\*말라 떨어진 소나무 잎-울진군 지방의 사투리)가 너무나도 폭신했다.

“교수님, 교수님은 젊었을 때부터 학자가 될 소질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혼자만의 아름다운 비밀아지트를 가지고 사색에 잠겼다니...”

“지금도 마음이 울적할 땐 가끔씩 혼자 오고 그래, 오늘은 이렇게 선희랑 같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지”

“매미 소리가 대단하네요, 신라의 매미라 다른가봐요?”

“그래? 아마도 우리 선희가 왔다고 더 크게 우는가 보지? ㅋㅋ”

“아이 고마워라! 우리 착한 매미”

선희는 싱그러운 솔내음과 매미소리에 취한 듯, 살며시 그의 어깨에 얼굴을 기댔다.

“경치가 참 아늑하고 좋아요. 남산도 여기서 보니 아주 잘 생겼구”

“저기...저 언덕아래 효불효교(孝不孝橋)라는 돌다리가 있었어. 옛날엔 흔적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지. 돌을 다 도둑맞은 거야. 그것도 전부 문화유적인데 말시...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야”

“근데...오빠! 무슨 다리 이름이 그래? 효(孝)도 아니고 불효(不孝)도 아닌~”

“응, 그건 옛날에 아들을 일곱 둔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강 건너 남편의 무덤에 갔었는데, 이를 본 아들들이 어머니가 가여워서 몰래 돌다리를 놓아 주었지, 그런데 실은 이 과부는 남편 묘에 간다는 핑계로 남편 무덤에서 못 사내를 만나 그 짓을 한 거야. 그러니 귀신도 곡할 노릇 아니겠어? 그래서 칠형제가 놓아준 다리 이름을 ‘효불효교(孝不孝橋)’ 라고 했다는 거야”

“오호~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야? 아이 재밌어라!”

“전설이란 이렇게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이어져 온 거야. 신라시대에 이미 이율배반(二律背反)을 논했다는 거지. 알고 보면 이놈의 세상은 온통 이율배반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면 딱 일 거야”

이 교수는 자식 같은 제자인 선희와 가책을 느끼면서 즐기고 있는 것도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했으나, 선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선희는 과부가 남편의 묘 앞에서 그 짓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금방 달아올랐다.

“오빠~ 나...응?”

“뭘?”

“알면서...응?”

무척이나 예민한 선희의 성감(性感). 그녀는 정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이에 어느새 흥분의 절정을 치닫고 있었다. 조갯살을 빠져나온 애액이 그녀의 조개둔덕을 흠뻑 적시고 허벅지를 타고 내렸다. 흥분의 절정에 도달한 선희는, 고개를 숙인 채...정호의 왕침을 그녀의 입으로 거칠게 애무하기 시작했다. 쾌락의 절정에 오른 듯, 정호의 입에서 묘한 괴성이 터져 나왔다.

“아으으~ 흑!”

그녀의 입가로 정호의 왕침이 발사한 우유빛 애액이 흘러 내렸다.

“이거...돼?”

“응!”

선희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정호. 이젠 그가 선희에게 상을 줘야할 차례인가? 정호의 거대한 왕침이 그녀의 조갯살을 헤집고 부드럽게 찢어 들어갔다.

“푸욱~ 펍!”

“아흑! 여보~”

“좋아?”

“으응! 더 빨리~~으~~~익!”

“선희야! 근데 넌 다른 여자들 보다 엄청 많이 나오네?”

“아이! 몰라~”

“역시 선희 다운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선희 이름이 먼저 ‘先’ 자에 웃을 ‘喜’ 자니까...”

“.....???”

“먼저 웃는다는 거야. 우리 공주님 조개가~”

그제야 뜻을 알아차린 선희가 얼굴을 붉히면서 정호의 왕침을 살짝 꼬집었다.

“몰라~ 정호씨가 많이 나오게 했잖아...씨~”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우리 왕침도 공주님 땀에 자주 서잖아...”

“아이~ 재밌어. 그런데 정호라는 이름은 부르기 참 정다워...부담감이 없고”

“난 이 이름이 참 좋아. 우리 아버지가 어느 유명한 도인(道人)한테 부탁해서 지었다는데, ‘정(丁)’ 자는 원래 자원의 형상이 못을 본뜬 글자라서 원뜻은 ‘못’ 이고, ‘호(浩)’ 자는 호수라는 뜻이니까... ‘못으로 호수를 뚫는다?’ ㅋㅋ...의미심장하잖아? 뚫은 것도 아니고...안 뚫은 것도 아니고...뚫 것도 아닌데...안뚫 것도 아닌~”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름대로라면 나는 정치가가 되었어야 해. 정치가 바로...칼로 물 베기요...못으로 호수를 뚫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 오빠 너무 철학적이다. 왜 그런데?”

“정치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야. 정치는 그 사회에 산재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인데, 그 조정이란 것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는 거야. 하나의 정책으로 만족하는 이가 있는 반면 불만족인 이가 있고, 덕 보는 이와 손해 보는 이가 있는 것이 정치야. 그러니까 뚫었다 싶은데도 뚫리지 않는 게지”

“.....”

“그래서 공리주의자(功利主義者)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라야 한다고 했지.

‘다수가 좋으면 그만’ 이라는 게지”

“어차피 전체를 다 좋게는 못 할 거구...최대로 많은 사람이 만족하면 된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

“절대 다수가 만족하는데도?”

“소수의 강함이 다수를 위장할 때도 있고, 다수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니까”

“그렇네요”

“따라서, 참된 정치가요 지도자라면 때로는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옳은 것이라면 눈치 보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게야.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 또한 민주주의의 취약점이기도 하지”

“다수가 싫어하면 표를 잃으니까 다수가 원하면 나쁜 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맞나요?”

“그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할말은 하고 할일은 해내는, 그런 올곧은 같은 성품과 강력한 카리스마 리

더십을 지닌 지도자가 나와야 할 텐데 큰일이야. 둘러보면, 전부가 물에 물탄 듯...술에 술탄 듯한 기회주의자들만 보이니 말이야”

“너무 대쪽 같으면 표가 안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게지”

“오빠! 너무 어렵다”

“선희야! 여론을 존중한다는 것과 여론에 영합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거야”

“어떻게 달라요?”

“예를 들면, 노동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지. 노동자들은 수적으로 많으니까, 곧 표가 많으니까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까봐 정치집단은 될수록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지. 우리나라 정당은 우선 집권이나 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무조건적으로 노동자 편만 드는데, 문제가 많지. 표를 가진 노동자들의 주장도 옥석은 가려야 되는데 말이야. 특히, 야당들...YS, DJ, 노무현, 다들 그랬던 것 같아. 결국은 우리 실정엔 아직은 빠른...고임금시대로 접어들고 만 게지. 그것도 노조의 파워가 막강한 대기업 노동자를 위주의...이른바 귀족노동자들을 위한 고임금시대가 돼 버린 게지.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말이야. 노동의 빈부격차는 결국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현상을 대물림해주는 단초인데 말이지”

“영국이 그랬다가 혼난 적이 있잖아요”

“그랬었지. 중요한 건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대기업 위주라는 것이 더 큰 문제야”

“그래요. 노조에 끌려 다니다 보니 휴일은 늘어나고, 그렇다고 중소기업체의 노동자들은 휴일을 꼬박꼬박 챙겨 먹지도 못하는데, 대기업이 파업을 하면 대기업에 납품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중소기업과 종업원들만 골탕 먹고, 대기업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파업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도산하는데도 파업에만 열심이고...그런데 그들이 이런 것들을 알기는 알고 있을까요?”

“바로 봤어. 게다가 노동자들이 기업의 경영과 경제정책까지 간여하게 되고, 사보타지(Sabotage) 이상의 투쟁을 하고 있으니 더욱 문제인 게지. 무조건 밀어 붙이면 다된다는 발상...참으로 문제야”

“사보타지?”

“옛날에는 많이 익숙했던 말인데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 돼버렸지. 사보타지는 ‘일하기를 거부 한다’ 는 뜻인데, 노동쟁의의 대표적인 것이지. 그런데 요즘은 아예 노동의 거부 정도가 아니라, 쇠파이프를 들고 집무실을 부수며 폭군으로 변해가고 있으니 문제인 게지. 나도 옛날엔 머리띠를 두르고 민주화를 외친 적이 있지만, 이젠 머리띠만 보면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먼저 들고 말야”

“제가 볼 땐 단순한 수적 과시에 의한 요구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학생운동도 그렇고...특히 노동운동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보면 개인적인 출세욕 또는 자기 과시욕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음...다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선희의 말처럼 그들 중엔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적인 출세와 축재에 힘쓰는 위선자들도 상당하지. 또한 몇몇 이들은 북한 공작원의 선동에 넘어가 자신도 모르게 간첩으로 변신돼 버리기도 하지”

“정말 큰일이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어. 노동자들의 표를 의식해 눈치만 살피며 정면 돌파를 하지 않고 애매한 말로만 임기응변을 하다 보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점점 궁지에 몰리고 노동자들은 밀면 밀린다고 생각하니 점점 강경일변도로 나가는 게지”

“정말 정치를 해도 너무 암체 같이 하는 것 같네요”

“그래, 아무튼 이 나라의 장래가 참으로 걱정이야”

아니나 다를까? 설(設)이 길어지자 선희는 정호의 왕침에 슬며시 손을 갖다 댄다. 이야기에 열중해서인지 정호의 왕침은 금새 쪼그라들어 있었다.

“오빠...나라는 나라고...거시기 다 죽었잖아”

선희는 정호의 바지를 끌어내리고 왕침에 얼굴을 묻었다. 위 아래로 움직이는 선희의 머리 율동에 따라 서서히 일어서는 정호의 왕침. 정호는 선희를 번쩍 안아 무릎위에 앉히고 어느새 그녀의 애액으로 흥건해진 조개둔덕 사이를 거침없이 찔러들어 갔다. 이어서 선희의 자지러질 듯한 교성이 이어진다.

“아~으...오빠...흑!”  
“선희야 괜찮았어?”  
“응, 오빠”

한바탕 격렬한 정사 뒤에 오는 지독한 허전함인가?! 선희는 이 교수의 가슴에 얼굴을 기댄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본다.

## 제7장 - 봉건제도에서 배워야 할 것

“선희야!”  
“응~ 오빠!”  
“뭘 그리 골똘히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냥 이렇게 오빠랑 같이 있는 게 좋아서...그냥~”

선희는 지금 이 순간이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 한때는 선희에게 있어 이정호 교수의 존재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하늘이었다. 나 홀로 가슴 앓이하며 지낸 수많은 나날들, 지난 온갖 기억들이 영화필름 마냥 스쳐 지나간다.

“오빠! 아까 하던 이야기 계속해 줘...응?”  
“흠...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정부가 표를 의식해 노동자들에게 자꾸 밀리면 곤란하다고...그기까지 얘기했죠?”  
“응 그랬던 것 같군. 그런 것들을 두고 우리 공주님이 이 나라 정치인들은 정치를 너무 암체같이 한다고 했었지?”  
“으응”  
“선희야 가령 ‘음력과세’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정치의 암체 같은 일면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거야”  
“.....???”  
“우리는 ‘음력과세를 해야 하느냐?’ ‘양력과세를 해야 하느냐?’ 란 문제를 놓고 지난 100여 년 간을 왈가불가 해 왔었거든?”

“오빠, 그렇게나 길어요?”

“그래, 일제시대부터니까, 그땐 양력을 반대한 것이 그런대로 나름의 명분이 있었고, 항일투쟁의 연장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으나, 해방 이후 독립이 되면서부터는 그럴 명분이 없어진 게지. 그래서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 시절에는 양력과세를 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났었지. 물론, 이승만 정권의 친미적 성향에 따른 서구문화 유입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구, 아무튼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음력을 하루아침에 없앤다는 것은 유교적 전통을 고집하던 이들에게만 그만한 어려운 문제였었고, 그래서 나온 편법이 음력 초하루를 권농일(勸農日)로 하자는 것이었지”

“아하~ 그런 것들도 있었군요”

“전두환의 5공 정권 때 까지만 하더라도 양력과세가 제법 정착되어 가는 형국이었고, 실제로 양력과세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었지. 그런데, 군사정권을 싫어하는 여론에 몰린 노태우의 6공 정권이 하등의 토론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하나로 이를 간단히 인정해 버린 거야. 대 국민 선심용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정치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해야 하는 거군요?”

“그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점이야.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리면, 정치는 그 나라의 총기획적(總企劃的) 총건축술적(總建築術的)인 활동이니까, 정치가는 자고로 사회의 모든 면을 깊게 살펴봐야 한다구. 얼마 전에 내가 미국에 갔을 때 서점에 들러 정치·사회학 코너로 가봤더니 요즘 늘어나고 있는 미혼모 문제와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양육문제, 그리고 마약문제에 관한 책들이 상당히 많더라구.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그런 문제가 사회사업가나 교육자들의 관심사지 내가 어떻게 그런 것 까지 생각할 수 있겠느냐?’ 고 반문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야. 자고로 정치가가 국민의 존경과 신망을 받으려면 이런 것들 까지도 생각해야 한다는 거야. 경주시를 이렇게 내 버려 놓은 것도, 따

지고 보면 정치가들의 좁은 시야가 주된 원인이야. ‘신년을 언제 맞느냐’ 는 것은 자손만대로 이어질 문제며 생활문화에 관한 문제인데, 어떻게 대통령 한사람의 결단으로 그렇게 쉽게 뒤집어 버릴 수가 있느냐는 거지. 전 세계가 양력으로 사는데 음력을 쓰라는 것은 최신 난방법을 버리고 장작 때는 온돌방을 만들자는 건축법이지”

“으음~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군요”

선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오빠! 경주의 유적만 봐도 신라가 정말 대단하긴 대단했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럼 대단했었지. 아름답고...섬세하고...무척 과학적이었지”

“과학적이라뇨?”

“가령, 석굴암을 보더라도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현대과학으로도 풀지 못할 수수께끼가 있어서 이집트의 ‘피라밋’ 과 더불어 세계적 불가사의 중의 하나지”

“어떤 점이 불가사의인데요?”

“원래 석굴암에는 천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이끼가 끼지 않을 정도로 통풍구조가 되어 있었어. 그런데, 일제시대에 보수공사를 한답시고 잘못 건드려서 습기가 차기 시작한 건데, 현대과학으로도 아직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에어컨 장치를 해놓고 있는데, 석굴암의 황홀한 아침경(朝景)이 사라져 버린 거지”

“에어컨 장치를 했는데 아침경이 왜 사라져요?”

“석굴암의 아침경은 반도(半島)팔경(八景) 중의 하나인데...왜 그런 줄 알아?”

“아이 교수님! 제가 그것도 모를까봐? 그건 동해의 일출을 토함산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장관이라서 그런 거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동해의 일출이 석굴암의 여래상에 비치면 여래상의 화강암이 피부색으로 변해서 마치 부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이 보여. 그래서 ‘못 보면 한이 되고...’ 라는 노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에어컨을 틀기위해 집을 짓고 앞에 문을 달아 놓았기 때문에 그 아침경을 볼 수 없게 되고 말았지 뭐야”

“아~ 그렇군요. 교수님 얘기를 듣고 보니 신라는 삼국통일을 한 강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대단한 나라였군요”

“그렇지”

이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듯하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다.

“선희야! 그런데 말이야...”

“예”

“오늘날 우리가 강대국이 되지 못하고 근대화에도 200여년이나 늦은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따지고 보면 그렇게 훌륭했던 신라의 통일 때문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역사라는 건데...정말 이상한 얘기 아니야?”

“정말 이상하네요. 그렇게 훌륭한 신라의 통일 때문에 우리가 강대국이 못되었다니...그 이유를 알고 싶은 디?”

“그냥 그런 사관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 뉘. 그걸 설명하자면 아주 긴 이야기가 돼”

“아잉~ 그래도 알고 싶어! 빨리 설명해 줘요”

선희는 정호의 왕침을 살며시 꼬집으며 특유의 아양을 띤다.

“지루할 켜데...괜찮아?”

“괜찮아요. 난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요”

선희는 정호의 왕침을 잡고 있던 손에 더욱 힘을 주며 보챈다.

“아휴~! 우리 공주님이 이렇게 닦달하시니 할 수 없군. 그럼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할게”

“아이~ 좋아라”

정호는 살며시 선희의 손을 왕침에서 떼 내고 정색한 채, 제법 강요조로 말을 이어 가기 시작했다.

“ ‘봉건제도를 하지 않았던 나라가 근대화에 늦었다’ 는 것을 처음으로 주장한 학자는 바로 공산주의 이론으로 유명한 독일의 ‘마르크스’ 였어. 일본은 봉건제도를 했기 때문에 일본 학자들은 ‘마르크스’ 의 이론을 추종했었지만, 우리나라 학자들은 달랐어. 이 이론을 무시했지. 특히, 봉건제도를 하지 않게 된 것이 신라의 삼국통일 탓이기 때문에, 만약 ‘마르크스’ 의 이론을 수용하면... ‘신라니’ ‘화랑도니’ 하는 것들이 평가절하 될 수밖에 없었음으로 따를 수 없었던 거야”

“그게...그렇게 되는 건가?”

“게다가 1902년 당시 일본 경제학의 중심 학자였던 ‘후쿠파 도꾸조(福田徳三)’ 란 자가, 자신의 저서에서 ‘조선은 봉건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대화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쓴 다음부터, 조선에서도 봉건제도를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식민지사관(植民地史觀)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더 더욱 봉건제도를 나쁘게 말하게 되었고, 이에 신라의 삼국통일을 무조건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했지”

“그런데 오빠! 저는 봉건제도가 어째서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건지 도대체 납득이 안가네요? 알 수 없네요?”

“선희 입장에선 그럴 만도 하지. 봉건제도의 실체와 장점을 잘 모르니까”

“실체? 장점? 전 봉건제도는 무조건 나쁜 것으로 아는데요?”

“선희야! 절대 그렇지 않아. 봉건제도라는 것은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못했던 7세기경부터 17세기경까지 약 천년동안 서구에 있었던 통치구조인데, 이것을 잘 분석해보면 알 수 있단 말이지”

“어떤 통치구조였는데요?”

“그것은 전 국토를 군주가 직접 다스리지 않고 넓은 국토를 작게 분할하여 이를 영주들에게 나누어 주어 세습적으로 소유하며 직접 다스리게 허락해 줌과 동시에, 그 대가로 영주들은 군주에게 충성을 바치게 했던 통치형태였지. 즉, 군주는 각 지방의 영주들 위에 군림했을 뿐, 직접 백성을 다스리지는 않았다는 거야”

“그럼, 영주들이 군주에게 충성한 것은 뭐라는 거죠?”

“그것은, 세금을 잘 내고...군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군대를 보내거나...같이 참전하는 것 등이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네요?”

“그렇지, 그렇지 않았지.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했기 때문에 지방을 다스리던 관리들은 군주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역할에 그쳤고, 따라서 그 지방의 관리와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국왕에게 있었고, 지방관리는 국왕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며 다스리다가 파직 등으로 물러나면 그만이었든 거야”

“그러니까 봉건제도하에서는 영주가 파면되지도 않고 자자손손 그 영토를 소유했으니깐, 그런...봉건제도에 좋은 점이 있었기에 근대화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거네요?”

“그래, 어떤 제도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봉건제도에는 그 초기에 장점이 더 많았다는 거야. 첫째로,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통치하기 좋은 좁은 영토를 영주가 직접 다스렸으니깐 정치가 잘되었다는 거야”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가 가까웠다는 거군요”

“그렇지. 한마디로 ‘내 것’ 이니까 잘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이 정치를 잘하게 한 거야. 이것은 인지상정인 게야. 봉건제도하에서 상공업이 일찍 발달한 것도 다 이 때문이야. 영주들의 생각은, 농민은 물론이고, 상인(商人)과 공인(工人)도 잘 키워 놓아야 자신에게 이익이 되었거든”

“과연 그럴까?”

“상인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귀한 물건을 구해왔고, 공인은 좋은 농기구와 무기를 만들어 주었으니깐 영주가 아끼고 키울 수밖에...”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서구에서 상공업이 일찍 발달되고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약한 것은 다 이런 통치구조의 영향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선희의 말투가 ‘오빠’ 에서 ‘교수님’ 으로 바뀐다. 헐~

“바로 그거야”

“중앙집권제에서는 어땠어요?”

“중앙집권제에서의 관료들은 지방을 잘 키워 놔 봤자 파직돼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지방호족들과 싸고서 백성을 착취해 자기 배를 채우는데 더 신경을 썼지”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드네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려시대에 암행어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관리들의 비리를 적발해 즉결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이조시대에 와서 그 제도를 더욱 강화했으나 결국 지방토호세력과 유착한 지방관리들의 버릇을 완전히 뿌리 뽑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지”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 게다가 중앙에서는 관료들이 인(人)의 장막을 쳐서 군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급급했는데, 이때 상공계급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해 국왕에게 접근하자 이도 못 마땅하게 여겼었지”

“결국 그들이 상공인들의 성장을 견제 했겠군요”

“견제해도 아주~철저히 견제했지. 대장장이나 백정 같은 이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아예 성안에서 살지도 못하게 했으니까”

“정말 철저 했군요”

“일례로, 경북의 고령이란 곳에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용광로가 발굴되기도 했었는데, 이는 관리들이 원자재의 공급을 의도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봉건제도하에서는 중앙집권제와는 달리, 각 지방이 철저한 지방자치를 했다는 건가요?”

“그렇지, 봉건제도하에서는 각 지방이 그 지방의 특색에 맞는 자치를 할 수 있었지. 그래서 학자들은 봉건제도의 시대를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기본적 훈련을 하고, 근대화를 위한 기반을 닦던 시대’ 라고 하는 거야”

“호호~ 소위 말하는 풀뿌리민주주의라는 것이군요. 그쵸?”

“그렇지. 아유~ 귀여운 나의 공주님!”

어느새 정호의 부드러운 손길은 선희의 치마를 들치고 조개둔덕을 지나 그녀의 뺨엔 엉덩이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러나 선희는 강의에 열중해 선지 평소와는 달리 정호의 뜨거운 애무에도 아랑 곳 하지 않고 계속 질문을 이어 나갔다.

“아이~ 교수님! 나 흥분하면 교수님 강의도 못 들잖아. 손 좀 치우세요. 네?”

ㅋㅋ 참 세상 오래 살고 볼일이다. 선희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다니. 정호는 얼른 선희의 엉덩이에서 손을 빼고 정색한다.

“으응, 알았어. 계속 물어 보세요 공주님!”

“교수님! 저가 궁금한 건, 그런 봉건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없었냐는 거예요”

“응, 말했듯이 봉건제도는 서구에 있었는데, 동양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서구의 봉건제도와 제일 유사한 봉건제도를 했었지”

“그럼 중국은요?”

“중국에도 봉건제도가 있긴 있었지만 봉토가 너무 넓었고, 또 영주의 대부분이 황제의 자식이거나 친인척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중앙집권제였지. 당시 중국의 황제는 수많은 후궁을 두고서, 수십명에서...많게는 수백명씩 자식을 낳았는데, 이들이 중앙에서 서로 세력다툼을 하자 이들에게 땅을 주어 지방으로 보내버린 거야. 도로 뺏어 버리기도 하구, 그러니까 ‘영주(領主)니, 봉토(封土)니’ 하는 말은 있었으나 빛 좋은 개살구였을 뿐, 사실은 중앙집권제였던 게지”

“그런데 교수님, 우리가 봉건제도를 하지 않게 된 것이 통일신라 때문이라는 건 또 무슨 말이죠?”

“크게 보면,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기 전에는 고구려-백제-신라로 나누어져 사실상의 봉건제도에 가까운 통치를 했지. 그런데 통일을 함으로써 이것이 무너진 거야. 만약에,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지 않고 근대까지 왔거나, 또는 통일을 했더라도 이를 신라 황제의 직접 통치하에 두지 않고, 신라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는 왕국으로 인정해 주었다면 사정은 달랐겠지. 그러나 신라는 이를 싸그리 없애 버렸지. 결국 신라 황제의

통치권은 이들 국가에 완전히 미치지 어려워졌고, 자연히 발전에 차질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랬군요. 우리나라 사람은 옛날부터 싹스리를 좋아했나 봐. ㅋㅋ”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던 때가 7세기경이었고, 그때 서구에선 광대한 중앙집권국인 로마가 망하고 봉건제도에 의한 분할이 시작될 무렵인데, 우리는 역으로 분할을 중지하고 봉합을 해 버린 거지”

“한마디로 역사의 역행이군요”

“그랬지. 뿐만 아니라 신라의 통일은 말만 통일이었지 실제로는 ‘고구려 죽이기’에 불과했던 거야. 왜냐하면, 신라는 고구려의 영토를 남쪽 끝 일부분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북방의 대부분을 당나라에 쥐 버렸거든. 전쟁 참여의 대가로 말이야. 당시 고구려는 만주의 대부분과 요동반도를 비롯한 한반도의 반을 차지한 강대국이었지. 강대한 당나라조차 고구려만은 정복하지 못하고 골치를 앓고 있다가, 고구려 배후에 있던 신라를 부추겨, ‘나-당 연합’으로 고구려를 멸망시킨데 이어 백제마저 무너뜨린 뒤, 백제는 신라에 주고 고구려의 반 이상은 자신들이 차지한 게지”

“요동반도와 만주가 예전엔 우리 땅이었다는 말은 요즘도 자주 나오고 있던데요?”

“우리들의 옛 조상이던 동이족이 다스리던 영토였지. 중국은 한국이 통일되고 국력이 강해져 만주와 요동반도를 반환하라고 할까봐 지레 겁을 먹고 ‘고구려가 중국의 일부였다’고 역사를 날조해가며 선수를 치고 있는 게지”

“그런 것 같아요”

“일지기, 한족(漢族)은 문화가 발달한 강한 나라가 되어 주위의 많은 민족이 다투어 한족이 되기를 원했던 거야. 지금의 중국은 54개의 소수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지만, 모두 정복으로 된 것이 아니고 거의가 자발적으로 복속된 민족인 거야. 그래서 중국은 스스로를 일컬어 세계의 중심에 있는 꽃이라고 자부하고 있지”

“아하! 그래서...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가운데 중(中)자와 꽃 화(華)자를 쓴 것이군요”

“그래, 그런데 유독 고구려만은 한족이 되기를 거부했으니 얼마나 골치가 아팠겠어? 그래서 신라를 부추겨 고구려의 배후를 치게 한 거야”

“그랬군요”

“1956년, 당시 우리나라의 중심적역사학자였던 이병도(李丙燾)가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적으로 보고, ‘약소민족으로서 우리의 운명은 신라의 삼국통일로 인해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요지의 글을 썼는데, 학계로부터 호된 비난을 받았지. 지금도 일부 소장 학자들 사이에는 이병도 교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지”

“다들 실속 없는 민족주의에 세뇌된 거겠지요”

“나도 언젠가 ‘이제부터는 우리도 봉건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가르쳐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가 혼쭐난 적이 있었지”

“지방자치 같은 것을 가르치자는...?”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 보다도 봉건제도를 하게 한 바탕에 있는 근본 사고방식을 배워야겠지”

“.....??? 좀 더 구체적으로...”

“첫째, 소유와 지배를 분리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야. 봉건제도하에서의 소유와 지배. 우리는, 지배하기 위해서는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야. 영주에게 쥐버리고도 군주의 지배 하에 두었으니까”

“음~ 뭘 말인지 알겠어요”

“요즘의 재벌들을 봐. 그룹 계열사들을 모두 창업주인 회장님과 그 직계존비속들이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지. 그룹 계열사는 그룹창업과 발전의 공신들에게 쥐버리고, 창업주는 그룹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야. 이것이 이른바 선진경제로 가는 ‘함께 사는 경영 네트워크’ 이야. 계열사들을 공신들에게 쥐버리면 소위 ‘문어발’이라는 비난은 받을 필요가 없고, 계열사 사장들은 ‘내 것’ 이니까...더욱 열심히 회사를 경영할 텐데 말이야. 월급쟁이 사장과 내 것인 사장은 경영에 임하는 마음가짐부터가 다른 거야”

“ ‘내 것을 다스리는 영주’ 와 ‘왕의 것을 다스리는 관리’ 가 달랐듯이?”

“그렇지. 선진국의 재벌들은 계열사의 주를 10%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배하고 있던 말이야. 계열사가 모두 회장님 것이 아니라구. 그래도 그룹 소리를 듣고 지배도 잘되고 있지”

“소유와 지배의 분리라? 교수님! 내 것이 아닌데 옳게 지배할 수 있을까요? ㅋㅋ”

선희의 질문이 무얼 뜻하는지 알면서도, 정호는 태연히 그녀의 말을 받아 넘긴다.

“할 수 있을 뿐이겠어? 오히려 더 원만한 지배가 될 수 있지”

“더 원만한 지배?”

“그래, 가령 말이야...좀 이상한 비유겠지만, 아내와 애인이라는 것 있잖아. 아내는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렇게나 대하게 되고, 애인은 독립된 개체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고 신경을 쓰게 된단 말이야. 영주들은 군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하가 아니고 나름대로 영토와 백성을 가진 독립된 개체(個體)였거든. 군주가 함부로 약속을 깨거나 군주 멋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지. 그래서 서로 규칙을 정해 놓고 그 규칙에 따라서 정치를 했던 거야. 민주주의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 대통령 한사람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법과 규칙에 따라서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는...이른바 법치(法治)라는 거야”

“법치라...?”

“우리는 법치라고 하면 국민을 지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법치의 본뜻은 통치권자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어”

“그런가...?”

“로마에서 일찍이 법이 발달했고, 로마가 대륙법의 발상지가 된 것도 그 때문인 거야. 당시, 로마는 공화정(共和政)을 하면서 황제가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원로원-평민회-호민관’ 같은 권력기관과의 관계를 법으로 꼼꼼하게 정해 놓았던 거야. 이를 잘 지킬 때는 로마는 발전을 계속했는데, 결국엔 ‘네로 황제’ 와 같은 폭군이 나타나 이를 어기면서부터 기울기 시작해, 급기야는 동서(東西)로마로 갈라지고 망해 버린 거야”

“저가 보기엔, 재벌의 내부관계도 법치주의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그룹의 총수가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이야. 그룹 산하의 업체들이 애인 같은 독립된 개체가 아니고, 자기 마누라나 소실(小室)같은 관계이기 때문이야. 마누라는 내 것이니까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는 식으로 계열사의 돈을 총수가 마음대로 쓰잖아”

“흐흐~ 그래도 난 정호씨의 소유가 됐으면 좋겠다. 아무렇게나 대 줘도 좋으니까”

정호는 선희와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고 한 말이었는데, 워낙 이 방면엔 센스가 잘 돌아가는 선희는 이를 놓치지 않았다. 선희의 변덕, 이젠 또다시...교수님에서 정호씨...그리고...숫제 반말이다. 하지만, 정호는 그런 선희의 모습이 싫지 않았고 오히려 귀엽기까지 했다.

“우리 사이는 ‘소유다’ ‘아니다’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이 바보야”

“그럼 무엇이 문제야?”

정호는 ‘소유할까? 말까? 그게 문제다. 내가 내 욕심만 차리고 소유해 버려도 되는 건지 그게 문제다’ 고 말하고 싶었으나, 차마 그렇게 말할 순 없었다.

“이 바보야! 스승과 제자 사이에 왜 소유가 문제가 되니?”

“그래도...”

선희 역시 그 이치를 모르진 않았지만 은근히 강짜 아닌 강짜를 부린다. 정신없이 이야기 하는 사이에 어느 듯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다. 정호는 이제 일어서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젠 돌아갈 시간이군”

“아이~ 싫어! 난 자구 갈래”

“또 자자고? 그럼 안 되지. 기다리는 부모님 생각도 해야 하구...우리가 오늘만 만나고 말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문제를 일으키지는 말아야지...안 그래? 예쁜 공주님”

“또 설교. 설교는 싫단 말이야! 누가 교수님 아니랄까봐?”

쾌락의 여운이 남아서인지...선희는 못내 아쉬운 표정이 역력하다. 정호는 선희의 마음을 읽고 있더라도 한 듯, 그녀의 조개둔덕에 얼굴을 묻

었다.

“흑! 아~ 좋아”

정호의 혀가 마치 땅속을 파고드는 뱀처럼 그녀의 조갯살을 헤치며 크리스톨을 자극하자 선희는 흥분의 절정에 달했다.

“으~으~음!”

선희의 입에서 알 수 없는 묘한 신음이 연거푸 흘러나온다. 그녀의 조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웅달샘이던가? 먹고 또 먹어도...그녀의 웅달 샘에서는 침 없이 윤활유가 흘러 나왔다.

“됐어?”

“으응!”

그녀는 정호의 애프터서비스에 만족스러운 듯 배시시 미소를 짓는다.

“선희야~”

“응!”

“그리슨인들은 보다 큰 쾌락을 위해서는 작은 쾌락을 희생시킬 줄 알았다고 했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 나도 선희랑 같이 하룻밤 더 자고 가고 싶은 마음은 꿀떡같지만...보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해...알았지?”

“ㅋㅋ 말 되네?”

선희는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않았다. 이런 이성과 자제력이 쓰러져가는 선희를 이만큼이나마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희는 자세를 바로 하며 물었다.

“소유와 지배를 분리한다는 것 외에 또 뭘 배워야 하죠?”

“우리 가면서 이야기 할까? 막차가 몇 시 인지 알아놓을 걸 그랬어”

정호는 선희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면서 정호의 왕침이 그녀의 조개둔덕을 가볍게 터치한다. 정호는 성난 왕침을 애써 진정시켰다.

“남산의 석양노을을 보니 감회가 새롭구먼”

“정말 또 다른 아름다움이네요”

정호는 경주에서 한일은행에 다닐 때 만난 추억속의 그 여인을 생각하며 뺨은 말이었지만, 선희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정호는 걸으면서 또다시 강의를 이어갔다.

“그 다음은,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다’ 즉, ‘기브 앤드 테이크’ 라는 것이지. 충성(忠誠)을 영어로는 파이델리티(Fidelity)라고 하는데, 이는 ‘성실(誠實)’ 이라는 뜻이야. 그것도 그냥 성실이 아니고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는 성실’ 이지. 일방적인 복종과 충성이 아닌 말이야”

“.....”

“즉, ‘나는 너에게 땅을 주고, 지도하고, 보호해 주겠으니, 너는 내게 충성을 바쳐라’ 는 쌍무적인 것이지. 영주와 백성의 관계도 마찬가지로야. ‘나는 너희를 보호해 주고, 너희는 나에게 충성을 바쳐라’ 는 관계지”

“그래요 오빠. 상호주의...우리도 정말 배워야 할 점이죠”

“우리가 세금이란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것에 비해 서구인들은 그렇지 않거든? 그것은 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이야. 백성은 영주의 보호를 받으며 영주의 땅에 살고 있으니 ‘당연하다’ 는 생각으로 세금을 바쳤고, 영주 역시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상납했었지”

“아하! 그래서 일방적이 아니고 쌍무적이었다는 것이군요”

“우리의 충효사상(忠孝思想)은 너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데 문제가 있어. ‘부모는 너를 낳고 키워줬으니까’ 라지만, ‘누가 낳아 달랬나? 또, 낳았으면 당연히 키워줘야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잠재해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국가에 충성을 바치라’ 고 하지만 ‘국가가 우리에게 해 준 게 뭐있는데?’ 라는 의구심이 항상 있는 거야”

“맞아요. 지배와 복종이라는 대립관계를 연상해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부가 보호해 주지 않아도 좋으니...제발 괴롭히지나 말아줬음 좋겠다는 생각뿐이야. 그러나 서구인들의 생각은 달라. 국가가 항상 무엇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정말 그럴까요?”

“케네디가 그의 취임연설에서 ‘정부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정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자’ 고 해서 국민의 열광적인 박수를 받았는데...그걸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국가에 충성하자는 뜻 같기도 한데...”

“그 말에 국민이 열광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도 그만큼 정부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야. 달리 말해서, 이제는 우리도 정부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도 좋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거야”

“그렇군요”

“만약에, 국민을 위해서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소리를 했다면, 아마도 국민은 ‘또 국민 길들이기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지. 박수를 치더라도, 그런 박수를 보고 소위 ‘관제(官製)박수’ 라고 하는 거야”

“노무현 정부는 규제를 풀겠다고 야단이더니...”

“그게 될 턱이 있나. 규제가 있어야 봐주고 돈을 먹을 테니까 공무원들이 풀 생각을 하지 않아. 또, 국회의원이란 닭대가리들은 정치싸움에 날밤 까는 줄 모르고 입법활동은 뒷전이니, 더 더욱 풀리지 않을 수밖에. 그래서 정부가 절름발이지”

“ㅋㅋ 절름발이 정부? 왜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새롭게 규제해야 될 분야가 생겼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와 착취를 위한 규제만 있으니 그렇지”

“그런 것 같아요. 정작 부동산 폭등에 배터진 이들은 가진 자들인데, 그들이 챙길 것 다 챙기고 떠난 뒤에, 가로 늦게 ‘이자를 올리네 대출 규제를 하네’ 하면서 막차 탄 서민들만 등골 빠지게 하는 것을 보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규제는 없고 쓸데없는 규제만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공주님은 이해가 빠르군”

“교수님! 그런데 있어야 할 규제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그건...좀...말이 길어지니 다음에 하기로 하지”

“그래요 그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또 다시 못 다한 원초적 본능이 이 교수와 선희를 그냥 놔두지 않았다.

‘꼴리면 너희들이 꼴리지 우리가 꼴려?’

길거리에서의 뜨거운 성애가 이어졌다. 선희의 질문이 이어진다.

“봉건제도하에서는 착취가 심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흠~ 어떻게 답하면 우리 공주님이 쉽게 이해하실까? 고바이다 부인(夫人)얘기를 해주면 되겠구먼”

“고바이다 부인?”

“11세기에 영국의 ‘코벤트리’ 라는 곳에 ‘레오프릭’ 이라는 영주가 있었는데, 지독한 폭군이었어. 그러나 그의 부인인 고다이바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와서 세금을 감면해 주라고 남편에게 간청한 거야. 거둬지는 간청에 짜증이 난 레오프릭은 ‘당신이 그렇게 백성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그 아름다운 육체를 주민들에게 보여 주민들을 즐겁게 해 주구려’ 한 게야. 레오프릭은 설마 자신의 부인이 그렇게 하겠냐? 는 생각으로 한 말이었는데, 고다이바 부인은 정말로 그렇게 하고 말았지”

“어머나! 어떻게 했을까?”

“미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나체로 말을 타고 시내를 한바퀴 돈 거야. 그 후로 레오프릭은 크게 반성하여 선정을 베푼 결과, 코벤트리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고 17세기엔 영국의 4대공업지역 중 하나가 됐던 게지. 제2차세계대전 중에 런던보다도 더 많은 공습을 받은 군수공업지역이 될 정도로 말이야. 지금 코벤트리공원에는 나체로 말을 타고 있는 고다이바 부인의 동상이 서 있고, 그녀를 추모하는 축제도 지내고 있지”

“알겠어요. 봉건제도 하에서는 나쁜 영주도 있었지만 좋은 영주가 중앙집권제보다 많이 있었다는 것이군요. 다음은요?”

## 제8장 - 리더십과 멤버십

“다음은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는 거지”

“리더십은 많이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지만 틀리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문제지”

“이상하다. 왜지라?”

“우리는 리더를 지도자(指導者)라고 번역해 쓰고 있는데, 보통 ‘아는 것이 많고, 힘이 있고, 앞장서서 집단을 이끌어 가는 사람’ 으로 생각하고 있지”

“바로 그런 것이 ‘리더’ 아닌가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능력’ 이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은 아니야”

“자격과 능력이 다르다?”

“당연하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 지도자는 구성원...즉...멤버 중의 한사람이라야 하기에, ‘리더십’ 과 ‘멤버십’ 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같은 것의 또 다른 면이라는 게지”

“손등과 손바닥 같은?”

“그렇지. 군주와 영주는 서로 신분은 달랐지만, 다 같은 멤버요, 동지요, 전우라는 생각이 바탕에 있었어. 로마 멸망 후에, 같이 싸워서 얻은 땅을 ‘전리품은 나누어 가진다’ 는 생각으로 분할해 받은 것이 봉토(封土)였고, 그에 따른 신분이 영주였던 거야. 그러니까 군주는 영주들의 ‘리더’ 이지 속된 말로 ‘왕초’ 는 아니라는 게지. 백성과 영주의 관계도, 서로의 신분은 달랐지만 ‘우리’ 라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기에, 리더와 멤버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게 되고 이해관계가 같았던 거야”

“그렇군요”

“가령, 공장에서 공원과 같이 작업복을 입고 장갑을 끼고 일을 하면 리더십이 있는 사장이라고 하고, 넥타이를 매고 사장실에 앉아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

“왜죠? 공원과 같이 일해야 리더십 있는 사장이 아닌가요?”

“사장이 아무리 현장에서 종업원과 같이 일을 해도, 종업원을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리더일 수 없지. 비록, 사장실에 편히 앉아 있더라도 종업원들과 더불어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리더인 거야.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장일수록 리더십이 있는 척 하는 위선자가 많은데...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지”

“흠...그런가?”

“대학에서도 ‘학생의 지도자인 교수가 저래서야?’ 라는 사람이 많은데, 틀린 소리야”

“왜요?”

“교수는 학생의 사표(師表)이지 지도자가 아니야. 선히야! 교수는 학생 중의 한사람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리더는 학생회장이거나

과대표지 교수가 아닌 게야. 만일, 교수가 교실청소를 학생과 같이 하더라도, 그것은 부지런함의 본보기로 하는 것이지 멤버라서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학생회장이나 과대표는 멤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해야 하는 거야. 학생과 교수 사이는 학문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해관계는 다른 게야. 교수는 조금 가르치고 월급을 많이 받고 싶은 쪽이고, 학생은 많이 배우고 적은 등록금을 내고 싶은 쪽이지”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 ‘학생의 사표인 교수가 저래서 돼나?’ 라고 해야지”

“훌륭한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면 그냥 지도자라고 해버리는데, 꼭 그렇지는 안군요”

“그렇지”

“알겠어요. 그럼 서구에서는 봉건제도를 하면서 벌써 ‘리더’ 란 개념이 형성됐단 말이죠?”

“아니야. 리더십은 그 이전인 그리스시대에 이미 생겼어.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발달된 바탕엔 리더십이 있었다구. 그런데 우리나라엔 아직도 참된 리더가 없잖아”

“없다구여? 정치가들...”

“정치가들? 그들은 선거 때는 국민 중의 한사람임을 강조하지만, 일단 권좌에 오르면 특권익에 사로잡혀 국민 중의 한사람임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지. 그들에겐 그들의 사리사욕과 당리당략만 있을 뿐, 진정 국민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애국이다’ ‘민주화다’ 라는 공동의 목표는 있겠지만, 이해관계는 완전히 상반된단 말이야”

“하지만 교수님! 이해관계의 완전한 일치 있을 수 있을까요?”

“선희야! 내가 말하는 이해관계의 일치란, 완전한 일치가 아니고 항상 조정될 수 있는 범위의 일치를 말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지도자와 국민의 이해관계는 그 범위를 너무 벗어나고 있다는 거지. 물과 기름 같이...마치 외국인에게 우리의 정치를 맡겨놓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멤버십을 느낄 수 없어”

“그런가요?”

“뿐만 아니야. 대개의 기업가들도 소비자 중의 한사람이요, 사원 중의 한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어. 사원의 복지보다, 소비자에게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생각 보다, 자신들의 자손에게 ‘어떻게 하면 축적한 부를 대물림 해 줄까?’ 잔머리 굴리기에 바쁘지. 자기들은 외제를 쓰면서도 국민에게 국산품 애용을 강요하구...” “그러니까...정계, 기업계 할 것 없이 리더가 없다는 말이에요?”

“학계에는 지도자가 있는 줄 알아? 천만에! 입으로는 맨 날 우리의 문화가 최고요, 자기네 학교가 제일이라고 떠벌리면서도, 정작 자기네들 자식은 모두 외국에 유학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의 이사장, 총장, 학장이란 사람들이야”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어째 입맛이 씹쓸하네요”

“대한민국의 현주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고 했는데, 모두가 ‘될 때로 되라’ 는 식의 어지러운 사회지. 하기가, 깨끗한 사람이란 더러워질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정말로 깨끗해서 깨끗한 것은 아니야. 나부터도 더러워질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잡지 않았던 것이 후회되기도 하거든? 앞으로 내가 정말로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또, 더러워질 기회가 오면 아마 잡을지도 몰라”

이 교수는 ‘기회가 오니까 이렇게 선희와 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했으나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진 못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상한 것이 있어라”

“뭔데?”

“우리나라에는 봉건제도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모두들 봉건주의 잔재가 있느니, 봉건적이니 하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좋은 질문이야. 봉건 ‘제도(制度)’ 와 봉건 ‘주의(主義)’ 는 다른 말인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선희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거야”

“봉건-- ‘제도’ 와 ‘주의’ ? 그게 다른가요?”

“물론 다르지. 예를 들어, 봉건 후기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 면이 나타났는데, 신분의 골이 너무 깊어져 백성을 천시하는 일이 많았지. 또, 지역적 폐쇄성이 심해져 지역간 교류도 어려워졌고, 교권(敎權)이 너무 강해져서 정치뿐 아니라 문화적인 것 까지도 일일이 교회가 간섭하며, 성경에 쓰인 것만이 진리라고 강요했지. 그래서 서구의 중세기를 ‘문화의 빛이 없는 암흑기’ 라고 부르기도 해. 이러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일컬어 봉건주의라고 하는 거야. 이러한 봉건주의는 봉건제도가 없던 국가에도 있었고, 또 봉건제도가 무너진 다음에도 봉건주의 잔재는 오래도록 남아 있었지. 특히 후진국일수록. 우리나라에도 봉건제도는 없었지만 반상(班常-양반과 쌍놈)의 차별이 심했고, 다른지방 사람들

을 팔시했고, 유교가 아닌 것을 배척하는 사고방식과 생활양식 등은 있었으니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주의’ 라고 할 때와 ‘제도’ 라고 할 때가 크게 다르네요”  
“판연하게 다르지”

강의 끝? 참으로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길옆 덩불 속으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선희는 정호의 바지를 마구 벗겨 내렸다.

“오빠! 해 줘...응?”  
“응! 그래...”

정호의 성난 왕침이 선희의 발정 난 조깅살을 거침없이 파고들었다.

“아~오빠...흑!”

배고픔 뒤의 꿀맛 같은 포식이 한참 동안 계속됐다. 경주시내로 들어 선 두 사람. 택시를 타고 터미널에 도착하니 막차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았다. 터미널 내에 있는 분식집에서 간단히 저녁요기를 하고 떠나기로 했다.

“선희야...”

라면을 먹으며 정호는 선희를 불러 놓고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다시 만날 약속을 해야 하는데, 좀처럼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왜요?”  
“내가 네게 전화하기보단 네가 자주 전화해 줘?”  
“저야 매일 하고 싶지만...”  
“괜찮아! 난 선희를 못 보면...목소리라도 못 들으면 아마도 미칠 것 같아”  
“.....”

보통의 여자라면,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좋아하거나 나도 그렇다거나 할 건데, 선희는 달랐다. 담담한 표정으로 허공만 응시할 뿐, 말이 없다.

“선희야! 왜 그래?”

정호는 갑자기 숙연해진 선희를 보자 무척 신경이 쓰였다.

“교수님! 전 오늘 참 많은 공부를 했어요. 정말이지 이렇게 로맨틱한 데이트를 해본 사람은 이 세상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것까지...넘...좋았지라”

“선희야! 난 하루 종일 너에게 뭘 해주었는지 잘 몰라. 정치학교실도 행정학교실도 아닌데, 삼국통일이 어찌고~ 봉건주의가 저찌고~ 하면서 하루를 다 보냈으니까”

“아니예요. 전 정말이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교수님의 강의는 정치라기보다는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듣는 것 같아서 자꾸 끌려요”

“세상 살아가는 이치라... 그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나,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나,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나, 근본적으로는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겠지”

“교수님! 만일 교수님이 그대로 학교에 계셨다면 난 정치학과로 전과했을 거예요”

“실은 말이야. 난 아직도 교단에의 향수를 버리지 못했나봐. 그래서인지 심지어 바이어들한테도 강의조의 말을 자주 하거든? 미국의 역사와 정치에 대해서...그런데 사장은 이를 아주 싫어해. 우리 회사 사장은 철저한 사업가거든”

“싫어하는 이유가 뭡까요?”

“고객은 왕이라는 말은 공연히 하는 소리가 아니야. 왕인 바이어를 위해 바이어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해놓고는 이를 들어 주는 거야. 때로는 적절한 맞장구도 쳐가면서 말이야. 철저한 사업가인 사장은 내가 그렇게 해주길 원하는데, 난 아니거든? 오히려 바이어를 상대로 강의조의 ‘썰~’ 이나 푸니 좋아 할 턱이 없지”

“그렇겠군요. 사장의 입장에선 당연한 것이지라”

“지금은 나도 많이 바뀌었지. 그래서 지금은 바이어한테는 ‘썰~’ 을 안 풀어. 앞으로 선희에게도 강의조의 ‘썰~’ 은 풀지 않을 거구”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난 정말 좋았다니까?”

“선희야! 육담(肉談)과 개똥철학이 훨~재미있지 않겠어?”

정호는 말을 던지며 선희를 향해 아련한 미소를 흘렸다.

“몰러~교수님답지 않아요. 전 오늘 강의가 정말 좋았다니까요? 특강은 더 더욱...”

특강? 그렇다. 정호의 왕침, 가식과 위선을 훌훌 벗어 던진 적나라한 시술, 선희를 황홀경에 몰아갔던 정호의 실전연애강의야말로 특강 중의 특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수님!”

“왜?”

“교수님의 강의를 예전에 학교에서 들던 것과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더 신랄하고 노골적이라고나 할까요?”

“당연하지. 학생들 중엔 고위공직자의 자녀도 있고...교실에서의 말엔 한계가 있지”

“맞아요. 그런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삼국통일이 잘못된 것인 걸 알더라도 선불리 신라를 나쁘게 평했다가는 ‘불국사도 첨성대도 다 꼴 보기 싫다’ 며, 문화재까지 귀하게 여기지 않으려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아직은 어린 학생들에게 진실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곳이 교실인 거야. 말이야 상아탑이라고들 하지만...”

“그런데 교수님! 궁금한 것이 있는데...대학을 왜 상아탑이라고 하죠?”

“플라스틱이 생기기 전에는 동물의 뼈나 뿔로 만든 물건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상아로 만든 것은 빛깔이 좋아서 고급장식품을 만드는데 많이 쓰였데. 그래서 사냥꾼들이 목숨을 걸고 코끼리 사냥에 나선 때도 있었지. 그런데, 코끼리는 죽을 때 아주 높은 열을 내는데, 그 열을 견딜 수 없어서 깊은 물 속이나 폭포에 뛰어 든다는 거야. 그래서, 살점은 고기밥이 되고 뼈와 상아는 차곡차곡 탑같이 쌓여진 것이 있다는 말에 상아탑을 찾아 나선 탐험가가 있었지만, 실제로 상아탑을 찾은 사람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대학에서의 진리탐구가 상아탑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워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게야. 한편, 상아로 깎아 만든 탑이 진리의 상징이 될 정도로 우아하고 숭고하게 보여서 상아탑이라고 부른다는 설도 있어”

“그럼 우리나라 대학은 상아탑이라고 할 수 없겠네? 진리와도 거리가 멀고, 숭고와도 거리가 머니까...”

“색칠한 플라스틱 탑이지”

“소리만 요란한 속빈 양철탑도 되겠네? ㅋㅋ”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교육은 2중구조가 돼있지 않아서 강의하기가 더 어려워”

“그건 또 뭘 말인지라?”

“가령, 국사교육의 경우, 초등교육에서는 역사상 좋은 측면을 가르쳐서 선민의식을 가지게 하고, 고등교육에서는 나쁜 측면까지 다 가르쳐서

역사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국사교육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은 측면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병도 박사가 신라통일의 부정적 면을 썼다가 욕을 먹은 것도 이런 교육관 때문이지. 대학생이 되어서도 선조의 부정적인 면을 말하면 강한 거부감을 가지니, 민족의식이 강하다고 칭찬해야 할지...바보라고 해야 할지...참으로 난감한 게 오늘의 교육현실이야”

“어머~교수님! 막차 떠날 시간이 10분밖에 안남았어요”

막차 떠날 시간이 다 됐는데도 이렇게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급히 승차장으로 향했다. 다행히 출발시간은 아직 1분정도 남아 있었다. 선희는 갑자기 정호를 끌어안았다.

“오빠...뽀뽀”

선희는 못 다한 아쉬움을 마저 채우기라도 하듯이, 주위의 시선엔 전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정호의 목에 매달려 그의 입안 구석구석을 훑친 뒤에야 버스에 올랐다.

“선희야 잘 가! 전화하는 것 잊지 말구”

선희를 보내고 난 정호는, 차표를 다음날 새벽 것으로 바꾸고 경주에서 하룻밤 더 자고 가기로 했다. 고독을 맛보고 옛 추억에 잠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남자란 집을 나와서는 혼자 잘 수 있어도 집에선 혼자 자길 싫어한다. 정호는 집에서 독수공방하는 것에 익숙해 졌는데, 오랜만에 제자인 선희와 뜨거운 정사를 하고 나서인지, 왠지 혼자 집에 들어가기 싫어진 것이다. 혼자 호텔방에 누워 있으니, 옛 추억은 간데없고 온통 선희 생각뿐이다. 결코 범해서는 안 될 여인을 범했다는 가책. 선희와 가진 뜨거운 정사 뒤의 포만감.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황홀한 섹스. 아직도 그의 온몸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그녀의 체취. 자신으로 인해 섹스에 눈을 뜨게 된 그녀가 가엾다는 생각. 선희가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는 생각들이 뒤엉켜 좀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 제9장 - 사건과 사건, 오해와 오해

선희와 헤어진 후 며칠이 지났다. 정호는 경주에서 헤어진 그 다음날 곧바로 선희의 전화가 걸려올 줄 알았다. ‘무사히 도착 하셨지라~’ 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행여 놓칠세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머리맡에 휴대폰을 놔두는 걸 잊지 않았다. 하지만, 정호의 애타는 심정과는 달리 그의 휴대폰 벨은 좀처럼 울리지 않았다.

금요일 아침.

오늘이나 내일은 전화가 오겠지 생각하며 일찍 출근해 보니, 오라는 선희의 전화는 오지 않고, 미국의 셰크타(Shachtor)라는 거래처에서 서울 무역본부로 강력하게 크레임을 요구하는 팩스가 와 있었다. 변상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평소 사업수완이 보통이 아닌 박 사장은, 의도적으로 3분지1쯤 불량품을 수출해서 크레임을 유도하는 수법을 잘 썼다. 당연히 불량품에 대한 변상은 해주지만, 현금으로 외화를 송금하기 위해선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핑계로, 일시에 현금으로 변상하지 않고 수차례에 나누어 다음 주문 시에 돈을 덜 받는 식으로 변상해 주는 방법이었다. 그렇게 되면, 바이어는 변상을 받기 위해 ‘올며 겨자 먹기’ 로 몇 번 더 주문을 하지 않을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박 사장은 변상을 해주되 이익이 남는 장사였다. 정호가 근무하는 회사는 ‘썬 글라스’, ‘안경 태’ 와 같은 광학기계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회사다. 안경시장은 국내업자들끼리 경쟁이 심하고, 대만과 일본과의 수출경쟁도 심했다. 정호는 덤핑을 해서라도 생산라인을 유지해야 할 처지를 누구 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이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박 사장은 좀 심한 편이었다. 박 사장은 주로 생산을 관장하며 대전공장에 상주했고, 은행원 출신인 이 전무는 주로 수출을 담당하며 서울에 있는 무역본부에 상주했는데, 바이어들 사이에 신용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 이정호 전무는 박 사장의 이런 수법에 대해선 항상 불만이였다. 이 전무가 보기에, 이번에는 심해도 너무 심했다. 거물급 바이어인 셰크타를 잡아두기 위해 고의적으로 한 것인지는 몰라도, 수출품의 40%가 불량품이었으니 어떠한 구실로도 일시불

변상은 불가피해 보였다. 이 전무는 곧장 무역부장을 대동하고 공장이 있는 대전 본사로 차를 몰았다. 대전 본사엔 서울과는 달리 이 전무의 집무실이 제법 잘 갖춰져 있었다.

“이 전무님! 그러잖아도 주문이 적어 미국에 한번 다녀와야 됐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다녀오지 그래유. 메일이나 전화로 해결하기엔 불량품이 너무 많은 것 같네유”

부랴부랴 본사에 도착한 정호에게, 사장은 대뜸 미국출장을 권했다. 서울무역본부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이렇게 태연하게 너스레를 떨고 있는 박 사장을 보면서 정호는 다시 한번 박 사장의 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출장은, 직원이면 누구나 ‘좋아라~’ 하는 일이며 정호 역시 싫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미국의 몇 개 도시를 다녀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걸리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선회를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가기 싫은 것이다.

“글쎄요? 제가 전화로 한번 해결해보겠습니다”

해외출장이라면 서로 기를 쓰고 못가서 안달인데, 시무룩한 표정으로 해외출장을 가지 않겠다는 정호를 본 박 사장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유? 가기 싫으신 가유?”

“아니요. 요즘은 소화도 잘 안 되고 피로도 자주오고 해서...”

뭔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고 있는 이 전무를 보면서, 박 사장은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웬만하면 무역부의 최 부장을 보내도 되겠지만, 이번 건은 그리 호락호락 한 건이 아니었다. 특히, 셰크타가 이 전무를 좋아하고 그의 부인 또한 이 전무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 박 사장으로서, 반드시 이 전무를 보내야 했다.

“에이~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유. 내일 당장 떠나시라유. 경비는 충분히 가져 가시구유. 법인카드도 잊지 말고 꼭 지참 하시구. 중간에 하와이에서 하루 이틀 정도 쉬시면, 시차도 풀리고 피로도 말끔히 없어질 거구만유”

박 사장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정호는 미국 출장 때 마다 시차도 줄일 겸 하와이에 들를 생각을 했지만, 번번이 출장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박 사장이 하와이에서 피로를 풀라고 권하고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기발한 방법으로 출장을 권하는 박 사장. 이번 출장이 회사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정호로서는, 이렇게까지 권하는 박 사장의 요구를 더 이상 뿌리치기가 어려웠다. (정호는 속으로, ‘나참~! 정말로 사람 미치겠네~’ 라고 주절대면서...)

“그럼 다음 주말 쯤 떠나지요”

“에이! 이 전무님! 이번 출장 건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서 그래유? 그러시지말구 한 이틀정도 이 근처 온천에서 피로를 확~푸시고 모래나 글피에 출발하시라유. 준비는 무역부장이라 총무부장이 다 할끼니께...”

“아닙니다. 하와이에서 쉬면 될 테니 잔무도 있고 해서 회사에 나오겠습니다”

“에이! 쉬시래도 자꾸 그러시네. 아무튼 내주 화요일에 출발하는 걸로 해유...이?”

“예! 그럼 그렇게 하지요”

박 사장은 곧바로 총무부장에게 비행기 예약을 지시했다. 정호가 출장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랴 잔무처리를 하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쯤, 세관 담당인 김 계장이 사색이 되어 전무실을 박차고 들어왔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평소 침착하기 그지없던 김 계장이었기에, 노크도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 와 소리치는 김 계장을 보며 정호는 뭔가는 몰라도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김 계장! 왜 그래?”

“전무님! 드디어...드디어...선네고가”

“선네고가 어쨌다는 거야!”

“터졌시유!”

“뭐야? 그 포스타 옵티칼에 갈 물건이?”

“예! 오늘 바꿔치기를 하다가 항공화물 직원의 실수로 그만...”

“이거 큰일이군! 이런 멍청한 친구 같으니! 상부에 보고 되지 않게 즉석에서 세관직원과 쇼부를 쳐야지. 그냥 들어오면 어떡해!”

“항공화물 직원이 한번만 봐달라고 사정사정하다가 안 되니까 그만 세관감시원을 때려 싸움이 일어나 세관이 발각 뒤집히고 말았네유. 수습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아...어쩔 수 없이...”

“부상자는 없었나?”

“언어맞은 세관원이 찾김에 각목을 휘둘러서 항공화물직원의 이빨이 부러지고 입원까지했시유...크...큰 사건입니다”

“.....”

“사장님과 전무님은 일단 피하셔야지유?”

“빨리 무역부장을 불러!”

“들어 올 때 보니까 부장님은 안계시던데유?”

“그럼 어서 찾아 봐!”

잠시 후, 무역부장과 김 계장이 허겁지겁 같이 들어왔다.

“일단 사장님은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걸 위장수출(偽裝輸出)인데, 이것 때문에 깨진 회사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폭력사태 까지 생겼으니 사장님은 구속되기 십상입니다. 일단 피하셔서 수습하셔야지 구속되고 나면 어렵다고 봅니다”

무역업무에 노련한 경험을 가진 홍 부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 선네고란?

\*//대강 다음과 같은 것이다. L/C(신용장)에는 언제까지 화물을 선적해야 한다는 날짜가 명기돼 있다. S/D(Shipping Date)라는 것이다. 만일, 그날까지 제품생산이 완료돼서 선적일에 맞추지 못하면, 주문자에게 선적일 연기를 요청해 신용장 수정을 받아야 한다. 이 때, 대체로 주문자는 주문 당시 보다 제품시세가 올랐을 경우엔 곧바로 신용장을 수정해 살려 두지만, 그 반대일 경우엔 수정을 거부하여 신용장을 죽여 버리고, 다른 곳에 주문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럴 경우, 신용장은 출지에 휴지조각이 돼버리고, 공들여 만들어 놓은 제품은 버리거나 덤핑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거래 규모가 클 경우엔 웬만한 중소기업은 망해 버리기 일쑤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주문자에게 선적기한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생산업자와 세관직원이 짜고 서면상으로만 통관처리를 해 놓고, 실제로는 생산이 완료되었을 때 선적한다. S/D는, 실제로 화물을 선적하는 날짜가 아니고 세관을 통과한 후 보세창고에 입고하는 날짜기에, 실제 선적은 그 다음날 바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며칠 또는 몇 주일 후에 되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항공편일 경우엔 빈자리가 나지 않아 근 한달 여를 기다릴 때도 있으므로, 이 때 운송업자는 서면상통관한 것으로 해놓고 선적기일을 늦춘 후, 그 사이에 생산을 완료하는 것이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국익(國益) 차원에서 그의 모든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인된 불법이며 선진국일수록 더 심하다. 이를 속칭 ‘선네고’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선네고 뿐만 아니라 모든 변칙이 잘 통하지 않는다. 첫째, 세관공무원이 협조하기를 싫어하고, 둘째, 협조를 하더라도 너무 많은 뒷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영세업자들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그래서 가령 10박스를 실어야 하는데 8박스 밖에 생산이 돼

있지 않으면, 일단 나머지 2박스에는 무게가 같은 다른 물건을 넣어 세관을 통관시키고 난 다음, 운송업자와 짜고 실제 선적하는 날짜를 늦춘 뒤, 그 사이에 생산을 완료해서 선적일이 되면 가짜를 빼고 진짜를 선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법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네 세관원들은 국익을 생각한다면 모른 척 덮어 둘 수도 있으면서 혈안이 돼 잡으려 든다. 2차세계대전후, 세계 여러 나라에 미군이 주둔해 있었다. 당시엔 무역거래가 거의 없던 때라서 미군부대에서 뒷구멍을 통해 흘러나온 불법적인 물자가 그 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됐던 적이 있었다. 이 때, '독일경찰은 미군부대에서 불법적으로 물자를 빼내는 것을 암암리에 도와주었고, 일본경찰은 모르는 척 했으며, 한국경찰은 약척같이 붙잡아서 미군헌병에게 넘겨주었다' 는 에피소드가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 당시,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와 암거래되는 물건이 너무 많다 보니 미군당국이 한국경찰에 단속강화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 머리가 좋다고 소문난 장택상 치안국장도 그것이 중국엔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걱정을 했다. 그 때 이승만 대통령이 말하길 "그 물건들이 다 어디로 가디?" 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뜻을 몰랐던 장택상씨가 "글쎄요. 철저히 조사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성난 얼굴로 "설마 김일성이 갖다 주지는 않겠디..." 라며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의 우리나라는 '비누' 나 '치약' 하나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던 때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당시 말뜻은, 그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이며, 중국엔 우리 경제를 살찌우는 것들이란 의미였다.

'진정한 국민민복(國利民福)의 길은 무엇인가?'

'선네고가 뭐 그렇게 큰 죄라고 각목으로 백성을 때려?'

정호는 흥 부장의 보고를 받으면서 선네고사건을 풀겠다는 걱정보다, 예나 지금이나 입은 국가와 국민과 민족을 부르짖으면서도 진정한 국민민복 앞엔 꼬리를 내리고, 탁상행정에만 몰매인 공무원사회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 외출 중이든 박 사장이 소식을 듣고 급히 회사로 돌아왔다.

"이거~ 큰일이구먼. 어쩔 된다지야?"

박 사장의 물음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해결책이 없었다.

"허영~사...입건까지 한다지유?"

박 사장의 입술은 떨고 있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사장님! 사장님은 일단 피하세요. 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묻거든, 무역은 이정호 전무가 담당이라서 사장님은 전혀 모른다고 딱 잡아 떼십시오"

"책임을 지다니! 이 전무가 어떻게 한단 말이유?"

"저도 확실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늦었고 내일 아침부터 차분히 풀어 봐야겠지요. 밤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사장님은 절대로 전면에 나서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신변에 문제가 되면 회사가 위태로워집니다"

"이 전무님! 우리 나가서 술이나 한잔 하시자유"

"사장님! 지금 사장님과 술 한 잔 하면서 잊어버릴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엔 저로서도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만, 조용히 혼자서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아무튼 이번 일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밤새도록 생각한 정호는 정면돌파를 결심했다.

'무역업이라는 것도 해 보니 신물이 난다. 외국 바이어들이 한국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도 싫고, 경쟁업자들의 더티플레이도 지겹고, 종업원들 다루기도 어렵다. 게다가 법은 규제 투성이고 공무원들조차 협조는커녕 못살게 굴 궁리나 한다. 외관상으론 월매출액이 몇십억 되니까 떼돈이나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살아음판인 것이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이러한 판에 걸핏하면 공무원들은 손 벌리기에 바쁘다. 봉이라도 아주 더러운 봉이다. 오직하면 죄 많은 놈이 중소기업을 한다고 하겠나. 그래 정면으로 돌파하자. 이

번 일이 해결되고 나면 모든 걸 다 뿌리치고 도나 닻으러 들어가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 정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다음날 아침. 정호는 출근하자마자 무역부장과 생산부장 및 총무부장을 불렀다.

“무역부 홍 부장은 지금 즉시 병원에 가서 항공화물직원을 보고 치료비 일체는 우리 회사에서 책임질 테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세관직원을 고소하지 말라고 부탁하세요. 고소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고...정히...세관 측에서 타협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우리 회사에서도 같이 고소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무마해 놓으세요. 그리고 혹? 친인척 등 주변에서 고소를 부추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오늘 하루만큼은 늦게까지 병원에 있다가 오도록 하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부장과 총무부장은 사내외에 소문이 나지 않게끔 철저히 입단속을 시키세요. 특히 공장 쪽을 조심하세요. 생산라인 쪽의 직원들이 중요하면 안되니까요. 그리고 이번일로 인해 외부에서 누가 찾아와서 물으면 이 전무님이 알지 저희들은 전혀 모른다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계장과 미쓰 리는 날 따라 오세요”

정호는 지시를 내리고 난 뒤 곧바로 회사를 나와 세관으로 향했다. 세관에 들어선 정호는 다짜고짜 세관장실로 들어섰다. 하지만 너무 이른 시간에 와서인지 세관장은 아침회의 중이라고 해서 정호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복도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의는 11시가 돼서야 겨우 끝났다. 정호는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회의를 하는 것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세관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세관장실 입구의 비서인 듯한 여직원이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세관장님을 급히 만나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미리 관장님과 약속을 하고 오셨나요?”

“약속은 안했습니다. 하지만 관장님이 모르시면 큰일 날 일이 생겨 급히 좀 만나야 해서 약속을 못하고 왔는데, 왜...못 만난다는 건가요?”

정호는 자신의 명함을 여비서에게 건내며 짜증난다는 듯이 말했다. 여비서는 정호의 말로 봐서 정말로 중요한 일 때문에 온 것처럼 보였다. 자칫 잘못하면, 곧장 정호의 입에서 험악한 말이 쏟아질 듯한 분위기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세관장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잠시 후, 정호의 명함을 들고 관장실로 들어갔던 여비서가 나와서 정호를 세관장실로 정중히 안내했다.

“전무님! 들어가십시오”

정호는 세관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관장님! 세관직원이 각목으로 업자를 때려 이빨이 부러진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회의에서 방금 보고 받았소. 그런데 뭘 문제가 있나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고 했던가. 들어서자마자 인사치레도 없이 다짜고짜로 쏘아부친 이 전무에 대해 세관장 또한 몹시 통명스럽게 답했다.

“관장님! 직원의 일방적 보고만 받으신 것 같은데...제 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말해 보세요”

역시 통명스럽다. 이 전무는 크게 한숨을 한번 쉬고는 약간 언성을 높여 말하기 시작했다.

“세관장님! 제가 보기에 이번 일은 관장님께서도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이 사건은 국익이 무엇인지 모르는 공무원들이, 평소에 업자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잠재의식이 폭로되고, 무역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무식의 탄로에서 기인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런 일이라면, 사건의 잘잘못을 떠나 오히려 업자 측에서 손발이 닳도록 빌고 드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대뜸 한다는 소리가 ‘국익을 모른다’ 느니 ‘무식하다’ 느니 하면서 따지는 것을 보며, 세관장은 놀랍고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으나 이 전무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세관장이 반박할 여유도 주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도대체 이 나라 공무원들은 선네고가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다른나라, 특히 선진국에선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민합동으로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기업인들을 못 잡아먹어 안달입니까? 무역은 국가 간의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전쟁에서는 국제법이니 제네바협정이니 하는 따위는 무시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한다’ 고 관민합동으로 해야지 관에서 방해하면 못합니다. 이런 것 조차 못한다면 이는 민도(民度)의 문제요, 의식수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노태우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수를 배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보따리 장사도 무역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무식한데서 비롯된 것이며, 공무원과 업자가 서로 까마귀 화살 보듯이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전무의 이야기는 거침없이 계속 이어졌다. 자유당 시절에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군수물자를 단속한 이야기부터, 한국인의 민족주의가 알맹이 없는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마치 강의하듯이 일장연설을 했다. 가끔씩 세관장이 끼어들기라도 하려하면, “좀더 들어 보세요” “잠깐만요” 라면서, 세관장에게는 거의 말할 틈을 주지 않고 빠른 어조로 말을 이어간 뒤 결론을 내렸다.

“관장님! 제가 이 사건을 가지고 담당이나 과장을 찾지 않고 바로 세관장님을 뵈러 온 것은, 관장님이라만 올바른 판단을 할만한 경륜과 지식을 겸비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서로가 타협해야 합니다. 서로 법대로 하겠다면서, 세관 측에서는 선네고 문제로 입건하고, 항공화물 직원은 세관원을 폭행죄로 고소한다면, 서로가 망신일 것이며 아마도 매스컴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떠들 것입니다. 세관장님 께 죄송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제가 보기에는 세간의 비난은 세관 쪽으로 쏟아질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절대로 과장급 선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관장님께서 보다 높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항공화물 직원이 세관원을 폭행죄로 고소하지 못하도록 할 테니, 관장님께서서는 선네고 건은 없었던 일로 처리해주시시오”

이렇게 말하고 난 이 전무는, 정색을 하고서 관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이 알아서 해라’ 는 눈치다. 세관장 역시 ‘별 희한한 놈을 다 보겠다’ 는 눈치로 이 전무를 뻘뻘하며 물었다. 나이는 서로 비슷한 것 같았지만, 상대는 어디까지나 업자였기에 세관장이 전혀 기 죽을 이유가 없었다.

“이 전무는 무역을 몇 년이나 했소?”

당신이 알아봤자 얼마를 안다고 떠벌리나는 식이다.

“약 3년 됐습니다”

“아니? 3년 밖에 되지 않은 분이 어떻게 지난 시절의 뒷이야기까지 아는가요?”

“그저 이것저것 접하다 보니 알게 된 상식이지요”

“무역을 하시기 전엔 뭘 하셨지요?”

어딘지 모르게 세관장의 말투가 처음보다 상당히 부드러워져 있었다.

“은행원 생활도 하고,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정치에도 간여하고, 그랬었지요” “어쩐지? 뭔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지요. 해결방안도 꽤 정치적이시네요. 허허~”

뭔가 일이 잘 풀리려나? 세관장은 태연스레 너털웃음을 지었다. 정호는 여전히 통명한 어투로 말했다.

“관장님! 정치는 정치가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장님 정도의 위치에 계신다면 이런일 쯤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지요. 우리는, 서로가 도덕적으로는 절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시다. 제가 볼 때, 선네고를 국익차원에서 봤을 땐 결코 나쁜 것은 아니며, 국가 공무원에게 손찌검을 한 녀석을 각목으로 한 대 갈겨준 것도, 나쁜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일과 옳은 일이 서로 부딪쳐서 생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만일 이대로 방치한다면 둘 다 나쁜 놈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정치력을 가지고 이번 일을 수습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관장님의 정치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녁 6시까지 유성관광호텔 뒤 오류장(梧柳莊)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과장님들과 함께 오셔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지요. 저녁에 뵙겠습니다”

이 전무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고서는, 세관장의 답변도 듣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세관장도 영겁결에 덩달아 일어섰다. 그러나, ‘수고하셨습니다’ 면서 먼저 악수를 청한 사람은 세관장이었다. 정호는 세관장의 모습 속에서 의외로 일이 잘 해결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세관장실을 나온 이 전무는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김 계장에게 지시했다.

“어쩌면 오늘 저녁에 의외로 일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김 계장은 지금 즉시 병원으로 가서 홍 부장을 만나 일이 잘 풀릴 것 같다고 전하고, 홍 부장 대신 병원을 지키도록 하세요. 괜히 주변사람들이 와서 고소하라고 종용하지 못하게...알았지요?”

“예! 알았습니다”

“미스 리는 오류장에 연락해서 오늘 오후6시에 4명 정도로 해서, 특실 하나 예약해 놓고 바로 퇴근하세요”

“예”

이런 와중에도, 정호의 손은 몇 번씩이나 호주머니 속의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왜? 정호의 머리 속은 온통 선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선희에게 먼저 연락해 볼까? 아니...그건 아니야...기다려야 돼!’

정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뇌아리며 박 사장이 머물고 있는 호텔로 향했다. 집에 있기 불안했던 사장은 당분간 사건이 풀릴 때까지 호텔에 있기로 한 것이다. 정호는 박 사장에게 세관장을 만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리고는 오늘 저녁에 세관장과 만나는 사실을 말했다.

“오늘 저녁에 세관장이 오류장으로 한잔하러 온다면 타협은 된 것으로 봐도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제가 내일 아침에 경찰서로 가서 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시한 일이니 제가 책임져야겠지요. 하지만 잘 풀릴 것이라고 봅니다”

“수고했어요 이 전무. 역시 이 전무 밖에 없더니까? 자~ 한잔...”

박 사장은 대답 대신 술을 권했다. 생산을 빨리 하지 못한 것은 박 사장의 책임이고, 선네고를 지시한 것도 박 사장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무인 정호가 책임지겠다고 자청하고 나오니 박 사장으로서는 그저 미안할 따름이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딱 한잔만 하겠습니다”

“뭘~ 몇잔 쪽 들이키고 한숨 주무시유. 무척 피로해 보여유”

“예, 실은 아직 아침도 못먹었습니다”

“저런~ 그럼 안 되지. 같이 점심부터 해유”

박 사장과 같이 점심을 먹고 난 정호는, 호텔방으로 오자 말자 이내 잠이 들었다. 5시 20분경이 되자 박 사장이 부산하게 정호를 깨웠다.

“이전무! 6시에 약속했다고 안했시유?”

“아~네!”

오후 5시 50분. 오류장에 도착한 정호는 세관장 일행이 반드시 미리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여기...6시에 예약한 손님...”

정호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카운터 걸이 응답한다.

“아~예! 세관장님 하고 과장님들 말이죠? 저쪽 특실에 벌써 와 계셔요”

과장을 세명이나 달고 온 세관장. ‘그럼 그렇지. ㅎㅎㅎ’ 역시 정호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여~ 이 전무님! 벌써 어디서 색시 끼고 전주를 하셨나? 취한 것 같아요? 허헤!”

세관장의 걸쭉한 인사말 속에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부어라~, 마셔라~’

물 만난 고기가 따로 없었다. 마치 오랜 지기라도 된 양 음담패설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끝났다’ 는 뜻이다. 단, 헤어질 때 정호가 택시를 잡아주며 차비조로 건네준 봉투하나가 있었을 뿐.

월요일. 아침 일찍 세관에 들어갔던 김 계장으로부터 통관이 무사히 끝났다는 전화가 왔다. 이 전무는 ‘이젠 살았다’ 고 생각하면서 공장 호텔에 있는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공장으로 돌아 온 박 사장이 이 전무의 손을 덥석 잡았다.

“정말 잘했시유. 과연 이 전무님은 다르구먼유. 고마워유, 고마워”

“실은 저도 무척 긴장했습니다. 제 판에는 약간의 충격요법을 쓴 건데...이렇게 수습된 것이 정말이지 다행입니다”

“이 전무....아무튼 수고했시유. 일찍 집에 들어가서 좀 쉬시라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럼 전 이만...”

“아니어유. 잠깐...”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하던 박 사장은 나가려던 정호를 급히 불러 세웠다. 그리고는 정호의 눈치를 보는 듯하며 조심스레 말을 꺼내었다.

“이 전무! 저...”

“왜요?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다름이 아니라...이 전무...이번에 정말 수고했는데...내일이 화요일이 잤아여?”

미국출장 건은 이번 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며칠 연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박 사장의 말투를 보니 미국출장 건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회사입장에선 어쩔 수 없었다. 클레임 건 해결도 세관사건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사항을 점검할 참입니다. 출발이 내일 아침 10시니까 곧장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사장님 그럼 다녀와서 뵙겠습니다”

“이 전무! 매번 수고시켜서 미안해유. 잘 멩겨 오시라유”

장기 미국출장이다. 정호는 박 사장의 인사는 듣는 등...마는 등...컴퓨터 앞에 앉아, 선희에게 급히 E-Mail을 보냈다. 정호는 자신이 먼저 전화를 걸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한달이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할말이 얼마나 많겠는가. 휴대폰 문자메세지로는 부족하고, 풍부한 내용을 전달하기엔 역시나 E-Mail이 최고였다.

환상의 섬 ‘하와이’

말로만 듣던 하와이는 역시 좋았다. 그러나 정호의 마음은 왠지 허전하고 외로웠다. 잃어버린 사랑 때문이다. 보는 것 듣는 것들이 모두 심상했다. 와이키키 해변에 누워 있는 비키니 차림의 늘씬한 육체도, 완벽한 S라인에서 발산되는 선희의 육감적 몸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한편, 선희는 속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다. 월요일부터 이 교수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으나, 너무 자주 전화하고 만나면, 또 다시 영어선생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참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화요일...정호에게 수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선희는 무슨 일이 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이번에는 정호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이정호 전무님 좀 부탁드립니다”

“당신 누구여?”

잔뜩 성난 목소리에 놀라 선희는 얼른 전화를 끊어 버렸다.

거래처 직원이 회사에 들렀다가 전화를 대신 받은 것이다.

경리담당 윤 상무는 평소 납품업자들에게 갖은 핑계를 대고 결제를 늦추었다. 이날도 결제를 받으러 왔던 납품업체 직원이 무려 4시간을 넘게 윤 상무를 기다렸지만 결국 윤 상무가 나타나지 않자, 영똥하게도 선희에게 대신 화풀이를 한 것이었다. 선희는 성난 전화에 기분이 나뻐 다기보다는 오히려 걱정이 됐다. 정호의 휴대폰도 꺼져 있고...전화 받는 것을 보니 회사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고...선희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했다. 오후 2시경 다시 한번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이 전무님 좀 부탁드립니다”

“누구세요?”

“윤선희라고 말씀드리면 잘 압니다”

“퇴근했어요!”

또 다시 통명스럽게 전화를 받고는 일방적으로 끊어 버렸다. 이번에는 경리와 여직원이 전화를 받은 것이다. 경리와 여직원 또한 매번 결제 문제로 시달렸는데, 오늘은 윤 상무가 고의적으로 잠수를 타는 바람에, 4시간을 넘게 기다린 거래처 직원에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는 회사를 그만 둘 작정을 했기에, 그녀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리 만무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알 턱이 없는 선희는 단단히 오해를 했다.

‘전무님께 전할 말이라도 있느냐?고 물어 보지도 않았다’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랬다’

‘여자에게 전화가 오면 무조건 없다고 하라는 전무의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면 감히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을 수 있겠나?’

‘너무 쉽게...너무 빨리...내 모든 걸 보여줘서 실망해 버린 걸까?’

‘그렇게 예쁜 술집아가씨들 사이에서 매일 놀고 있으니...자위행위 때문에 처녀막이 터진 것을 가지고...숫처녀가 아니라고 착각해서 매력을 잃어버린 걸까?’

‘유부남이라는 부담감에...맛볼 만큼 다 맛봤으니...이젠 끊어 버리자는 걸까?’

‘나쁜 놈! 이렇게 쉽게 변심하다니!’

‘남자는 전부 도둑놈이라고 하더니 이 교수 또한 별 수 없는 족속이었나?’

어린 선희에게는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였다. 선희는 두 번 다시 이 교수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 선희는 몰랐다.

정호가 한국을 떠나 올 때, 선희에게 자세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으나 선희가 아직까지 이-메일을 열어 보지 않았다는 것과, 특히...정호가 학교를 그만 둔 그 해 가을에, 벌써 그의 부인과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이대로 끝내버리기에는 너무 억울했다. 다시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예! 전무님실입니다”

귀에 익은 목소리...전무실의 여비서가 전화를 받은 모양이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전무님께선 미국에 출장 중이신데요?”

“예?? 언제 가셨는데요?”

“오늘 아침 비행기로 가셨습니다”

“그럼 언제 돌아오시나요?”

“하와이를 거쳐서...약 한달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화가 난 선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정말 나쁜 인간이다. 한달씩이나 걸리는 장기간의 미국출장이라면 벌써 오래전에 계획을 세웠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경주에서 만났을 땐 예정에 있었을 텐데...전혀 내색도 하지 않았다니. 이건 나한테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분명해. 맞았어! 난 그의 성욕을 채워주기 위한 일회 용성기구에 불과했어. 걸 다르고 속 다른 속물!’

선희는 또 한번 큰 수렁에 빠졌다. 이젠 남자건 여자건 무조건 사람들이 싫어졌다. 선희는 엄마와 같이 부산 광안리의 외갓집에 와 있었지만, 혼자 방안에 틀어 박혀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 간혹 혼자서 해변가를 걷는 것이 고작이었다. 성적 욕구도 생기지 않았다. 점차, 정호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심은 사라지고...실성한 사람처럼 변해갔다. 선희의 어머니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왜 그러냐?’ 고 물어 보고도 싶었지만, 지난 날 영어선생의 문제를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는 그녀는, 내심 짐작되는 것은 있었지만...딸에게 또 한번의 아픔을 줄 것 같은 생각에 모르는 척 그냥 지켜만 보았다.

드디어 전쟁터로 떠나는 정호. 평소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정호는 하와이에서 이틀간 마음을 정리하고 난 뒤, 곧장 뉴욕으로 날아가 문제의 회사인 ‘셰크파 옵티칼’ 로 갔다. 다행히 사장인 미스타 셰크파와 부사장인 셰크타의 부인이 반갑게 정호를 맞았다. 미국에는 특히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이렇게 가족들끼리 비서, 부사장, 매니저 등을 맡는 회사가 꽤 많다. 이런 현상은 결코 봉건적 네포티즘(가족주의)이 아니다. 미국은 근로자의 권리가 너무 강하여, 휴일과 출퇴근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관계로... 과외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중소기업 입장에서선 일일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끼리 중책을 맡아서 잔업도 하고 휴일근무도 하는 것이다. 이날도 어김없이 정각 5시가 되

자, 모든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굿바이, 씨~’ 하면서 퇴근해 버리고, 세크타 사장 부부만 남았다. 스탭크 매니저(재고관리책임자)인 사장의 장녀도 퇴근하려고 하자 세크타가 물었다.

“쉐리! 오랜만에 네가 좋아하는 미스터 리도 왔는데 저녁이라도 같이 해야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서 오늘은 곤란해요. 사장님”

“미스터 리에게 보여 줄 제품도 있을 텐데?”

“그것은 F선반(불량품 선반) 맨 우측에 놓아두었어요. 미스터 리가 너무나 반가워서 뒤로 넘어 질까봐 박스에 넣어서 쌓아 두었습니다. 큼! 큼!”

“그래? 그럼 나가도 좋아”

간단한 저녁식사 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세크타 부인은 정호에게 ‘미스터’ 라는 호칭에 섞어서 간간이 외교관에 대한 호칭인 ‘유어 엑셀런스시(Your Excellency)’를 농담조로 잘 썼는데, 이 날도 그래서인지 대화 분위기가 무척 부드러웠다. 세크타 사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미스터 리는 라스베가스부터 갔어야 했는데 하와이는 왜 갔소?”

“라스베가스는 왜요?”

“거기에서 한탕 벌어들였어야 이번에 문제된 건을 변상할 수 있으니까요”

세크타가 농담조의 말을 건네자, 순간적으로 정호는 쉽게 일이 해결될 수 있겠다고 느꼈지만, 겉으로 나타내지는 않고 차분히 세크타의 말을 받았다.

“라스베가스에 갈 생각은 나지 않고, 하와이의 푸른 바다카펫 위에서 영원히 잠들고 싶던데요?”

“미스터 리도 힘든 일이란 것을 알긴 아는 모양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Korea 속담에 ‘돈이 사람을 속인다’ 는 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사람을 속이고, 결국 나쁜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니까...비즈니스가 싫어져 차라리 바다카펫 위에 누워 버리고 싶었던 것이지요”

“미스터 리의 기분은 알겠지만 누우시기 전에 변상부터 하고 누우셔야지”

세크타의 표정을 보니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는다. 정호는 좀 더 솔직해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요즘 한국에서는 매이커들이 불량품을 섞어 보내서 그것을 다음번 ‘뉴-오다(신 주문)’ 에서 공제해 준다는 것을 미끼로, 다음 오다에 연결시키는 수법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나는 이것이 아주 싫어요. 물론, 이번에 귀사로 보낸 선적분은 이것과 다릅니다. 요즘에는, 오다가 많아서 공장이 풀가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바쁩니다. 이번은 실수로 저지른 것이니 절대 그런 것과 결부시키지 말아 주기 바랍니다”

정호가 오다가 많다고 한 것은, 결국 정호의 회사가 오다를 따내기 위해 쓸데없는 트릭을 쓸 필요가 없다는 암시였다.

“그 수법을 나도 알고 있어요. 미국기업들도 간혹 써 먹는 수법이니까요. 그러나 내게는 안통하지요. 특히, 요즘엔 재고가 쌓여서 ‘뉴-오다’ 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한달 이내로 변상해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든가, 라스베가스에 다녀오든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미스터-리!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

세크타의 말을 듣고 난 정호는, 방금 한 세크타의 말을 보면, 어쩌면 다른 오다가 필요하지만, 이것을 변상해 주면 다른 오다를 하겠다는 말보다도 더 무서웠다.

“그럼 그 제품부터 보여주십시오. 나는 아직 제품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시다”

세크타 부부와 함께 제품창고로 향한 정호. 제품을 보니 고의성이 역력했다. “40% 정도는 아무렇게나 채워라” 는 박 사장의 지시가 없고서는 아무리 바빴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러한 제품은 넣을 수가 없었다. 제품을 보고 난 정호는 세크타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장실로 돌아 온 정호는 책상에 팔을 켜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세크타 부부도 말이 없었다. 한동안 생각에 잠겼던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스타 세크타!”

“말 하세요”

“미스타 세크타의 제안은 사실상 저희 회사의 입장에 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문민정부 이후로 정치권에선 많은 규제를 풀겠다고 공약하고 있으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 외환관리법도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당장 달러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레드테이프(까다로운 절차)가 있어서 일년 이상 걸려도 될까 말까합니다”

“미스터 리! 나는 보험에 들어 있어서 정식청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우선적으로 받을 거니깐 시간이 걸려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

세크타의 입장은 처음 정호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욱 강경해 보였다.

“아마도 미국의 보험회사가 나서면 한국정부도 빨리 내 놓아야 되겠지요”

“휴~ 라스베가스에 가봤자 내 솜씨로는 오히려 돈만 잃을 게 뻔하고...”

“그건 미스터 리 사정입니다”

이제는 숫제 농담도 통하지 않는다. 한참을 생각하던 정호가 다시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미스터 세크타...그래서...내가 다른 제안을 할까 하는데...”

“말해 보세요”

“두 가지 제안인데요...”

“말하라는데?”

“하나, 이 정도의 양이면 4회 정도의 오다로 나눠야 하는데, 2회로 하고요...”

“또”

“또 다른 하나는, 이제까지의 오다는 회사에 한다기보다는 나에게 한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이제부터는 L/C에 이정도 전무의 인스펙션(검사) 싸인이 없으면 네고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고, 내가 직접 검사 하겠소”

“.....???”

“우리 회사에는 바이어들이 많습니다. 모든 바이어들한테 전부 다 이런 조건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검사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귀사는 ‘빅-바이어’ 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내가 미스터 세크타를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특히 ‘미국여인’ 하면 귀하의 부인을 생각할 정도로 나는 미세스 세크타를 좋아하는데, 그런 미세스 세크타에게 저가 불량품을 보내 실망을 안겨 드릴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정호는 이렇게 억지사탕발림으로 세크타의 부인을 끌어들었다. 실제로 세크타 정도의 거물급 바이어에게 이 정도의 서비스는 기본이다. 정호의 발상이 적중했는지, 침묵으로 일관하던 세크타의 부인이 곧장 거들었다.

“여보! 미스터 리의 두 번째 제안은 원더풀~이네요. 우리가 한국에 인스펙타(검사원)를 상주시킨 것과 같잖아요. OK하세요”

“허허! 부인의 명령이니 이를 어찌지?”

“누가 명령을 해요? 나는 그게 좋겠다는 제안을 한 것뿐인데...”

세크타 사장은 부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외부업무에 바쁜 정호가 과연 공장에 상주하며 품질검사를 할 수 있을지? 미심쩍었다.

“미스터 리! 박 사장이 미스터 리가 공장에만 들어박혀 품질검사나 하고 있게 내버려 둘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세크타 사장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감지한 정호는 고삐를 더욱 죄었다.

“그런 것이 염려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만일, 미스터 세크타가 나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이를 문서화해서 당신과 내가 싸인을 한 후, 이 합의문서를 다시 저희 회사로 전송하여 박 사장이 승낙한다는 싸인을 해서 보내게 한다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미스터 리는 어떻습니까?”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드디어, 세크타 사장이 정호의 두 번째 제안에 OK를 한 것이다. 정호와 세크타 사장, 그리고 세크타의 부인은 서로 진한 포옹을 하며 자축한 뒤, 곧이어 일사천리로 후속 조치를 취했다. 물론 상당한 오다도 함께 주었다. 정호가 예상한대로 세크타 부부는 아직도 정호를 굳게 신뢰하고 있었다. 꼬인 실타래가 풀리자 다음 일은 쉽게 술술 풀려 나갔다. 세크타 사장의 집에서 이들을 머문 정호는, 뉴욕에서 5명의 바이어를 더 만나고... ‘보스톤’ - ‘바파로’ - ‘시카고’ - ‘시애틀’ 을 거쳐 ‘샌프란시스코’ 에 도착했다. 정호는 가는 곳마다 그의 능수능란한 화술로 거래처로부터 상당한 오다를 받았다. 한편, 대전의 박 사장은, 선네고 클레임 건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난 이 전무가 계속 엄청난 오다까지 계속 보내오자, 마치 날아 같듯이 기분이 좋았다. 정호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박 사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이 전무입니다. 저가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며칠동안 볼일을 보고 다시 LA경유로 돌아갈까 하는데, 혹시 지시할 사항이라도 계십니까?”

“허허! 있지유. 라스베가스에 가서 한탕 땡기고 오시구려!”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라스베가스에는 바이어가 없는데요? 크크”

“에헤~이! 그 말귀 못 알아 듣네유. 좀 놀다가 오래니끼니. 연애도 한번 하고...”

“아이고...! 사장님...연애는 뭘? 연애...”

“경비가 모자라면 카드 박박 긁어시고유. 지가 다 알아서 처리할테니께유”

“예 사장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고 자시고 할게 뭐 있지유. 자..., 그럼 끊어유”

정호는 평소 미국출장을 나가 여유시간이 남을 때면, 술 마시는 일과 외도하는 일 보다는 주로 관광을 다녔다. 그는 이번 기회에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해 버르고 있었던 ‘라스베가스’ 와 ‘그랜드 케니온’ 을 다녀와서, 올 겨울 즈음에 미국 각지의 관광견문을 모은 ‘거대한 나라, 미국’ 이라는 기행수필집을 출간할 예정이었다. 그랜드 케니온에 도착한 정호는 마음 한 구석이 왠지 모르게 허전했다. 이렇게 좋은 순간, 옆에서 같이 기뻐해 줄 사람이 없다는 허전함을 참을 수 없었다. 여느 때 같으면, 아들과 딸에게 각지의 독특한 그림엽서를 사서 그때그때 보내주곤 했는데, 이번 출장 중에는 이마저도 기분이 내키지 않아 두 번 밖에 보내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줄 기념품도 일체 사지 않았다. 그러나 그랜드 케니온에서는 색깔과 무늬가 복잡한 대리석 하나를 샀다. 문득 ‘이 돌의 속마음도 나만큼 복잡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선회를 만나면 이 돌을 선물로 줘야지!’ 면서...

## 제10장- 역사의 앙금(靑衾)

아침8시 부산 광안리 바닷가.

선희는 오늘도 광안리 바닷가를 혼자 거닐고 있었다. 아직도 이곳은 여기저기서 개발붐이 일어나고 있다. 십 몇 년 사이에 이곳 해수욕장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다. 앞으로는 저 바다를 가로질러 육지와 육지를 잇는 긴 다리도 생긴다고 한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데, 자연은 뜯어 고칠 수 있는데, 인간은 왜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없을까? 내 머리도...내 마음도...저렇게 뜯어 고칠 수는 없을까?’ 선희는 이 교수 건으로 너무나 심란했다. 이 교수와 나누었던 순간...순간들. 야속하고 무정한 사람...죽이고 싶도록 미운 이정호 교수였지만, 선희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언제나 정호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와 나누었던 진한 사랑의 흔적이 선희의 온 몸 구석구석에 남아 그녀를 흔들고 있었다. 이 시간대에 선희가 이곳 바닷가를 거닐 때면 항상 혼자였다. 그런데, 오늘따라 어디서 본 듯한 남자 한사람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선희가 그의 등 뒤로 스쳐지나가려고 하자, 남자는 고개를 뒤로 돌리며 큰소리로 선희를 불러 세웠다.

“헬로~, 여보세요”

“예?”

선희는 대답을 해놓고 무척 당혹스럽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아가씨! 며칠 전에 나한테 길 가르쳐 준 사람 아닌가요?”

그 신사는 며칠 전 선희가 시내에서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이었다. 유창하게 한국말을 해서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간혹 일본식 어투가 섞였던 기억 때문에 단번에 알아 볼 수 있었다.

“예...그런 것 같은데요”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조각 같은 얼굴에 품위가 넘쳐흐르는 멋진 사내였다. 다만, 일본인이 아니라면 교포2세같은 생각에 약간 거부감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싫지는 않았다.

“그날은 너무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줘서 고맙습니다”

“일본 분이신가요?”

선희는 인사 대신 이렇게 말했다.

“글쎄요...? 항상 자주 받는 질문인데, 그때마다 일본사람이라고 했다가 한국사람이라고 했다가,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해 버리지요”

“정말 재밌는 분이시네요. 그럼 어느 쪽이 진짜세요? 호호호!”

선희의 입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나왔다.

“양쪽 다 진짱니다”

선희는 이 사내가 자신을 놀리는 것 같아서 정색을 하고 약간 찌푸린 얼굴로 쏘아 부쳤다.

“농담이 심하시군요!”

순간 남자는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아...아니요! 내 아버지는 한국, 어머니는 일본, 지금 나는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미국인도 되고...절대로 농담 아입니다”

“그만! 이제 알겠어요. 아유~! 뭐가 그리 복잡하세요?”

“그래요.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한국사람이라는 것은 10년 전에 알았어요. 그때부터 나는 일본과 한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진짜 내 나라인지 방황했어요. 그러던 중에 와이프가 죽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여자와 결혼을 했고 미국시민이 됐답니다. 복잡하지요?”

신사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 나서,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금 나는 행복해요. 일본사람인 어머니도, 한국사람인 아버지도, 작은 어머니도, 한국의 배다른 형제들도, 다 나를 사랑해요. 나도 그들을 사랑하고요”

복잡해도 정말 복잡하다는 생각에, 선희는 오랜만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선희는 그와 나란히 앉아 계속 이어지는 그의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었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 그것은 한편의 드라마이자, 슬프고도 기구한 그의 가족사였다. 그의 아버지 김씨는 원래 신의주(新義州)에 있는 부잣집의 아들이었는데, 일제시대에 일본의 구주제대(九州帝大) 법과에 유학하여, 4학년이 되던 해에 일본인 처녀와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 그러나 운명의 여신은 그들의 사랑을 질투라도 한 듯, 오래 두지 않았다. 사랑이 한창 무르익어 갈 무렵, 전쟁이 일어나고...그는 사랑하는 여인의 애절한 눈물을 뒤로한 채...학도병으로 끌려가 보르네오 섬으로 가게 된다. 김씨는 그곳에 도착해서 며칠 지나지 않아, 미군에게 붙잡혀 포로가 된다. 전쟁이 끝나고, 김씨는 미군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기다리는 일본으로 가게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결국 한국행 귀환선을 타게 된다. 미군포로가 되기 전, 그는 일본의 여인으로부터 임신 7개월 중이라는 편지를 받았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로부터 온 마지막 편지였기에...그녀가 아들을 낳았는지 딸을 낳았는지는 몰랐지만...일본에 그의 자식이 태어나 살고 있다는 것은 확신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국교가 없어서, 민간인들의 왕래는 금지됐고, 그는 사랑하는 여인과 그의 자식을 찾는 일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당시, 김씨는 신의주에서는 대단한 지주계급이었기에, 언제 숙청될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던 중 6.25전쟁이 일어났고, 김씨는 일본의 구주제대 법과를 다녔다는 학벌과, 일본군 복무경력 덕택으로 인민군 법무장교로 중군하게 된다. 이후, 연합군이 인천상륙작전으로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오자, 그는 한국군에 귀순하여 잠시 포로수용소에 머물다가 석방된 후, 부산에 정착하면서 함경도에서 피난 온 처녀와 결혼하기에 이른다. 김씨와 결혼한 여인은, 인물은 그럭저럭 생겼지만 ‘또순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뚝 소리’가 나는 여자였고 악착같은 여자였다. 그들 부부는 억척같이 일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한 결과, 수년 사이에 엄청난 재산을 모아, 부산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꼽는 거부(巨富)가 되었다.평생을 써도 다 못쓸 만큼 많은 재산에...아들 셋, 딸 둘을 둔 다복한 가정에...세상 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하게 된 김씨였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일본에 있는 여인과 자식이 떠나질 않았다. 김씨의 부인은 남편의 첫 여인과 자식이 일본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일본과의 왕래가 자유로워지자, ‘만일, 일본에 있는 남편의 자식이 남자애라면, 비록 배는 다르지만 엄연한 장남(長男)이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에, “구주(九州)에 가서 당신의 여자와 자식을 찾아보세요. 그들의 형편이 어렵다면, 당신이 도와줘서라도 늦게나마 지아비 노릇을 해야 합니다”며, 하루 바삐 일본에 건너가서 첫사랑의 여인과 자식을 찾아보라고 김씨를 종용했다. 김씨는 이러한 부인의 마음씨가 너무나도 고마웠다. 1983년 당시는 관광비자가 나오지 않던 시절이라서, 김씨는 하는 수 없이 일본의 산업시찰단에 가입한 뒤 동경을 거쳐 일본으로 가기로 했다. “여보! 잘 다녀와요” 잘 다녀오라는 부인의 배웅을 뒤로하고 도쿄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김씨. 40년 만에 일본을 다시 찾는 김씨는 찻찻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첫사랑 게이코(野村敬子)는 아직 살아 있을까?’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을까?’

‘게이코를 찾을 수 있을까?...날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과연 게이코가 내 자식을 낳았을까?’

‘내 자식은 아들일까? 딸일까?’

도쿄를 거쳐 구주에 도착한 ‘가네무라(金村)’

‘과연 게이코를 찾을 수 있을까?’란 우려와는 달리, 김씨는 뜻밖에도 옛 여인인 노무라 게이코(野村敬子)의 집이 있던 구주(九州)의 메이노하마에 가서, 너무나도 쉽게 그녀와 그의 아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김씨의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뜻으로 가네까즈(金一)라고 지어 그녀의 오빠 호적에 입적시키고, 아들이 다섯 살이 될 때까지 김씨를 기다렸으나, 전쟁이 끝났음에도 김씨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자,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열다섯 살이나 연상인 도꾸따(徳田)라는 일본인과 결혼했다고 한다. 남편 도꾸따가 죽은 뒤, 지금까지 게이코는 친정집이 있는 구주(九州)의 메이노하마에서 아들인 가네까즈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인 도꾸따(徳田)는 일제시대에 강제징용을 당하여 탄광으로 끌려 온 조선인 노무자를 감독하면서 조선인들을 심하게 학대했던 사람이었다. 그가 탄광의 조선노무자 감독관으로 있을 당시, 그는 조선인 노무자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으며, 멀리 조선에서 면회 오는 가족이 있으면 반드시 뇌물을 받아 먹고 면회를 시켜줬고, 조선노무자 부인중에 얼굴이 좀 반반한 여자가 있으면 강제로 몸을 요구할 정도로 악랄하고 비열한 인물이었다. 가네까즈의 친아버지가 조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도꾸따는, 가네까즈에게 어릴 때부터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항상 나쁜 말만 들려줬다. 하지만, 재혼한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기에 가네까즈를 친자식처럼 아꼈다고 한다. 어머니 게이코는 아들 가네까즈에게 아버지가 한국사람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재일교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기에, 어린 아들이 일본아이들한테 놀림감이 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될까봐,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아버지는 구주제대 법과에 다니던 가네무라(金村)라는 사람이었는데, 학도병으로 전쟁터에 나가 남양으로 간 뒤로 소식이 없고, 그의 가족들도 나가사끼(長岐)에 떨어진 원폭으로 인해 모두 몰살당했다”라고...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가네까즈(金一)’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완벽한 일본인으로 알고 자랐던 것이다. 가네까즈(金一)는 아버지 김씨를 닮아서인지 머리가 좋았다. 그래서, 당시에 인기학과였던 구주대학 전기공학과를 나오자마자 곧바로 전기회사에 취직했고, 스물네 살에 일본인 여자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가네까즈가 결혼하던 해에 계부인 도꾸따(徳田)는 죽고, 어머니 게이코(敬子)는 그녀의 고향인 메이노하마에서 작은 식당을 경영하며 아들과 같이 살고 있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강제로 헤어졌던 청춘남여가, 환갑을 넘은 인생의 황혼녘에서 재회를 했으니...그 순간의 감격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었겠는가?

“미워요! 왜 이제야 나타났어. 왜!? 흑!흑!”

원망하듯 김씨의 가슴을 치는 게이코(敬子)의 눈에선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내렸다.

“미안해! 게이코. 미안해!...내가 죄인이야!”

게이코의 절규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가네무라(金村)’. 아직도 20대 같은 우윳빛 살결에, 그윽한 노년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게이코(敬子)를 보면서, 김씨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 수밖에 없었다. 40년만의 뜨거운 해후를 가진 두 연인(戀人). 게이코는, 가네무라(金村)가 한국에서 성공해서 잘 살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 한국에 있는 부인의 고운 마음씨도 알았으나, 그런 말들이 게이코를 더욱 슬프게 했다. 차라리 가네무라(金村)가 초라한 모습으로 혼자 살고 있는 상태라면, 그녀는 지금이라도 당장 그와 같이 아들 가네까즈와 함께 일본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계속 흐느끼고만 있는 게이코. 김씨는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었다. 가네무라(金村)는,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게이코는, ‘아들을 만나 돼, 아버지라는 사실은 밝히지 말라’고 부탁했다. 아들이 생부(生父)인 가네무라(金村)를 일본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계부(季父)였던 도꾸따(徳田)가 평소 아들에게 한국사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너무 많이 심어 주었으며, 며느리인 하루에(春枝)조차도 평소 한국인을 멸시하는 터라, 이제 와서 아버지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릴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게이코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았다. 김씨는 게이코와 상의한 끝에, 자신을 ‘아버지의 대학 동기생이자 아버지와 함께 학도병으로 참전한 전우’였다고 속이고,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러 왔다’는 구실로 아들을 만나기로 했다. 가네까즈의 나이는 그때 27세였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김씨는 방에 걸린 사진들을 돌아보며 가족사진 안의 가네까즈가 자신과 복사판일 정도로 너무나 닮았다고 느꼈다. 게이코가 끓여 온 차를 마시는 동안, 회사에서 퇴근한 가네까즈(金一)가 들어왔다. 김씨는,

아들이 방안으로 들어오자 반가움을 애써 감추며 “아버지는 훌륭한 군인이었다” 느니... “죽기 전에 아들을 한번 보고 싶어 했다” 느니... “내 대신 아들을 꼭 한번 찾아봐 달라고 했다” 느니 하면서 아들과 어설픈 상봉을 했으나, 복받쳐 오르는 감정 때문에 얼마 있지 않아서 자리를 털고 일어서야만 했다.

“이제 해 드릴 이야기는 다 해드렸으니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김씨가 작별인사를 고하자, 가네까즈는 어머니 게이코를 조용히 옆방으로 불렀다. 김씨를 처음 본 순간, 자신이 김씨를 속 빼닮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머니! 저분이 제 아버지가 맞지요?”

가네까즈의 갑작스런 물음에, 게이코는 눈물만 흘릴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물어 볼 필요가 없었다.

“아버지~! 아버지~!!!”

그는 막 대문 밖을 나서려는 김씨의 바지를 붙잡고 엎드려 통곡했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고 했던가? 김씨 또한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게이코와 아들을 부둥켜안고 ‘엉엉!’ 소리 내 울기 시작했다. 이 보다 더한 이산가족 상봉이 어디에 있으려! 결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한편의 ‘짱~’ 한 드라마가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김씨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과 같이 한방에서 잠을 잤다. 아버지와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가네까즈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동안 왜? 그의 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를 찾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등등.

이틀 후, 가네까즈는 회사에 장기휴가를 냈다. 그리고 어머니 게이코(敬子)와 아내인 하루에(春枝)를 데리고 부산으로 건너갔다. 아버지의 새 엄마와 그의 이복형제들을 만나니, 한 가족처럼 반갑게 그들을 맞았다. 특히, 피한방을 섞이지 않은 김씨 부인의 행동은 아주 특별했다. 김씨의 부인은 가네까즈(金-)에게 “내 남편의 자식은 곧 내 자식이다. 너는 우리 집안의 장자(長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 며 친자처럼 대했으며, 그의 어머니 게이코(敬子)에게는 “우리의 기구한 운명은 모두 세계사의 큰 흐름이 남긴 양극일 뿐이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한 지아비 밑에서 형님으로 모시며 죽을 때까지 같이 살고 싶습니다” 면서, 게이코를 ‘형님, 형님’ 이라고 부르며 살갑게 대했다. 가네까즈는, 그런 부인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게이코 일행이 부산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고 일본으로 돌아 간 뒤, 김씨는 게이코와 가네까즈에게 매달 2,000만엔의 생활비를 보내 주었다. 그리고 가네까즈에게는 “네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이 못난 애비가 사업자금을 대 줄 테니 언제라도 말해라” 면서 가네까즈의 사업자금까지 대 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가네까즈는 한국을 자주 드나들었다. 그는 빈번한 한국 방문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바꿀 수 있었으며,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의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한국말 또한 제법 유창하게 구사할 정도로 많이 배웠다. 한편, 일본에 대한 감정은 이전보다 조금 나빠졌다.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시절의 탄압과 대동아전쟁 당시에 일본이 한국과 중국 등, 점령국에서 행한 잔인한 전쟁의 실체를 알게 됐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인이 돼버리지도 못했다.

‘진정,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비록, 아버지가 한국인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일본인이며 일본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뿌리에 대한 갈등이 그의 마음을 항상 심란하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 ‘하루에(春枝)’ 가 교통사고를 당해 뱃속의 아들과 함께 죽고 말았다. 슬픔에 괴로워하는 아들을 보다 못한 김씨는 가네까즈에게 미국유학을 권했다. 언젠가? 김씨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괴로워하는 아들에게서 ‘미국에 유학이라고 가고 싶다’ 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에, 제3국인 미국생활을 통해 한일(韓日)양국(兩國)을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완충기간을 가지게 하고, 또한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빨리 헤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아버지의 권유로 미국유학을 떠난 ‘가네까즈’ 그는 김씨가 생각했던 대로 미국생활에 빠르게 정착했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괴로움을 잊고 미국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으며, 즐

업 후에는 클래스 메이트였던 미국인 여자와 결혼도 하고, 작은 사업도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생활이 길어지면서, 자신과 미국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현격한 사고방식의 차이와 문화적 갈등을 심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뚝기 힘든 철의 장벽이었다. 그는 전기기술자로서 기술력이 앞선 미국을 동경한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자로서의 동경이었지...인간적으로는 뿌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한 그는, 미국여자와 이혼하고 한국으로 건너와 지내는 중이었다.

“휴~!”

참으로 오랜만에, 슬프고도 복잡한 이 남자의 소설 같은 얘기를 듣고 난 선희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문득, 언젠가 이정호 교수가 강의시간에 말한 얘기가 떠올랐다.

‘역사에는 양금이라는 것이 오래 남는다. 6.25전쟁이 일어 난지 오래고, 남과 북 사이엔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다지만, 아직도 한을 품은 6.25전쟁의 미망인과 유복자(遺腹子)들이 많이 있다. 일제가 가고 해방 된지도 어언 반세기가 됐건만, 그 상처는 곳곳에 뿌리 깊게 숨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들은 이러한 양금을 달래고 풀어 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고 떠벌리며, 신시대의 도래가 마치 자기네들의 공인 양, 전시효과만 노리고 있으니 참으로 암담하다’

선희는 가네까즈와 함께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다음에 꼭 다시 만나기로 하며 서로 휴대폰 번호를 주고받은 뒤 헤어졌다. 선희는 집으로 향하며 혼자서 중얼거렸다.

‘하필이면, 이 순간에 이정호의 이름이 떠오르게 뭐야?’

‘나 혼자 기다리면 뭐해? 게이꼬와 같이 나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이나 확~가버려?’

‘그러나 갈 때 가더라도 욕이라도 해주고 가야지. 이대로 물러나면 너무 억울해!’

다음날 아침10시.

지난번에 통화한 전무실 여비서에 의하면, 지금쯤 이 교수는 한국에 도착해 있을 시간이었다. 선희는, 단단히 걱정하고 정호에게 전화를 했다.

“저라여!”

방금 공항에 내린 정호는, 안 그래도 선희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던 중이었는데, 시무룩한 말투가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아무튼...선희의 목소리를 듣자 너무나 반가웠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전화가 없었어?”

“.....???”

“별일 없었어?”

“.....”

정호의 말투로 보아선, 모르긴 해도 정호가 자기의 전화를 무척 기다렸다고 생각한 선희는 너무나 뜻밖이라서 얼른 말을 꺼내지 못했다.

“왜 그래? 어디 아프기라도 한거니?”

“전화...했어라!”

“언제? 경주에서 헤어진 후 며칠동안 전화 한통 없었으면서...”

“그때는...교수님과 헤어지고 난 뒤...너무 무리해서...며칠간 꿈쩍달짝 못했지라!”

“그리고...또...했는데...”

“하긴 뭘 해? 내가 미국가고 난 뒤에?”

선희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처럼 감을 잡을 수 없었다.

“.....”

“선희야! 아무튼 빨리 보고 싶어”

순간적으로 뭔가 꼬여도 단단히 꼬였음을 직감한 선희는, ‘멀쩡한 교수님을 두고...괜히...나 혼자 미워하며...원망한 것은 아닌지?’ 후회가 됐다.

“.....”

“나는 서울...선희는 부산이니까...우리 경주에서 만나자. 응?”

“그럼...언제 만나요?”

“모레가 토요일이니까...대전 본사로 출근했다가...간부회의만 하고 바로 출발하면... 12시경에는 경주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어때? 그 시간에 올 수 있겠어?”

“그래요. 그럼”

하여튼, 정호는 그렇게 명랑하던 선희가 왠지 모르게 많이 변했다는 느낌을 받았고, 선희 또한 정호가 틀림없이 자기를 기다렸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가 빨리 만나서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 제11장 - ‘분홍빛 교실’

토요일, 경주.

선희는 별로 할 일도 없고 해서 약속시간 보다 일찍 경주에 도착했다. 혼자 반월성에 올라가, 이 교수와 함께 앉았던 자리에 앉아 이 교수와 가졌던 뜨거운 정사신을 떠올리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11시 45분 도착 대전발(發) 직행버스가 터미널 주차장으로 들어서자, 선희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내리는 사람들을 일일이 살폈다. 그 때 곤색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맨 이 교수의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다. 버스에서 내린 정호를 보며, 선희는 속으로는 반가웠지만 일부러 탄전을 피웠다.

“나...배고파요”

‘만나는 인사가 “나 배고파요” 라니’ ...정호는 참으로 황당했다.

“그래? 보문단지 안의 롯데호텔 레스토랑이 괜찮은데 그리로 갈까?”

롯데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정호가 따지듯 물었다.

“정말 전화를 하긴 한거야?”

선희는 다소 신경질적으로 정호의 말을 받았다.

“글쎄, 했다니깐?”

“언제?”

“경주 왔다 간 일주일쯤 뒤인 화요일11경예요. 수없이 전화를 때렸지만 안받던데?”

“그때는 당연히 전화 받을 수가 없지. 미국행 비행기 안에 있었으니까”

“놀구 계시세요! 미국은 그렇게 아무 때나 가고 싶으면 가나보지? 한달씩이나...흥!”

“그런 게 아니고...회사의 사황이 걸린 중요한 문제가 생겨서...”

“날 만났을 땐 전혀 계획이 없었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건가?”

“진짜야! 갑자기 선네고 건으로 하마터면 사장이 구속될 뻔했고, 옆친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최대 바이어한테 클레임까지 걸려서 부도일보 직전까지 갔어. 정말이야”

“흥! 미국을 앞집 드나들 듯 하시니...잘났네요. 잘났어!”

선희는 일부러 정호를 약 올리기라도 하듯이 계속 빈정거렸다.

“그게 야전사령관의 임무니까...적군은 항상 예고 없이 나타나잖아”

선희는 정호의 말을 들으면서 그가 절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었다. 완전히 기가 죽어있는 정호를 보면서 ‘내가 교수님께 너무 하는 것 아냐?’ 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이상할 것 같아서 조금 더 냉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알았어요. 됐네요...됐어! 그만 하셈!”

선희는 잔뜩 토라진 모습으로 차창 밖을 쳐다보고 있었다. 택시 기사가 뺨미러를 통해 이상하다는 듯이 자꾸 쳐다보는 것이 마음에 걸린 정호는, 은근슬쩍 선희의 귀에 입술을 갖다대고 나직이 속삭였다.

“기사는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나요?”

“왜...신경이 쓰이나보죠?”

‘선희가 경주에서 헤어지 후 약 일주일 동안 정호에게 전화하지 않은 것은 몸이 아파서였는데, 내가 자주 전화를 해 위로해 주지는 못할망정...전화 한통 하지 않고 원망만 했으니...난 역시 연애초짜야!’ ...정호는 선희에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한편, 정호는 선희가 수없이 전화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선희의 말속에서, 변심한 것도 싫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야~! 코스모스가 정말 곱게 피었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우리 선희가 연락을 끊었을까?’ 고민했는데, 이제 오해가 다 풀리고 나니 코스모스가 더더욱 곱게 보이네?”

정호는 선희의 물음에 모른 척 탄침을 피우며 슬며시 선희의 손을 잡아갔다. 선희는 정호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정호의 손을 당겨 그녀의 조개돈덕위에 살포시 포갠다. 이어지는 선희의 속삭임.

“오빠...이번만 용서해 주는 거야...알았쨌?”

레스토랑은 한가로웠다. 호수가 흰히 보이는 창가에 자리를 잡은 정호는, 선네고 사건이 터져서 사장이 구속 직전까지 갔으나 세관장과 담판 끝에 겨우 해결한 일이며, 거물급 미국 바이어로부터 클레임을 받아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했으나, 미국으로 건너 가 아주 좋은 협상결과를 얻은 일이며, 그동안 일어났던 일의 자초지종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선희는 정호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서야 모든 오해가 완전히 풀렸다.

“교수님은 역시 야전사령관이 맞네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오해를...”

“아니야! 충분히 오해할 만도 했어. 그러나 난 나대로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 ‘역시 나는 선희에겐 어울리지 않는 남자인가?’ 라고 생각하며...”

“오빠...오빠 기분 충분히 알아요. 이제 그 말은 그만하기로 해요. 알았죠?”

선희는 정호의 말을 중간에 자르며 말을 막았다. 이제 모든 오해가 다 풀렸으니 여기서 멈추자는 것이다. 선희는 역시 보기보다도 선이 굵은 여자였다.

“선희야! 그래도 이것만은 말하고 싶어. 그리워하는 정이...원망하는 마음보다 강하더라는 것, 반드시 예전처럼 만나게 해 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면서 선물을 샀어”

정호는 미국에서 사온 선물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선희가 포장지를 풀자 화려한 빛깔의 대리석이 나왔다.

“와! 예쁘다. 무늬가 복잡하면서 너무 아름다워요”

“이건 그랜드케니온의 명물인데, 만약 선희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았다면, 아마도 이 무늬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을 거야”

“.....”

잠시 아무 말 없이 잔잔한 눈빛으로 호수를 응시하던 선희가 입을 열었다.

“그런데 말이지라. 그 말이 좀 이상하네요?”

“뭐가?”

“아까 선네고 이야기할 때 ‘민족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는 말이나, ‘내가 잘 되기 위해선 민족이 잘 돼야 한다’ 는 말은,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왜 다르다고 했죠?”

너무나 뜻밖의 질문에 정호는 잠시 당황했다. 선희가 ‘나도 교수님처럼 마음이 심란했다’ 고 하든가, ‘난 절대로 일회용이 아니다’ 고 할 줄 알았는데, 선희의 입에서 엉뚱한 질문이 나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글썸다. 어쩐지 설명하기가 쪼까 그러네?”

“왜요? 어려워요?”

“그동안 내가 선희를 만나면서 쟈루 어려웠던 게 뭔지 알아?”

“뭔데요?”

“난 역시 여자를 다룰 줄 몰랐다는 것과, 데이트 방법이 서툴렀다는 거야. 선희랑 얼마든지 재미있고 신나는 일을 보낼 수 있었는데, 긴 시간을 허비해 ‘정치가 어떠니~’ ‘문화가 어떠니~’ 하면서, 따분한 강의만 했다는 게 후회 돼. 난 잘 알아. 운전하는 사람보다 옆에 타고 있는 사람이 더 지겹듯이, 강의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피곤하다는 것을 말이야. 그 힘든 일을 네게 억지로 강요했으니 네가 날 보고 싶어지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 이젠 강의 같은 건 하지 않을래. 어디 영화를 보러 가든지, 동해바다로 드라이브를 떠나든지 하자구. 아니면...”

아니면...해외로 밀월여행이라도 떠나자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다.

“교수님! 아니...오빠! 실전강의도 많이 했잖아요? 새삼스레 원말이당가요? ㅎㅎ”

“아니...내말은...에로틱한 사랑도 좋지만...좀더...아가페적인 사랑을...”

“오빠는 아직 날 몰라요. 하긴 나도 아직 나를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난... ‘사랑이다, 뭐다’ 하며...고리타분한 격식 따위 찾는데 젤 싫어요. 오빠가 그냥 좋고...오빠와의 사랑...아무런 격식 없는...자연스런 원초적 본능만 갈구할 뿐이예요 “

“.....”

“이 세상엔 위선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최종 목적지는 한군데면서 ‘영화를 보네’ ‘드라이브를 하네’ 오만가지 예행연습을 하는 꼴이라니, 넘 웃기는 이야기 아니예요? 난 오빠와 만나서, 이런 위선의 탈을 훌훌 벗고 진한 참사랑을 맛본 걸요?”

“.....”

“사랑은 무엇인가에 따라오는 자연적인 것이라야 하는데,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데이트’ 같은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난 오빠의 강의를 듣는 것이 더 좋아요. 솔직히 말해, 오빠가 아닌 여자교수님께 강의를 들었다면 싫었겠지요. 난 오빠 품에 안겨 강의를 들을 때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문제의 핵심을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그때그때마다 오빠가 해주는 실천연애강의는 최고의 명강의고요. ㅎㅎ”

“.....”

정호는 갑자기 어른스러워진 선희를 보고 다소 놀랐다.

“아이~ 이 와인 꽤 취하네요? 오빠! 우리 밖으로 나가요. 나의 교수님! 저~기! 코스모스와 역새풀이 아름다운 강의실로 가볼까요? 아마도, 저렇게 아름다운 강의실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 나... ‘윤선희’ 외에는 아무도 가져보지 못할 거예요”

“흠~... ‘코스모스와 역새풀이 아름다운 강의실’ 이라...이거 정말 시적인데? 난 그 말에 너무 취해서 제대로 강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럼 나한테 매를 맞아야죠!”

선희는 정호를 배시시 쳐다보며 양증맞은 손을 정호의 왕침을 향해 내밀면서 매질하는 시늉을 했다. 오랜만에 선희의 까부는 모습을 본 정호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학생이 교수를 때리는 법도 있냐?”

“왜 없어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교실이거든? 거기에선 내가...여왕!”

선희는 그렇게 말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저 교실의 주인은 선희라 이거지? 좋아! 어디한번 여왕님의 매를 맞으러 가볼까?”

호수가 바라보이는 약간 높은 언덕빼기.

늪은 소나무 몇 그루가 드문드문 서있고, 주위엔 이제 갓 곱게 피기 시작한 역새풀과 분홍빛에 곱게 물든 코스모스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다.

“아~ 내 교실!”

선희가 감탄사를 지르며 먼저 누웠다. 정호도 뒤질세라 그녀의 조개둔덕을 배게 삼아 벌렁 누워 버렸다. 푸른 가을하늘을 배경으로 기다란 소나무 가지가 보이고, 주위엔 온통 코스모스와 역새풀로 둘러싸인 아늑하고 멋진 교실이었다.

“아~! 너무 좋다. 우리 여왕님한테 맞으면 맞았지, 도저히 강의는 못하겠는 걸?”

정호는 선희의 조개둔덕에 머리를 누인 채 눈을 감아버렸다. 눈을 감고 나니, 온 천지가 분홍빛으로 보였다.

“선희야! 눈을 감아 봐! 온 천지가 분홍빛이야”

정호의 말에 따라 선희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정말이네? 모두가 분홍빛으로 보이네?”

정호와 선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소리쳤다.

“이 교실은 이제... ‘분홍빛 교실’ 이다!”

정호의 머리가 조개둔덕을 눌러오자, 그녀는 밀려드는 흥분을 참을 수 없었다. 갑자기 거꾸로 ‘69자세’ 를 하고서는, 그녀의 작은 입안에 정호의 왕침을 가져갔다. 조갯살을 빠져나온 그녀의 애액이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리고...정호가 그녀의 흐르는 애액을 정성스레 핥기 시작하자, 교실은 점점 더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선희가 정호의 왕침을 종(鐘)치듯이 때리며 일어났다.

“강의 시작!”

선희는 정호의 왼손을 그녀의 젖가슴에 안고, 오른손은 그녀의 왼손과 함께 조개둔덕위에 놓고, 그녀의 오른손으로 정호의 왕침을 잡고 고개를 정호의 어깨에 기댔다.

“교수님! 이것이 바로 분홍빛 교실의 정자세예요. 알았죠? ㅋㅋ”

정호는 그런 선희가 사랑스러운지 볼에 가볍게 키스하고는 곧장 강의에 들어갔다.

“먼저, 공동체(共同體)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우선 공동체라는 뜻을 확실히 알아야 돼. ‘다 같이 살고 있으니 공동체가겠지’ 하는 정도로는 안 되는 거야. 이것 역시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해. 첫째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둘째는,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관계가...조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셋째는, 여러 사람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 각자가 마음대로 할 자유가 없어야 한다는 거야”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먹물깨나 먹은 이들은 특하면 공동체를 들먹이지만, 이중 하나의 조건밖에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공동체란 말이야”

“그 하나의 조건은 뭔데요?”

“그것은 바로...애국, 애족, 민주화, 통일, 평화 등, 공동의 목표지. 어느 누구도 민족을 미워하거나 전쟁을 바라진 않으니까...그렇지?, 그러나 이해관계는 전혀 조정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는 거야”

“각계각층이 자기네들만의 이익을 챙기기 때문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특히 상류층으로 갈수록 심해. 정치가들은 국민 전체를 생각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늘 입으로만 좋은 말을 하면서 행동은 당리당락과 사리사욕에 치우쳐 있던 말이야. 또한, 국민들에게는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 고 하면서, 자신들은 온갖 치사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무자비하게 힘으로 밀어붙이기도 하고 있으니, 문제가 많은 게지”

“그리고 보니, 공동체의 조건과 지도자의 조건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 바로 그것이야. 지도자는 공동체에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곧 공동체인 게야. 그것을 그렇게 쉽게 알아채다니 오늘따라 우리 선희가 너무나 예쁜 걸?”

선희는 정호의 칭찬에 날아갈듯 기분이 좋았다. 정호의 왕침을 잡은 손에 살짝 힘을 가하면서 물었다.

“정말로 예뻐? 거짓말이지?...채!”

“헉!”

갑작스런 비명에, 코스모스 꽃잎에 앉아있던 고추잠자리 한마리가 놀라 날아갔다. 정호는 약간 아팠지만, 오히려 기분은 더 좋았다. 정호의 강의가 계속 이어졌다.

“그러니까 말이야. 철대가리들이 ‘국가와 민족이 잘 돼야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으니 국가와 민족에 충성하라’ 고 하는 것은, 순전히 밀어붙이기 위해서 연막을 치는 것이란 게지. 참된 공동체가 되려면, ‘나의 이익을 위하여 너와 내가 힘을 합하고 그것이 우리로 확산돼서 민족의 번영으로 승화돼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 그런데, 우선 국가와 민족이 잘돼야 한다고 하니, 사람들은 ‘어차피 나 하나의 힘만으로는 별 수 없다’ 고 생각해 소극적 존재가 되고 마는 게야. 똑 같은 말인 것 같지만, 하나는 생각의 시발점과 중심이 국가와 민족에 있고, 다른 하나는 나 자신에 있다는 거지”

“알듯하네요. ‘나를 위해서 나와 네가 힘을 합하고, 그것이 우리로 확산된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지난번 선네고 건이 터졌을 때, 만일 세관공무원(稅關公務員)이 ‘내가 잘살기 위해서는 수출을 많이 해서 국가가 부자가 돼야 한다’ 는 생각이 앞섰다면 협조를 했겠지. 그러나 ‘국가가 잘되면 나도 잘된다’ 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선네고와 같은 ‘위법행위만 막고 있으면 된다’ 는 소극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더 확실하게 알려면 좀더 강의를 해야 하는데?”

“그럼, 더 확실하게 해줘요. ㅋㅋ”

정호는 말을 하면서도 선희의 조개둔덕을 계속 쓰다듬고 있었고, 선희 또한 정호의 왕침을 잡고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조금 빠르게~’ 펴뜨질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정호의 왕침을 조개둔덕 사이로 밀어 넣었다.

“으...음~ 교수...니...임! 빨리...확실하게 더...하라니까요?”

“으...응...알았어”

달덩이 같은 그녀의 엉덩짝이 우뚝 솟은 정호의 왕침을 향해 설새없이 펴뜨질을 해대는 가운데 정호의 강의를 이어졌다.

“고위층 인사들이 하고 있는 말 중에는 틀린 말들이 많은데, 그 중의 하나가 ‘우리는 개인주의가 발달돼서는 안 된다’ 는 말이야”

“그...말...이...틀리나요?”

선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당연하지. 틀리고 말고. 이는 터무니없이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니까... ‘맞는 말’ 이 돼 버리고 만 거야. 이는, 마치 ‘뿔을 둘 가진 정상적인 소’ 가 ‘뿔이 하나 밖에 달리지 않은 기형적인 소’ 들 속에 들어가면 ‘병신 소’ 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지”

“이상하다? 저는 개인주의 때문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요?”

펼뜨질을 멈춘 선희가 제법 차분하게 물어왔다.

“선희야! 잘 한번 생각해봐! 너는 한국인과 미국인 중에 어느 쪽이 더 개인주의가 발달되었다고 생각해?”

“그야...당연히 미국이죠”

“그치? 그렇다면, 미국의 민주주의(民主主義)가 우리보다 더 잘못돼야 하지 않겠어? 한국인은 개인주의(個人主義)가 발달해서 민주주의가

잘 안된다고 하니, 우리보다 개인주의가 더 발달된 미국은 우리보다 더 안 돼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지”

“그러네요. 그런데도 미국의 민주주의가 더 발달돼 있는 건 왜일까요?”

“여왕마마!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폐하~! ㅋㅋ”

정호가 선희의 젓가슴에 돌아 오른 앵두를 살짝 깨물자, 그녀는 절로 까무러친다.

“흑!”

할~ 분홍빛 교실에서만 볼 수 있는 참 묘한 풍경이다. 정호의 강의가 이어졌다.

“우선, 역사지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 중세에는 모든 정당성을 ‘신의 뜻’, ‘높고 힘 있는 사람의 뜻’, ‘전통(傳統)’, ‘형식(型式)’, 같은 것에서 구하는... 이른바, ‘권위주의적(權威主義的)’, ‘전체주의적(全體主義的)’, 사회였던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이 진리고’, ‘국왕(國王)의 말이니까 정당하고’, ‘유명한 학자(學者)의 말이니까 옳다’, 는 식이었던 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개인(個人)은 그 속에 묻혀버린 거지”

“하느님, 국왕, 전통 같은 큰 틀 속에 말이죠?”

“그래! 그러나 근세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지”

“권위와 전통에서 탈피하자는?”

“그렇지. 그래서 신(神) 본위가 아닌 인간(人間) 본위로 생각해봐서, 합리적인 것이 옳다고 한거야”

“ ‘신’ 본위의 권위주의에서, ‘인간’ 본위의 합리주의로 바뀐 거군요”

“그렇지. 그래서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단, ‘인간 각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 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때 나온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사회계약사상(社會契約思想)’ 이었어”

“ ‘사회계약설’ 은 알고 있지만, ‘사회계약사상’ 이라는 건 생소한데요?”

“요지를 정리해 보면 쉬운 말로 이런 거야”

“인간(人間)을, 나라도 정부도 없는 자연 상태에 방치해 놓으면, 서로 싸워서 신체와 재산이 피해를 입게 되니까, 각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질서를 유지하고 지켜야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모두의 약속(約束)으로, 정부를 만들어 질서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 는 사상이야”

“그러고 보니, 예전에 ‘토마스 홉스’ 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이란 걸 배울 때 들은 것 같은데, 다시 정리해보니 새삼스럽네요”

“선희의 기억이 보통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상은, 각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질서를 지키려한, 개인주의(個人主義)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명심하라구”

“알겠어요”

“이후, 민주주의가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질서를 아주 잘 지키게 되니까, 외관상(外觀上) 공중도덕(公衆道德)이 확립된 것으로 보이고, 민주주의가 곧 전체주의인 것처럼 보이게 된 거야. 이 단계에서 민주주의를 수입했던 우리는, 민주주의가 곧 ‘개인주의를 배척해야 되는 것’ 으로 착각하고 말았던 거야”

“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질서를 지킨 건데, 공중도덕을 지킨 걸로 보였다는군요”

“그래. 이것은 마치 운동장을 빙글빙글 도는 경주에서, 일등이 너무 잘 달리면 나중엔 꼴찌와 나란히 달리게 되는데, 출발 당시를 잘 모르는 사람은 꼴찌를 일등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발달된 개인주의’ 를 ‘전체주의’ 로 착각하고 만 거지”

“즉, 교수님 말씀은...민주주의는 개인주의에서 출발해서 전체주의와 종이 한 장 차

이가 됐다는 거군요”

“그렇지. 또한 개인주의에서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민주주의인 거야. 고위층 양반들, 심지어는 이 나라 대통령까지 나서서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버려라’ 는 말을 예사로 하고 있는데, 이는 곧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 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게야”

“그렇겠군요”

“그렇기에,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이기주의를 버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노동조합(勞動組合)은 집단이기주의(集團利己主義)의 산물(産物)이자, 민주주의가 낳은 좋은 제도 중의 하나야. ‘집단이기주의를 버려라’ 고 하는 것은, 곧 ‘노동조합을 버려라’ 는 말과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대통령까지 나서서 ‘집단이기주의를 버려라’ 고 할 정도이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던 말이지”

“큰 착각에 빠진 게 아니고...큰 무식에 빠졌다고 해야 맞겠는데요? ㅋㅋ”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해석하면 곤란하지”

“교수님! 근데 ‘개인주의를 버려라’ 고 할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하죠?”

“그것은, ‘우리는 멀리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함부로 행동하는 질 낮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더욱 발달되고 세련돼서, 진정으로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를 깊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젠 알 것 같네. 근데,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분도 개인주의를 버리라고 하는데?”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성직자는 당연히 개인주의를 버리라고 해야지. 왜냐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희생시킨 것이 예수이고, 성직자들은 그의 제자니까. 그러나 정치가들은 그런 소릴 하면 안돼는 거야. 정치가는 개인들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그들의 이익추구에 질서를 부여해야 할 사람들이니까”

“조정이 잘 안된다고 ‘개인주의를 버려라’ 는 것은, 억지도 보통 억지가 아니군요”

“나부터라도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버려라’고 한다면,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달라’ 고 외칠 텐데? 난, 정신적.육체적인 이익이든, 물질적인 이익이든, 나의 이익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구”

“과연 그럴까요?”

“가령 말이야. 나는 선회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다 날 위한 거지...널 위한 것이 아니야. 선회가 없이는 내가 못 견디겠고 괴로우니까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인 게지, 그러니까 결국 널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게야. 네겐 정말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진실이야”

선회는 갑자기 빈정대며 정호의 말을 받았다.

“체~! 정말 괴로움을 느끼긴 했는지 몰라~”

“정말이야. 머리 미국에서 한 달이나 있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다는 외로움에 그랜드 캐논 절벽에서 확~ 떨어져 죽고 싶은 정도로 괴로웠어”

“새빨간 거짓말...하지만, 서방님 정성을 봐서 이번 한번만 믿어주기로 하지. ㅋㅋ”

“거짓말 아니야! 암튼, 진도가 무척 많이 나갔네? 알고 속아주는 것도 선회의 세련된 개인주의지. 굳이 따지고 들면 피곤해지고 너만 손해 보는 것 아니겠어? ㅎㅎ 정호는 선회가 자신을 ‘서방님’ 이라고 부르자 기분이 묘했다. 선회가 또 다시 슬그머니 손을 뺐어 정호의 왕침을 잡아왔다.

“여보...! 그럼, 서방님 말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해볼까요?”

정호도 이젠 대놓고 ‘여보’ ‘서방님’ 이라고 부른다. 헐~

“ㅎㅎ 하긴 뭘 하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선회의 손놀림은 더욱 빨라졌다. 도통한 그녀의 조갯살이 정호의 왕침을 삼킨 채, 딱 물고 놔줄 줄을 몰랐다. 선회가 허리를 한껏 구부리고 달덩이 같은 엉덩짝으로 펌프질을 시작하자, 정호의 핏발 선 왕침도 그녀의 펌프질에 맞춰 조개둔덕을 향해 부드럽게 방아를 찌어갔다.

“으...으...으”

“오메...좋은 거...오빠...나...의!”

순간,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는 괴성.

“아...으...흑!”

포식의 나른함인가? 정호는 선희의 발정 난 앵두를 입술로 살짝 깨물며 나직이 속삭였다.

“여보...좋았어?”

“응응! 수고했어 서방님...이건 써비스야~ ㅎㅎ”

선희는 정호의 왕침을 살짝 입에 넣고선 힘껏 한번 빨아 당겼다.

“흑!”

정호는 그녀에게 자신이 혼자 몸이라는 사실을 알려줄까도 생각했지만, 선희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면서 고백하기가 더 싫어졌다. 지금 자신이 독신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해 버린다면, 선희는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자신과 결혼하자고 조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선희야! 우리 지금 부산으로 갈까? 오늘밤 부산에서 같이 자고...응?”

“아이~ 신난다. 그럼 대구에 안가도 돼?”

“응”

“정말이지?”

“자꾸 따지고 들면 손해라고 했지?”

“역시 우리 서방님이 최고야!”

부산행 고속버스. 두 사람은 맨 뒷좌석에 앉아, 남들이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꼭 껴안고 있었다. 요즘엔 공공장소에서 이 보다 더한 청춘남 여의 스킨십을 종종 본다. 정호도 한때, 캠퍼스 안에서 정도가 지나친 학생들을 보고 나무란 적도 있었지만, 오늘은 정호 자신이 그 꼴이 돼 버렸다. 다행히도 뒤쪽엔 빈자리가 많았고 승객들은 모두 앞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는 않았다. 정호의 품에 안겨 차창 밖을 바라보고 있던 선희가 갑자기 영똥한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보니, 우리에게 리더십이 부족하거나 공동체意識이 부족한 게, 모두 다 개인주의가 미숙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분홍빛 교실에서 못다 한 질문이었다. 정호는 귀여워죽겠다는 표정으로 선희의 콧볼을 살짝 깨물었다.

“바로 그거야. 그걸 서로 연관시키다니... 질투가 나서 죽겠는데?”

“질투라니요?”

“선희는 나보다는 강의에 더 관심이 있잖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 오빠에겐 관심 정도가 아니잖. ㅋㅋ”

“그런가? ㅎㅎ”

선희는 잠시 쉬었던 손으로 정호의 왕침을 또다시 짝 쥐었다.

“으헷!”

정호의 입에서 묘한 신음이 터져 나왔다. 정호의 강의가 이어졌다.

“철대거리들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아(自我)에 눈뜨지 못하게 술단지애 가두어 놓고선, ‘국가네~’ ‘민족이네~’ ‘민주화네~’ ‘반공이네~’ ‘통일이네~’ ‘도덕성확립이네~’ 하는, 추상적인 술뚜껑으로 국민을 덮어버리는 거야. 국민들 입장에선 ‘국가와 민족을 위하라’ 는데 차마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고, 그들 말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자니 별로 할 일이 없고, 그러다보니...그냥...적당히 눈치나 보면서...눈앞의 이익이나 챙기려 드는 거야”

“결국,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나 같은 말이라 이거네요”

“그렇지. 일직선상에 있는 같은 원리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좀 더 인간답게’ ‘좀 더 현명하게’ ‘좀 더 약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정말로 약은 사람들만 모인다면, 저절로...질서도 서구...도덕도 확립되구...안정도 되구 하는 거야. 알겠어?”

“네! 알겠어요.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약게 살기보단 저돌적으로 산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쁜 줄 알면서도 마구 치닫는...”

“초기민주주의시대의 대표적 경제학자였던 아담 스미스는 ‘경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조정되니까, 정부는 국민의 활동에 너무 깊이 간여하지 말아야 된다’ 고 했지”

“그랬죠”

“선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손’ 이 뭔지 알아?”

“글쎄요...뭘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이기심’ 인 거야. 이기심이 강하고 약은 사람들은, ‘물건값이 오르면 안사고’,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값이 내리고’, ‘값이 내리면 잘 사고’, ‘값이 내려 잘 팔리면 또 값이 올라가고’ 를 반복하면서 자연히 가격이 조정되기 마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수요공급의 법칙’ 이라고 했지. 지금도 개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선 소비자들 값이 오르면 잘 사지를 얹아. 특히, 요즘엔 대체상품이 많아서 대게 그리고 가버리고 말아. ‘소고기 값이 오르면 돼지고기로 가버리고’, ‘돼지고기 값이 오르면 닭고기로 가버린다’ 는 식이야. 이렇다 보니, 업자들이 함부로 값을 올리지 못하는 거야. 좀 오래된 일이지만, 한때...영국에서 부당하게 버스요금을 올리자, 대학생들이 세 코스 이하의 단거리는 버스를 타지 않기로 하고, 더불어 일반인들까지 이에 동조하고 나오자 다시 요금을 내리고 말았던 일이 있었지. 그러나 개인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후진국의 소비자들을 보면, 오히려 물건값이 올라가면 더 덤비고 사재기를 한단 말이야”

“우리가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요? 참 용감한 국민들이죠”

“그렇지. 조기 값이 오르면 고등어로 제사를 지내도 되는데, 기어코 조기를 사겠다고 덤비지. 그래서 우리나라 업자들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농간을 부리기가 쉬운 거야. 매점매석을 해도 공무원들이 눈감아주지를 않나, 더구나 각종 마스크에서 바람까지 잡아주니, 한마디로 말해 ‘왔다!’ 지 뭐야?”

“조상을 모시는 제사상에 놓일 조기가 불티나게 팔리는 것이, 마치 조상을 숭배하는 민족정신의 발휘라도 되는 듯이 떠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마스크의 현 수준이야”

“사실...마스크의 미사여구(美辭麗句)에 대중이 많이 현혹되는 것 같아요”

“북한의 공작이 먹혀들기도 쉽지. 개인적으로는 손해가 되는데도, ‘민주(民主)다’ ‘민족(民族)이다’ ‘자주(自主)다’ 하면서, 조금만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면 정신없이 덤비지.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수입된지도 어언 반세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인주의(個人主義)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미사여구(美辭麗句)에 현혹되고 있을 정도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야”

“우리가 어쩌다 이지경이 됐을까요?”

“원인은 많지. 그러나 원인만 따지고 있으면 뭘해? 알면...바로잡고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한데...그러기위해선...우리의 학문(學文)과 교육(教育)이 너무 뒤쳐져 있는 거야. 특히 인문사회학(人文社會學)이...그나마 자연과학은 산업계에 앞서 달리고 있어 큰 문제가 없으나 인문사회학은 오만과 나태와 부정으로 얼룩져 있는 게 현실이야”

“자연과학(自然科學)과 인문사회학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물론이지. 현대는 한마디로 과학시대(科學時代)야. 과학이 발달해야 잘살게 되지.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정치가 잘돼야 하고, 정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학이 발달돼야 하는 거야”

“저번에 교수님이 ‘김성도라는 고려대 교수가 조선일보에 쓴 논설에서 우리의 인문사회학은 80년대 수준도 못 된다’ 고 했었죠?”

“말할 수 없이 뒤졌지. 김성도 교수는 80년대 수준이라고 했지만 내가 보기엔 70년대 수준이야. 그래도 2~30년 전의 시험답안지에는 대학생 답다는 문장이 더러 있었지만, 요즘 학생들의 답안을 보면 너무 유치해서 부끄러워 읽지 못할 지경이야”

“저는 예사로 생각했는데...정말 심각하네요. 왜 그렇게 뒤졌을까요?”

“무엇보다도 인문사회학(人文社會學)이 발달될 수 있는 언어체계가 무너지고 있으니 그게 큰일이야”

“언어체계가 무너지다니...그건 또 뭘 소리죠?”

“한글이 세계최고의 표음문자(表音文字)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어”

“ ‘뉴욕타임즈’ 나 ‘월스트리트저널’ 같은데서 극찬한 적도 있었죠”

“맞아. 그리고 한글을 극찬한 학자들도 많아. 세계최고의 표음문자(表音文字)인 한글과 세계최고의 표의문자(表意文字)인 한문을 혼용해서 쓰면, 우리의 언어체계는 단연코 세계제일이 되는 거지”

“그렇겠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20여년전부터 철저한 한글전용이 돼버리고 말았지. 게다가 일본어는 민족감정을 내세워 배척하고, 영어와 같은 서구어(西歐語)는 우리의 인문사회학에는 부적합하다고 멀리하고 있으니, 자연히 읽을 책도 적어지구...연구의 시야도 좁아져...시쳇말로...무식(無識)이 쌓이는 거야. 오직하면 ‘모자이크형 학자’ 투성이라고 하겠어?”

“모자이크형 학자? ㅋㅋㅋ”

“읽을 책이 한글로 된 책뿐이니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못하고, 신문과 잡지에서 본 이것저것을 모자이크한 것을 갖고, 마치 큰학설이나 되는 듯이 떠버린다는 뜻이야”

“맞아요! 저도 그런 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요즘 한창 유명세를 타고 있는 모 교수님이 작년에 발표한 글을 보면, 어쩐지 깊이가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말재주에 불과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학문적인 깊이가 정도가 아니라 잔재주꾼이지. 이른바 일언거사(一言居士)라는 게지”

“일언거사?”

“그래 일언거사(一言居士),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된 말재주를 가진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이지. 예를 들어, 혼자서 창(槍)과 방패(防牌) 두 가지를 팔면서, 창(槍)을 팔 때는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다 뚫어 버립니다’ 면서 팔고, 방패(防牌)를 팔 때는 ‘이 방패를 뚫어 낼 창은 없습니다’ 면서 파는 사람의 경우지”

“미국에 가서는 열렬한 친미주의자인 것처럼 행동하고서도, 국내에 들어와 친북단체 앞에 서서는 반미주의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군요”

“역시 우리 선회는 센스가 빠른 걸?”

“피~! 말로만 칭찬하면 학칙위반 인디?”

“그런가?”

정호는 선회의 불에 가벼운 입맞춤을 하고 나서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정치 사회적 문제를 고등상식 썸으로 생각하고, 아무나 시켜주기만 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매스컴의 발달로 정치를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긴 하지만, 한국사람은 특히 심한 편이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요? ‘내가 해도 이보다는 잘 할 텐데...’ 라는 생각을요”

“가령, 선거 때 투표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유권자들은 ‘과연 저 후보가 정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라는 생각보다도, 그냥 ‘인기 있는 사람’ ‘많이 알려진 사람’ ‘많이 알려진 정당의 사람’ 을 선심 쓰듯이 찍어주거든? 그래서 배우나 가수, 아나운서 같은 사람들이 잘 당선되는 게지”

“데모에 앞장서도 인기가 있죠”

“일본에서도 70년대에는 배우와 가수, 그리고 운동선수들과 같은 인기인들이 지방의회와 국회에 많이 진출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고등상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 많이들 그만 뒀지. 우리나라에도 최무룡과 이주일 같은 사람은 한번 해보고는 곧 그만두었지.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존경하고 싶은데...”

“전문정치꾼들도 연예인보다 나올 게 없으니까...누가 하던지 그게 그거죠. 정치꾼이나 탤런트나 아나운서나 데모꾼이나...다들...오십보 백보...그 나물에 그 밥이죠 뭐”

“하긴 그렇기도 해”

“삼성의 총수(總帥)인 이건희씨가 중국에서, ‘행정(行政)은 3류’ 고 ‘정치(政治)는 4류’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바로 본 것이겠네요?”

“바로 본 게지. 그러나 그분의 말은 50점 정도밖엔 줄 수 없어”

“왜요?”

선희가 왕침을 잡은 손을 더욱 빠르게 움직이며 따지듯이 물었다.

“헉!”

정호의 입에서 낮은 비명이 흘러 나왔다. 사실 선희는 버스에 타면서부터 줄곧 정호의 왕침을 매만지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선희의 손놀림에 한껏 발기한 왕침에서 뿜기가 곧 빠져나오려는 찰나에, 선희가 왕침에 속도를 가하자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침액이 터져 나온 것이다.

“괜찮았어?”

“응!”

“그럼 빨리 이유를 대봐요”

“응 응 알았어. 정치가 4류라면 정치학도 4류라는 말을 했어야 했는데, 이건희 회장은 그걸 못했으니 50점밖에 줄 수 없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자(學者)와 교육자(教育者)라면 무조건적으로 존경(尊敬)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학자와 교육자를 존경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격(人格)이 깎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교육신성시병(教育神聖視病), 교육자존경증(教育者尊敬症) 같은 정신병에 단단히 걸린 거야”

“정신병이라...그건 좀 심한 소리 같으네요”

“심한 소리가 아니야. ‘정치학 교수가 정치를 어떻게 가르쳤기에 우리의 정치가 이 모양이나...’ 라는 이도 없고,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요즘 사람들이 이 모양이나...’ 고 하는 이도 없이...그저...교육은 제대로 했는데 사회가 나쁘다고만 말하지”

“사실 사회가 나쁜 것 아니에요?”

“선희는 사회가 뭐라고 생각해?”

“그거야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이죠”

“그렇지? 귀신이 만들어서 도깨비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회가 나쁘다는 것은 곧 그 사회를 만든 사람이 나쁘다는 게고,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잘못 가르쳤다는 거지. 즉, 그 사람을 가르친 교육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의 눈치나 보면서 그들을 정면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있으니 고약한 병에 걸려도 단단히 걸린 게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우리에게 교적(敎賊)을 보탠 육적(六賊)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적(五賊)만 있다며 교적을 슬쩍 피해갔으니, 오적(五賊)의 작가 역시 고약한 병에 걸렸다고 보는 거지”

“그렇다면 중국적 책임은 결국 교육에 있다는 거군요”

“물론이지. 그러나 내가 보기엔, 교육(教育)을 이 모양으로 만든 책임은 정치가에게 있다고 봐. 우리나라엔 아직도 철학사전이나 사회학사전이 없어서 백과사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야. 사전(辭典)이 아닌 사전(事典) 말이야”

정호는 조개둔덕을 더듬던 손가락으로 선희의 뺨안 허벅지에 ‘辭’ 자와 ‘事’ 자를 써보였다.

“사전(事典)이 없는 책임을 어떻게 정치가에게 돌리는 거죠?”

“이러한 사전은 구독층이 소수라서, 출판사에서 일 개인이 출판하기는 어렵기에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하는데, 철대거리 정치가들이 그것을 몰라”

“아하! 그런 거군요”

“일본에서는 이미 1971년도에 30권권의 대사전(大事典)이 나왔는데, 우리는 아직 나올 기미도 안보이니...”

“휴~!”

정호의 설명을 듣고 난 선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치인과 언론인, 그리고 교육인 등 할 것 없이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함부로 쓰는 것도 아주 큰일이야. 이는, 사회학사전(社會學事典)이 없는 탓도 있지”

“설마 마스크에서까지야 그럴까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미칠 지경이지”

“.....”

선희는 갑자기 모든 공직자들이 자기 아버지와 같은 부류일 거라는 생각이 미치자, 더 이상 정호의 이야기를 듣기 민망해졌다. 선희가 슬며시 이야기를 돌렸다.

“부산이 대개 가깝죠? 벌써 부산에 다 온 것 같지라?”

“날 봐주는 거겠지 뭘--”

“뭘 봐주는데요?”

“내가 우리 큰애기를 경주에서 여기까지 안고 왔잖아. ㅎㅎ”

“아이~ 난 또 뭐라고. 힘들면 내가 더 힘들어야죠. 우리 서방님 대따 큰 거시기를 계속 만져주며 왔으니까...그렇지 안남? ㅋㅋ”

선희는 눈을 살짝 치켜뜨고 정호를 보면서, 양팔을 흔들며 아픈 시늉을 했다.

“선희야! 외갓집이 광안리라고 했지?”

“예”

“그럼 난 그 부근에서 잘 거야. 선희의 숨소리에 잠도 잘 올 거고 말시”

“고로코롬 하면 쓰것어라? 하늘같은 우리 서방님을 혼자자게 거시기 할 수는 없지. 내가 자장가도 불러주고 같이 자야지라. ㅋㅋㅋ”

“그럼 그럴까?”

잠시 쉬었던 정호의 손이 다시 조개둔덕 사이를 헤치고 들어갔다. 선희의 입에서 흥분에 못이긴 신음이 새어 나왔다.

“아~응!”

광안리 해변의 파크호텔. 호텔에 도착한 선희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정호의 팔짱을 짝 꺾다. 호텔 로비 쪽을 바라보니 꽤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다. 정호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선희에게 나직이 속삭였다.

“나이든 사람과 팔짱을 끼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

선희는 팔을 더욱 짝 조이며 말을 받았다.

“오빠! 요즘 어떤 세상인데 그런데 신경을 다 써요?”

“그래? 알았어! 알았다구!”

룸에 들어서니 휘영청 밝은 달빛이 파란선을 그으며 창문을 타고 들어왔다.

“선희야! 달빛이 너무나 아름다운데...볼 커지 말까?”

“정말 아름답네요.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창가 쪽에 놓여진 테이블에 마주앉았다.

“선희야! 바다에도 달이 떠 있네?”

“바다위에 떠 있는 저 달은 우리 오빠 달이고, 하늘위에 떠 있는 저 달은 내 꺼야

선희가 정호의 양손을 꼭 잡고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앉으면 해월(海月)이요 누우면 산월(山月)이라  
가만히 눈감으니 가슴에도 달이 있네  
앉았다 누웠다 하니 밤새는 줄 몰라라"

달빛에 취한 정호가 해운대에서 이광수가 지은 시를 조용히 읊었다.

“정말 이상하네요? 이심전심(以心傳心)이란 게 이런 가 봐요”

“왜 선희도 이 시를 생각했어?”

“유네스코 학생회에서 남이섬으로 MT 갔을 때, 그 때도 달이 참 밝았지요. 그 때 강에 뜬 달을 보고 오빠가 이 시를 가르쳐 주지 않았나요?”

“.....”

“실은, 그 때 제가 오빠에게 ‘뽕’ 가버렸던 것 같아요”

“.....”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며 나도 이 시(時)를 맘속으로 뇌아리고 있었는디...”

선희의 말에 정호는 갑자기 심란(心亂)해졌다. 선희의 자기에 대한 사랑이 오래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아무런 말도 못하고 혼자서 냉가슴을 앓아 온 그녀의 풋풋한 연정(戀情)이 너무 가엽다는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선희가 배시시 눈웃음을 치면서 말을 건넸다.

“오빠...나도 시 한수 읊어 보고 싶은디”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들어 볼까?”

“흠! 한번 들어 보실래요? ㅋㅋ”

“.....”

"광안리 달 밝은 밤에 서방님과 마주 앉아  
큰 조개 앞에 차고 깊은 시름 하던 차에

어디선가 푸욱~ 서방님 침인가 하노라"

선희가 이순신 장군의 시를 개조해 엮조리자 정호는 배꼽을 잡고 웃었다.

“하!하!하! 우리 공주님에게도 이런 엉뚱한 구석이 있었네? 어디서 배웠어? ㅋㅋㅋ”

선희는 대답 대신 정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입술을 덮쳐갔다. 정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선희를 번쩍 들어 침대에 눕혔다.

“아~~”

선희는 마치 정호의 시술을 기다리는 환자처럼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정호가 급히 바지를 내리고 그녀의 옷을 거칠게 벗겨 나가자, 탐스런 젖가슴과 무성하게 자란 수풀 사이로 도톰한 조개둔덕이 한눈에 들어왔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육체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탐스러웠다. 정호의 성난 왕침이 그녀의 조개둔덕을 헤집고 거칠게 파고들었다.

“푸욱!”

흥분의 절정에 오른 그녀의 조개둔덕 아래서는 씹없이 윤활유가 새나오고 있었다. 조갯살이 입술을 활짝 벌리며, 질러 들어오는 정호의 왕침을 단번에 집어삼켰다.

“아~오빠!”

“으~”

“오빠~ 더 깊이...”

“으응!”

“오빠...긴 강의에 수고 많았어. 사랑해!”

“나 두...”

한 달 이상이나 굶주림에 시달렸던 두 사람의 정사(情事)는, 못다한 성애(性愛)를 만회라도 하려는 듯, 네댓 번 선희의 숨넘어가는 비명이 지난 후에야 끝이 났다. 정호는 선희의 눈부신 육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 선희 또한 정호의 왕침이 그림기는 마찬가지로였다. 모든 오해와 의심이 사라진 순간의 정사(情事), 오늘따라 두 사람의 오랜 교접(交接)은 정신과 육체가 완벽히 하나가 된 순간이었다.

“오빠...나 배고파”

“그래? 그렇게 많이 뺏으니 배가 고프기도 할 거야. ㅎㅎ”

“오빠...자꾸 놀릴 거야? ㅋㅋ”

선희는 눈을 흘기며 주먹으로 정호를 때리는 시늉을 했다.

“알았어...알았으니 얼른 샤워부터 하고 와!”

애정의 표시인가? 선희가 투정을 부리듯이 말했다.

“안해! 오빠 거시기 씻어버리기 싫단 말이야! 이대로 고이 간직하고 잘 테야!”

선희의 말에 정호는 무어라 해야 좋을지 몰랐다. 사실, 정호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속스러워서 말하지 않고 있었을 뿐, 사실...정호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날 밤, 선희는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다는 행복에 취해서인지...피곤하다는 정호를 즐라...몇 번을 더 까무러진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다.

## 제12장 - 관제 빨갱이

아침 9시 반이 되자 선희가 호텔로 찾아왔다.

“오빠! 많이 기다렸지? 늦어서 미안! 오늘따라 왜 이리 엄마 눈치가 보이는지...”

선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호가 그녀를 왈칫 꺼안았다.

“선희야!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정호는 그렇게 말하며 마치 굶주림에 지친 성난 들개처럼, 그녀의 옷을 거칠게 벗겨 나가기 시작했다.

“오빠! 좀...천천히...응?”

“.....”

정호의 거친 손놀림에 선희는 어느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 되었다. 선희를 번쩍 안아 침대위에 눕히고 난 정호는, 바지를 벗고 나서...문득 동작을 멈춘 채 그녀의 알몸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터질 듯한 젖가슴 위로...얼굴을 붉힌 채 봉긋이 솟아있는 두 알의 앵두’

‘도톰한 조개둔덕 사이로...부끄러운 듯 빼꼼히 얼굴을 내밀고 있는 분홍빛 조갯살’

‘우유빛 같은 살결에...완벽한 S라인 몸매를 타고 곧게 뻗어 내린 두 다리’

아침햇살을 받아서인지 선희의 나신(裸身)은 어느 때보다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웠다. 정호는 ‘꿀꺽~’ 마른침을 한번 삼키고 나서, 그녀의 알몸에 올라 탄 뒤 그녀의 다리를 벌려 양어깨에 걸치고, 성난 왕침을 조개둔덕 사이로 살포시 찢러 넣었다.

“으으익!”

“으...좋아?”

“으응!...더...세계...으으~”

“응! 오우...아아악...으~ “

두 사람의 괴성에 가까운 신음이 왕침의 시술에 따라 계속 이어지고, 마침내 쾌락의 절정에 이른 것인가? 비명에 가까운 두 사람의 단말마가 동시에 울려 퍼졌다.

“아...흑!”

“으...익!”

선희는 성욕이 무척 강한 여자였다. 그러나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릴 때면, 음담패설이나 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짐짓 질색하는 표정을 짓는...한마디로 말해 ‘걸 다르고, 속 다름’ 요조숙녀였다. 한바탕 격렬한 시술을 끝낸 정호가, 땀에 흠뻑 젖은 얼굴을 선희의 젓가슴에 누인 채 몹시 힘든 표정으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선희야! 역시 나이는 못 속이겠어”

선희는 정호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몰랐다.

“왜요?”

정호가 시들해진 그의 왕침을 툭툭 치면서 말했다.

“마음은 종일하고 싶은데 이 녀석이 말을 듣지 않아서 말이야”

“뭘라고요? 난 몇번이나 죽을 뻔 했는디...더 해서 날 정말 죽여 버리게? ㅎㅎ”

선희의 말은 진심이었다. 정호가 급히 손사래를 치며 말을 받았다.

“아니? 내 말뜻은 그게 아니고...한창 젊었을 땐 하루에 열댓번을 해도 끄떡없었는데...요즘엔 대여섯번만 하고 나도 힘이 ‘ 짹~ ’ 빠지니 하는 말이야”

그때서야 선희는 ‘내가 내 감정만 생각하고, 교수님 나이도 있는데...너무 무리하게 내 욕심만을 채웠나?’ 고 생각하니, 괜히 정호가 측은해 보였다.

“서방님! 부산에는 오랜만에 오지라?”

하룻밤 풋사랑에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했는데, 한두 번도 아니었으니... ‘오빠’ ‘여보’ 를 떠나 이젠 대놓고 ‘서방님’ 이다.

“응! 가끔 해운대 해수욕장과 태종대에 몇 번 와 본적은 있지만, 광안리 해수욕장은 이번이 처음이야”

“그럼, 우리 송도나 영도 같은데 놀러가요. 제가 가이드를 할 게요”

“그럴까?”

택시를 타고 영도로 향하며 정호는 선희에게 새로운 사실을 털어 놓았다.

“선희야! 사실 난 부산과는 꽤 인연이 있어”

“어떤 인연인데요?”

“내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약6개월 동안 구포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

“어머! 전혀 몰랐어요. 어느 학교에 다녔는데요?”

“아니, 학교에 다녔던 것은 아니고...원래는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나 혼자 자치생활을 했는데...폐결핵이 말기까지 진행됐는데도 그냥 놔둔 바람에...폐결핵 치료를 위해 잠시 휴학을 하고 구포에 있는 형님네 집에 얹혀살면서 요양했던 거야”

“그래요?”

“응, 지금도 내 왼쪽 폐에는 계란만한 크기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

정호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잠시 눈시울을 붉히더니 말을 이었다.

“선희야! 지난 날 우리 집은 병원에도 못갈 정도로 찌들게 못살았어. 웬지 알아?”

“왜죠?”

“다...내 아버지 때문이야”

“교수님 아버지 때문에?”

“그래! 아버지 때문에...”

정호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 그의 아버지가 어릴 적 이불 속에서 들려 준 아버지의 지난 이야기를 선희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선희야! 흑? ‘관제 빨갱이’ 라는 말 들어 보았어?”

“아뇨?”

“해방 직후엔 공산당이 드러내 놓고 활동했기 때문에, 당시 남한에는 이른바 좌우익 간 대결이 대단했었어. 그런데,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승만 박사가 실권을 잡자 공산당 활동은 지하로 숨어들게 되었고,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공산당 소탕작전’, 즉 ‘빨갱이 소탕작전’ 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거야. 그 와중에 정치적인 암투와 세력다툼에서 상대방을 공산당으로 매도해 죽이는 일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관(官)에서 만든 빨갱이’ 즉, ‘관제(官製) 빨갱이’ 라는 거야”

“들은 것도 같아요”

“예를 들어, 조봉암 선생님 같은 분이 ‘관제빨갱이’ 로 매도된 대표적 희생자야. 그 때는 공산당이 아닌 사람도 일단 공산주의자로 몰리면 살아남기 어려웠거든”

“설마 했었는데...사실이었군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그 관제빨갱이가 되어 죽을 뻔한 일이 있었던 말이야”

“어머! 교수님 아버님이 어째서요?”

“내 아버지는 해방되기 전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을 당하였고, 제주도에서 단 며칠동안 말 타는 연습을 한 끝에, 신의주를 거쳐 만주로 건너가 일본군 기마병으로 참전해서 주로 김일성이 이끌던 마적단(독립군?)과 치열한 전투를 했어. 이후 일본천왕이 항복선언을 하자, 일본군은 조선인 병사들만 따로 선별해서 비상식량을 나누어준 뒤 풀어주었고, 아버지는 같은 고향의 전우 두 분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던 중 소련군에게 붙잡혀 포로가 되고 말았어. 그러나 소련군이 포로들을 끌고 소련의 ‘블라디보스톡’ 으로 가기위해 두만강 가에서 하룻밤을 머물던 중, 아버지는 야음을 틈타 목숨을 건 필사의 탈출을 시도한 끝에, 다행히 고향으로 돌아 올 수 있었지”

“아! 그런 기구한 사연이 있었군요”

“그런데, 더 슬픈 일은 아버지께서 한국으로 돌아 온 그 다음에 벌어 졌어”

“그게 뭔데요?”

“해방이 되자, 남쪽에는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정치조직이 생겨났고, 제법 의식 있는 청년들을 상대로 서로 자기네 조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안달이었어. 그때 내 아버지는 이법석 장군이 주도하던 민족청년단에 들어가게 됐고, 그러자 이승만 박사를 지지하던 극우파 쪽에서 난리가 났어. 당시, 민청계(民靑系)를 ‘관제 빨갱이’ 로 몰아라는 특별지령이 내려 온 게지”

“저~런!”

“그러던 어느 이른 봄날 밤, 아버지는 자정이 다 돼갈 무렵에 친구가 집에 찾아와 부르기에 나가 보았더니, 글썽 5~6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나타나 아버지를 에워싸고 ‘잠시 할말이 있으니 같이 좀 가자’ 고 해서 무심코 따라 나섰더니, 서북청년단 사무실이 있는 건물 지하실로 끌고 간 거야. 지하실에 들어서니 내부는 무척 어두웠고...협상국은 사내 두명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 가운데, 제법 호리호리한 사내 하나가 작은 탁상전등이 놓인 책상에 앉은 채, 아버지가 그 사내 있는 쪽으로 다가서자마자 손바닥으로 다짜고짜 아버지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치더니 ‘이 새끼! 너 빨갱이 짓 한 것 모두 다 알고 있으니 불어! 이 빨갱이새끼야!’ 라고 한 게야. 그래서 아무 영문도 모른채 끌려간 내 아버지가 ‘난 절대로 그런적 없다’ 고 말하자, 몽둥이를 들고 옆에 서있던 협상국은 사내 두명이 ‘이새끼!’ 하면서 몽둥이로 온몸을 정신없이 내리치는 바람에 아버지는 곧바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

“세상에!...그런 나쁜 놈들이...그래서요?”

“찬물을 끼얹은 바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언제 그랬는지? 또 한 사람이 역시 반죽음 상태로 옆쪽에 드러누워 있었고, 책상에 앉은 사내가 종이 한 장을 아버님 얼굴에 들이밀면서 ‘이게 네가 한 자백내용이니까 지장 찍어! 이 새끼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또 다시 ‘난 그런 자백을 한 적이 없다’ 고 하니까, ‘이 개새끼가!’ 라며 또 다시 몽둥이가 사정없이 날아오고...정신을 잃으면...또 찬물을 끼얹고를 수차례...완강히 부인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던 책상의 사내가 ‘이 새끼! 참 더럽게도 독종이네!’ 하더니, ‘더 때릴 것 없어! 지장이나 찍어!’ 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아 당겨 엄지손가락을 펴 인주(印朱)를 묻인뒤, 자백하지도 않은 자백서에 지장을 찍어버린 게야”

“정말로 악랄한 사람들이군요”

“서북청년단은, 당초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반공청년들이 ‘공산주의로부터 고향을 되찾자’ 며 모여 만든 조직인데, 이 와중에 이승만과 조병옥 등 극우정치세력이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빨갱이 때려잡는 조직’ 하면 ‘서북청년단’ 을 떠올리게 될 정도로 위세를 떨쳤지. 선희도 알고 있겠지만, 당시 서북청년단엔 정치깡패로 잘 알려진 이른바 명동의 황제 이화룡을 비롯해 시라소니, 신상사 등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주먹들이 몸을 담고 있었어. 특히,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도 서북청년단 소속이었으니...그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심하게 다루었는지는 안 봐도 알거야”

“난...드라마나 영화 같은데서만 봤는데...그래서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지라?”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강제로 자백서에 지장을 찍게 한 후, 아버지와 같은 민청계 소속청년 4명과 같이 굴비 엮듯이 포승줄에 함께 엮여 경찰서로 끌고 간 거야. 아버지 일행은 옷이 다 찢어지고 신발이 벗겨진 채 맨발로 걸어서 약 20분 정도나 걸리는 경찰서까지 새벽 찬 진눈깨비를 밟으며 끌려 간 게야”

“맨발이라...발이 대게 시렸을 텐데요?”

“내가 보기에, 아마도 그뻐 무신경(無神經)이었을 거야”

“당시에 빨치산이라고 하는 무장공비들이 많이 설쳤는데, 공산주의자로 몰리면 무조건 빨치산에 동조한 것으로 몰아서, 지리산에 있는 백골대(白骨隊)라는 부대로 보내서 군사재판을 걸어 총살시켰는데, 내 아버지도 그런 소문을 알고 있었기에 ‘나도 총살당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에, 아마 춤다는 생각조차 마비돼 버렸을 거야”

“아~이! 떨려. 난 자꾸 교수님이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아버지는 경찰서 정보과에서 조서(調書)를 받았는데, 형사가 부르는 대로 무조건 ‘예!’ ‘예!’ 라고만 하니까, 그때서야 수갑을 풀어주고 나서 유치장에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요...?”

“그리고는 아침을 먹고 나서, 다시 경찰서에 끌려올 때처럼 포승줄로 다섯명씩 굴비 엮듯이 엮어서, 경찰서 앞에 세워둔 트럭에 끌고 가 태운거야.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고 아무리 물어도 가르쳐주지 않은 채 말이야. 그런데, 무슨 일인지 사람이 다 탔는데도 불구하고 트럭이 출발하지 않고 있었는데...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야”

“어떤 기적이요? 빨리 말해 봐요 네?”

때를 쓰듯이 조르는 선희의 눈엔 어느새 눈물이 글썽거렸다. 정호는 그녀가 너무나 감정이 풍부한 여자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갑자기 아버지 일행을 실은 호송트럭 쪽으로 군용 째차 한대가 쏘살같이 달려와 급정거를 하더라는 거야. 그리고는 차안에서 국방경비대 소속의 중위계급장을 단 장교 한사람이 내렸는데, 그는 다짜고짜 경찰에게 다가가서는 ‘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보혁씨가 누구야?’ 라고 한 게야”

“교수님의 아버님을 찾으신 거군요”

“응! 그래. 그때는 아직 국군(國軍)이 창설되지 않아서 국방경비대라는 곳에서 국군의 역할을 대신 했는데, 꾀발이 아주 썩지. 경찰보다도 훨씬 썩었어. 그런 국방경비대의 장교가 아버지를 찾았으니, 아버지는 속으로 ‘이제 난 영락없이 죽었구나’ 라며 자포자기에 빠져 있었는데, 중위가 다시 아버지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빨갱이가 아니야! 빨리 포승줄 풀어 안내려주고 뉘해!’ 라며 경찰에게 호통을 친 거야. 아버지가 트럭에서 내려오니, 그 장교가 다가와 두 손을 꼭 잡고선 ‘고생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집에 돌아가도 됩니다’ 며, 정중히 인사까지 하더라는 거야. 아버지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왔고, 그때서야 사연을 알게 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서 풀려나신 거죠? 나도 참 궁금하네요”

“그건 이렇게 됐던 거야. 어머니는, 친구가 ‘밖에서 잠깐만 보자’ 며 야밤에 불러서 나간 아버지가 밤새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자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통행금지(通行禁止)가 해제되자마자 새벽부터 사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아버지가 경찰서에 끌려간 걸 안거야. 그래서 당시 막강한 힘을 가졌던 국방경비대의 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어머니의 사촌오빠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한 거야”  
“그래서요?”

“어머니로부터 자초지종을 상세히 전해들은 사촌오빠가 곧장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건거야. 그런데 서장의 말이, 아버지가 빨갱이로 몰려서... 지리산 백골대에 군사재판을 받으러 가기위해...지금 막 호송트럭에 탔다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란 사촌오빠가 ‘야! 이 새끼들아! 아무나 군사재판에 회부 하나? 그 분은 만주에서 김일성 빨갱이새끼들 때려잡던 분이야! 내가 책임질테니까 호송차를 절대 출발시키지 마!’ 라고 지시해 놓고는, 곧바로 짚차를 타고 경찰서로 달려가서 아버지를 빼냈다는 거야”

“아하! 그랬군요. 이제 알겠네요”

“그 후, 아버지는 서북청년단(西北靑年團)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고 난 뒤부터, 더욱 이승만 정부에 항거하는 대표적 반정부 인사로 돌변해갔고, 이의 영향은 박정희 정권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집안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야”

“음...그랬었군요”

“나는 그래도 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해. 없이 살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항상 당당했으며, 거짓과 위선을 모르는 정직한 분이시자 불의(不義)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항상 국가와 민족과 후세의 번영만을 생각한 분이시지. 물이 너무 맑아도 고기가 살 수 없듯이, 국가와 민족과 후세의 번영이전에, 때로는 내가 살기위해서 적당한 타협이 필요할 법도 한데, 오직 외곺수의 인생을 사셨으니 평생 가난에서 못 벗어난 거야. 하지만, 나는 어릴때부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자라면서, 다 헤진 옷에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다녔어도 뿌듯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지. 그리고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에도, 그런 아버지의 참모습이 절대적 영향을 끼쳤어”

선희는 정호가 너무 애처로워 보였다. 정호의 가슴에 얼굴을 기대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교수님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니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슬픈 역사의 한 장면이지. 관제빨갱이를 만들던 그 당시 인물들은 벌써 역사의 심판을 받고 사라져야하는데, 아직도 권좌에 앉아서 자손 대대로 영화를 누리려고 있고, 그 때 관제빨갱이로 몰렸던 사람들은 대를 이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슬픈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니라, 역사치고는 더러운 역사의 한 장면인 게지”

그 때 택시기사가 끼어들면서 한마디 던졌다.

“저 같은 세대가 알지예. 고문기술자가 아직도 있는 세상이다 아이고”

선희는 이 교수의 말을 들으며 ‘헌병 장교 출신인 우리 아버지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우울해지면서 혼자 중얼거리듯이 내뱉었다.

“요즘 과거사 운운하는데...그 사람들 심정을 알고도 남겠네...”

“선희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역사라는 거야. 그런 엉터리 반공활동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아준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니까 말아야”

“하지만.....”

“만약, ‘백골대(白骨隊)’ 라던가 ‘관제빨갱이’ 같은 것들이 없었다면, 그 당시 국제공산화(國際共產化)를 위해 한창 치닫고 있던 소련의 스탈린에게 밥이 돼 있을 거야. 공산주의자와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제일 강했던 사람이 이승만과 처칠 등이었는데, 처칠은 독일 에 밀려 위기에 처했음에도 소련의 스탈린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싫어한 인물이었어. 그는 ‘소련이라는 나라 자체가 철의장막(Lron curtain)에 가려진 나라인데, 그들과 무슨 대화를 한단 말인가’ 라고 했었지. 이승만 역시, ‘공산주의자들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고, 이로 인해서 김구 선생과도 사이가 벌어졌던 거야”

“그럼 교수님은 그때 교수님을 밖으로 불러냈던 친구에 대한 원망은 없나요?”

“나도 인간인데...립기야 하지. 그런데...”

정호는 문득 당시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 지그시 눈을 감았다.

“요즘 젊은이들은 일제의 죄악이라고 하면...36년간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만 떠올리지만, 해방 후의 참상과 6.25전쟁을 두루 경험했던 내 아버지와 같은 동시대(同時代) 사람들은 ‘만일, 일제의 침략만 없었다면 해방 후의 참상은 물론, 6.25전쟁과 같은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럼, 교수님 말씀은 해방 후 일어난 모든 비극이 일제36년의 연장이란 말이죠?”

“그렇지. 일제36년이 없었다면 남북분단은 없었을 것이고, 남북분단이 없었다면, 해방이후의 혼란 및 관제빨갱이로 몰아 생사람을 잡았던 비극은 물론, 남북이 서로 총부리를 겨눈 채 수많은 동족을 잔인하게 살상한 6.25전쟁도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보니, 일제의 죄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 같네요”

선희는 얼마 전 광안리 바닷가에서 만났던 가네까즈(金一)와 같은 피해자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묘한 느낌이 들어서 말하지 않았다.

“선희야! 일본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 말이 이웃이지 전혀 이웃 같지 않거든? 해방 후의 참상에 대해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후진성을 비웃으면서 즐기고 있으니까 말이야”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면, 일본사람들은 참 알미운 사람들이네요”

“그런데, 특히 우리를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일본의 우파(右派)들이야.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저이들이 시민지배시절에 전기, 철도 등과 같은 기간산업을 구축해서 한국의 근대화(근대화)를 도와줬으니, 우리가 자기들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억지논리를 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란 게야”

“교수님! 개네들 참 웃기는 짬뽕이군요. 자기들이 아시아 전체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전쟁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전진기지(前進基地)로 삼을 수밖에 없었고...그 야심의 이행과정에서 전기, 철도, 도로 등을 놔 준걸 갖고 뭐?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고요? 나~참! 지나가는 소가 다 웃을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도와준 놈들이 우리나라 국모(國母)인 명성왕후는 왜 죽였어요? 진짜 열받네!”

선희는 여느 때와 달리 몹시 흥분한 모습으로 목청을 높였다.

## 제13장 - 갈등의 이웃나라 ‘日本’

어느 듯 정신없이 얘기하는 동안 영도(影島)에 도착했다. 택시기사가 어디에 내리겠냐고 묻자, 선희는 유원지 입구에 내려 달라고 했다. 선희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정호의 팔짱을 짚 끼면서 말했다.

“오빠! 좋죠? 서방님...우리 걸을까요? ㅋㅋ”

“아~! 좋다! 웨리호를 타고 부산항에 들어오면서 바다위에서 잠깐 영도를 보긴 했는데, 이렇게 영도에 와서 바다를 보니까 훨씬 좋구먼. 마치 한 폭의 그림같이...”

“고등학교시절 구포에서 반년이나 있었다면서 영도엔 한번도 와보지 않았어?”

“그땐 몸이 아파서리...그냥 구포역 앞에 있는 낙동강변에서 바람이나 쐬고 그랬지”

“오빠! 여기는 날씨만 좋으면 대마도도 보이네요”

“정말 가까운 나라군. 부산에서 일본땅이 보인다니...”

“그러니까 일본을 두고 ‘가깝고도 먼 나라’ 라고 하겠지요”

“그래! 가깝고도 먼 나라일 뿐 아니라, 닮은 것 같으면서도 전혀 판이(判異)한 나라가 또한 일본(日本)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도 사람들은 닮았다고만 하지, 판이하다는 말은 잘 실감이 나질 않네요”

“그건 우리 공주님이 잘 몰라서 하는 말이야. 너무나 판이한 점이 많아. 일본은 갈등(葛藤)의 이웃인 게야”

“갈등이라면? 서로 뒤엉킨 사이라는 건가요?”

“그렇지. 갈등(葛藤)이라는 숙어는, ‘같은 넝쿨나무인 갈(葛)나무와 등(藤)나무가 가까이 있으면, 서로 엉키어 마찰을 일으킨다’ 는 뜻에서 생긴 말인데, 한국(韓國)과 일본(日本) 양국(兩國)은 이 같은 넝쿨나무라는 거야. 대나무나 소나무 같은 이웃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갈등은 당연하다고도 봐야겠지? 하지만, 정치가나 언론에서 이를 인기관리에 이용해서 적대관계(敵對關係)로 과장하는 것은 좋지 않아”

“스포츠에서도 ‘일본만큼은 꼭 이겨야 한다’ 고 하죠?”

“그건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야. ‘한국에 졌을 때가 제일 분하다’ 고 해.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 마치 이웃사촌 같은 감정이라고나 할까?”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닮긴 닮았지만 어디까지나 판이하게 다른 갈나무와 등나무인 거야. 따라서 설불리 닮았다고 단정해버리지 말고, 서로의 다른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오해(誤解)를 해소(解消)할 수 있다는 거지”

“오빠! 왜 오해가 생겨요?”

“음! 가령 말이야!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미국인과는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고 같이 하니 별 일이 없었는데, 일본인과 했을 때는 으레 갈등을 것이라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해버리니까 오해가 생기더라는 거야”

“그렇네요”

“오늘날, 일본과 한국 간에 국력(國力)의 차이가 생기는 것도 다 이 때문인데, 우리는 그저 일본이 근대화(近代化)에 선수(先手)를 쳤기 때문이라고 가볍게 생각해 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게 된 데에는 그럴만한 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지”

“오빠~! 이~잉~ 넘 어려워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래요?”

선희는 정호의 팔을 좀더 바짝 조이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선희야! 이 경치 좋은 곳에 와서 또 강의만 하란 말이야? 지겹지도 않아?”

“그런데.....”

“오빠! 우리 저~쪽 벤치로 가서 앉아요 네? 저긴 대마도(對馬島)가 보인다던데”

“뛰어 내릴 위험이 없는 곳이라야...”

“왜? 무서워요? ㅋㅋ”

“자살충동이 일어날까봐 그래”

“야휴~! 우리 서방님 즐라 겁쟁이시네?”

선희는 정호를 낚아채듯이 이끌고는 대마도가 보인다는 벤치에 가서 앉았다. 그녀는 슬그머니 정호의 손을 그녀의 조개둔덕위에 올려놓으며 물었다.

“오빠! 자살충동이 왜 일어난다는 거죠?”

“그건...사람이 황홀한 행복감에 도취돼 있으면 그 행복이 깨질까봐 겁이 나서 죽어버리고 싶어진다는데...지금 내가 바로 그런 심정이거든? 선희와 같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서...이 꿈이 깨어져 버릴까봐 겁이 나는 거야”

“아~이! 그런 무서운 말 하지 말고 빨리 아까 얘기나 해줘요”

“이번 강의는 정말 비싼 건데? 맨입으론 안되겠는데요? ㅎㅎ”

“얼마나 비싼데?”

“선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금이야. 몸으로 때워야 할 걸? ㅎㅎ”

“몸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선희는 정호의 말뜻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질펀한 밀어(密語)를 주고받는 동안, 정호의 왕침은 어느새 바지를 뚫을 기세로 솟아 올라 있었다.

“알았어요! 알았어! 그래 선물 줄게요. 우리 착한 서방니~임! ㅋㅋ”

그녀의 양증맞은 손이 정호의 바지 속으로 거침없이 들어갔다.

“아~으~”

선희는 왕침을 잡은 손을 더욱 빠르게 놀리면서, 정호의 컷볼을 살짝 깨물며 나직이 속삭였다.

“오빠...좋아?”

“으~응! 으음~흑!”

순간, 참았던 뱃물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정호의 입에서 묘한 괴음이 터져 나왔다. 그 때 갑자기 선희가 가방을 열더니 휴대용티슈를 꺼내 들었다.

“오빠! 좋았지라?”

“으응! 그런데 티슈는 왜?”

“아~ 이거~...오빠 거시기 닦아주려고. 지난번처럼 바지가 젖으면 안돼잖아. ㅋㅋ”

“그래?.....”

정호가 살짝 얼굴을 붉힌 채 ‘천하의 이정호가...아~...이거 쪽팔려서 원~...’ 이라고 중얼거리는 사이에, 선희는 어느새 티슈를 잡은 손을 정호의 바지 속에 넣고 부드럽게 왕침을 닦고 있었다.

“선희야...고마워!”

“내꺼 내가 닦아주는데...오빠두...참~ ㅋㅋ”

“그런 거야? ㅎㅎ”

“그러니까...선희가 준 선물 좋았으면 빨리 강의나 해요”

“그래! 알았어!”

정호는 이렇게 젊고 생기발랄한 아름다운 여대생과 은밀하고도 노골적인 성애(性愛)를 나누고 있다는 게 취할 정도로 황홀했다. 정호는 담배 두 개피를 연거푸 피우고 난 뒤, 계속 강의를 이어갔다.

## 제14장 - 쌤님과 강패의 대결

“선희야! 개인의 경우에도 부모의 덕택으로 좋은 환경에서 글공부를 하던 쌤님보다, 불운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성장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

이 높은 경우가 있지?”

“그렇지요”

“바로 그거야. 중세(中世) 이후의 우리나라는 전쟁이 별로 없이 온실(溫室) 속에서 살다시피 했지만, 그러나 일본은 그렇지 않았어. 일본은 근대(近代)에 이르기까지 전쟁으로 지고 새는 세월을 살아왔다는 차이가 있는 거야.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배경(歷史的 背景)부터가 전혀 다르다는 거야. 그 차이 때문에 오늘날 일본이 우리를 앞서가고 있는 거구...”

“아니? 외적(外敵)의 침입은 우리가 훨씬 많았지 않나요? 우리의 역사는 시련의 역사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온실 속에서 살다시피 했더니요?”

“그게 바로 높으신 양반네들의 무책임한 소리야. 선희는 그들이 그따위 소리를 지껄이는 이유가 뭔지 알아?”

“.....???”

“철대가리들이 그 따위 소리를 하는 저의(底意)는, ‘수난(受難)을 겪은 우리는 강인(強韌)한 민족이다. 백성들이여! 조금만 참아라!’ 바로 이거야”

“그럼 우리가 일본보다 전쟁을 적게 했던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는 대륙과 접해있으니까 외적이 쳐들어오기야 했었지. 그러나 불과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어. 특히, 조선시대에 와서는 중국(中國)을 사대의 예로 대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사태평(無事泰平)으로 살았던 말씀이야.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혼란 것 외에 무슨 전쟁이 있었어? 간간히 왜구(倭寇)의 침입이 있긴 했지만...”

“따지고 보니 그러네요”

“그래서 문(文)을 숭상(崇尚)하고 무(武)를 천시(賤視)하다 보니, 우리를 아주 문약(文弱)한 민족(民族)으로 만들어 버렸지. 흔히들, ‘문약’이라는 말을 ‘글이 약하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틀린거야”

“그래요 오빠! ‘문약’이란 ‘무’를 멀리하고 ‘문’을 가까이 해서 허약해진 것을 뜻하니까요. 맞나요?”

“그래! 선희보다 못한 철대가리들이 정계, 학계를 망라해 요소요소에 파리를 틀고 앉아 있으니 국민이 피곤하고 골치가 아픈 게야. 아무튼,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바로 그러한 문약의 역사였던 거야”

“문무겸비(文武兼備)가 아니고라?”

“천만의 말씀! 고려시대까지는 그랬었지. 그러나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문약이 돼버린 거야”

“생각해 보니 오빠 말이 맞아요”

“선희야! 서구(西歐)나 일본(日本)에서는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언제나 우두머리였고, 글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우두머리를 따르는 참모나 보좌역이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글 잘하는 사람이 언제나 위였고, 칼 잘 쓰는 사람은 호위병이었지. 양반(兩班)은 문(文)과 무(武)를 이르는 문무양반(文武兩班)을 뜻하지만, 항상 문반(文班)이 무반(武班)보다 지체가 높았던 거야”

“그런데 오빠! 일본은 섬나라라서 외적의 침범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 전혀없었지. 고려때 고려군과 몽고군이 연합하여 쳐들어갔으나, 태풍을 만나는 바람에 상륙도 못해봤지. 그때의 태풍을 일본의 어용 학자들은 나라를 지켜준 신풍(神風), 즉 ‘가미카제’라고 했지. 2차세계대전 때 비행기에 폭탄을 실은채 미국군함으로 돌격하여 자폭한 특공대가 있었는데, 이를 가미카제특공대라고 한거야”

“그렇게 외적의 침입이 없었는데 오빠는 어째서 전쟁을 많이 한 나라라고 하지라?”

“왜냐구? 그건 일본이 지네들끼리 싸웠다는 거야”

“저이들끼리...왜요?”

“영주들 위에는 천황이 있어서 영주들을 통솔했는데, 천황은 명목적인 존재에 불과했고 실권은 강한 군사력을 가진 장군, 즉 ‘쇼군(將軍)’이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 쇼군이 있는 관아를 막부(幕府)라고 했는데, 바로 이 막부가 정치의 중심이었지. 막부라는 명칭은, 원래 중국에서 전쟁을 총지휘하는 장군이 머무는 천막(天幕)을 막부(幕府)라고 불렀는데, 그걸 따 온 거야. 그래서 무(武)에 강(強)한 자가 전국(全國)을 다스리는, 이른바 무단정치(武斷政治)를 했던 거야”

“음! 그래서 막부시대라 하는군요”

“그렇지. 그러던 중에, 11세기경부터 이 막부가 약해지면서 쇼군(將軍)자리의 계승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 난 거야. 그 싸움이 워낙 치열해서 영주들을 다스리지 못한 틈을 타서 영주들끼리 영토확장이나 세력다툼으로 서로 싸우게 됐고, 우리나라 조선(朝鮮)이 한참 문약(文弱)으로 치달던 15~6세기경에, 일본은 영주들끼리 전쟁으로 지고 새는 전국시대(戰國時代)가 되었던 거야”

“이제 알겠어요”

“전국시대 초기에는, 오다 노부가와(織田 信長)라는 걸출한 자가 나타나 많은 영주들을 제압했으나 일찍 죽어버렸고, 우리에게는 풍신수길로 잘 알려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 秀吉)가 그 뒤를 이어, 모든 영주들을 제압해 쇼군 자리에 올라서 그 여세를 몰아 임진왜란(壬辰倭亂)까지 일으킨 게야.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 家康)라는 자가 쇼군이 되어, 막부를 교토(京都)에서 에도(江戸)...지금의 동경으로 옮겨서, 일본의 근대화가 시작되기까지 약2백년간 대대로 일본을 통치했던 거야. 그래서 일본은 무사도(武士道)라는 정신이 확실히 자리 잡게 된 거야. 지금도 우리는 ‘어험! 나는 양반이다!’ 고 하는데 반해, 일본인들은 ‘어험! 나는 무사의 자식이다!’ 고 하지”

“조선시대 500년 동안 우리가 ‘공자 왈~’ ‘맹자 왈~’ 하고 있는 사이에, 왜놈들은 서로 칼을 들고 싸움질을 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지. 일본은 근대화에 착수한 후에도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하기까지는 군부가 실권을 잡고, 모든 요직과 각료들을 예비역 장군들로 채운 군국주의(軍國主義)로, 청일전쟁(淸日戰爭)과 노일전쟁(露日戰爭)을 치렀고, 급기야는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지. 2차세계대전 당시의 실권자였던 도조 히데끼(東條 英機)는 헌병사령관을 거쳐 일본국 수상(首相)이 된 자인데, 수상이 되고 난 후에도 육군, 내무, 외무, 문교,상공장관을 겸임하며 군부를 배경으로 강력한 군부정치를 펼쳤어. 그 당시의 장관은 거의가 예비역 장군 출신이거나 격적이었던 거야”

“과연 일본은 무사도(武士道)의 나라라고 할 만 하군요. 또한 그렇게 싸움질을 하면서 살아 왔으니 정말로 수난(受難)의 민족(民族)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만이 수난의 민족인 것처럼 가르쳐 왔으니...”

“제국주의(帝國主義)라는 말의 뜻도 정확히 알고 써야 해!”

“ ‘황제의 국가’ 라는 뜻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그러나 그 이외에도 ‘국력(國力)을 국외(國外)로 확장(擴張)하는 것을 국시(國是)로 하는 나라’ 라는 뜻도 있어. 가령, 영국은 ‘전세계(全世界)의 영국화(英國化)’ 를 국시(國是)로 내걸고, 식민지를 확장하여 ‘대영제국(大英帝國)의 땅은 해가 지지 않는다’ 고 할 정도의 대제국(大帝國)이 된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국주의(帝國主義)에는 군국주의(軍國主義)를 수반하고 있는 거야”

“일본이 바로 그런 나라였다는 거군요”

“그래! 일본은 전 아시아를 일본 것으로 하겠다고 하여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건설’ 을 내 걸었고, 태평양전쟁을 그런 목적을 방해한 미국을 물리친 성전(聖戰)이라고 해서, 이를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 이라고 불렀지”

“어찌 보면 일본은 강패의 나라군요”

“일본뿐만 아니라, 봉건제도를 했던 나라에는 영주들끼리의 싸움이 많았어. 그래서 서구인들도 일본인들 같이 문무겸비가 두목의 자질이었어. 사관학교에는 귀족만이 입학했고, 추천장이 입학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지. 오늘날에도 서구인들은 군(軍)장교가 되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고 있던 말이야”

“추천장이 중요했다고요?”

“응! 그만큼 신원과 신분을 중요시 한 거야. 영어로 사병을 프라이빗트(Private Soldier)라고 하는데, 무사들은 장교이고 사병은 그 장교에 고용된 병정이라는 뜻이야. 말하자면, 사병(士兵)이 아니고 사병(私兵)인 게지”

그러면서, 정호가 선희의 조개둔덕 위에 ‘士’ 자와 ‘私’ 자를 써내려가자, 선희는 갑자기 흥분이 되는 지...정호의 손을 당겨 조개둔덕 사이로 더욱 깊숙이 밀어 넣었다.

“아...으~ 오빠! 좀...어떻게...응?”

“알았어...이렇게?”

정호가 선희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조갯살을 헤집고 음핵(陰核)을 빠르게 문지르자, 그녀는 흥분이 절정에 달했는지 허리를 뒤로 활짝 젖히며 괴음과 함께 자지러졌다.

“하~아! 으~으~욱!”

“했어?”

“응!”

“시원해? ㅋㅋㅋ”

“몰러~ 오빠...미워! 빨랑 다음 얘기나 해줘! 응?”

정호는 손수건을 꺼내 조개둔덕 사이로 흘러내린 그녀의 애액(愛液)을 부드럽게 닦아 주고서 말을 이어갔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음...그래...우리도 조선 초기까지는 사병(私兵)이 있었는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이를 폐지해 버린 거야.

‘도둑놈이 지발 저린다’ 고 또 다시 자기들처럼 왕권(王權)에 대항하는 쿠데타가 일어날까 두려웠던 게지”

“이젠 알만해요. 문무겸비의 뜻을...”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결혼식장이나 파티장 같은 행사장에서 예복대신 훈장을 잔뜩 단 군복차림의 모습을 많이 보는데, 그만큼 문무겸비를 금지로 여긴다는 거지”

“그리고 보니, 영국의 찰스 황태자도 공수훈련을 받았을 정도의 군인출신이고, 군복 차림으로 행사장에 나타나는 모습이 많더군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장교 같은 것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애들에게 ‘장차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고 물으면, ‘박사다’ ‘대통령이다’ 가 많고, ‘장군이 되겠다’ 는 별로잖아. 병역기피를 하고도 부끄럽게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돈 있고’ ‘뺨 있고’ ‘요령 좋다’ 라는 식으로 자랑스레 떠버리고 있으니, 그런 것들이 모두다 문화적 배경의 차이인 게야”

“글쎄요...그딴 칼싸움 같은 거시기도 문화 축에 드나요?”

“이런~ 바보! 갑자기 선희 답지 않는 소리를 다하니?”

“아니, 제 말은... ‘무사도’ 라고 하니깐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냐는 거죠”

“그건 선희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야. 칼싸움이나 살인이 문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화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야. ‘문화(文化)’ 는 영어의 ‘컬처(Culture)’ 에 해당하는 말인데, ‘사람이 일구어 놓은 것’ 이란 뜻이야. 따라서 ‘농사(農事)’ 도 ‘컬처’ 라고 하지. 사람이 일구어 놓은 거니까. 이 ‘컬처’ 를 우리는 ‘글월’ 문(文)자와 ‘화할’ 화(化)자를 써서 문화(文化)라고 하니깐, 무언가 글과 관계있고 고급스러운 것, 가령...예술, 문학, 철학, 종교 같은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만이 문화가 아니라...인간(人間)이 이룩해 놓은 모든 것들이 문화(文化)라는 게야”

“그럼 미개인(未開人)들에게도 문화가 있겠네요?”

“당연하지. 그들에게도 그들만이 일궈놓은 문화가 있는 거야”

“그럼, 그게 ‘좋다’ ‘나쁘다’ 는 별개의 문제겠네요?”

“그렇지. 내가 선희 보고 ‘선희 답지 않다’ 고 했는데, 어느 여류시인이 쓴 수필집을 보니까, 일본의 사무라이 소설을 읽고 있는 친구를 보고 ‘그것도 문화라고 그따위 소설에 심취하고 있는 친구가 한심하더라’ 는 구절이 있더라구. 이렇게 문화라는 말뜻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사도의 배울 점이 뭘까?’ 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철대가리들의 평균수준이야. 그런데, 난 선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한 소리야”

“그래요? 참 잘났네요! 잘났어! 난 오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철대가리...내가 무식하다는 걸 문득문득 느끼거든요? 이제 됐나요? 씨~!”

정호의 지적에 토라졌는지? 선희의 입이 삐죽 튀어나왔다.

“아니야! 누가 우리 예쁘고 ‘뚝! 소리’ 나는 공주님 더러 ‘철대가리’ 라고 그래?”

“그게 그거 아닌가봐? 오십보 백보지. 그럼 내가 철대가리가 아니면 뭘죠?”

“선희는 지금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그리고 정확히 느끼고 이해하고 있지. 배울 생각도 않고 ‘아는 체’ ‘잘난 체’ 하는 철대가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들이 진짜 철대가리인 거야. 선희는 철대가리가 아니고 ‘진주대가리’ 라고나 할까? ㅋㅋ”

“진짜?”

“고롬! 진짜구 말구!”

정호의 아부성 말에 삐졌던 선희가 ‘까르르~’ 웃는다. 선희가 다시 강의를 재촉했다.

“그런데, 그런 문화적 차이가...우리보다 앞서게 된 것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있고말고. 선희야! 한번 생각해봐! 어릴적부터 고생하고 자란 사람이, 편하게 자란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 선희가 보기에 글공부나 하던 쌤님과 캠패가 서로 대결한다면 누가 이길 것 같아? 당연히 캠패가 이기지 않겠어?”

“캠패와의 대결이라...!? 그리고 보니 정말 무섭네요”

“아직도 일본에서 과거지사(過去之事)를 합리화하는 망언(妄言)이 자주 나오고, 교과서를 왜곡해서라도 과거를 미화하려는 것도, 알고 보면 다 그런 캠패기질 때문이야. 일본의 우파(右派)는 곧 캠패의 후사(後嗣)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게지. 다시 말하면, 군국주의시대에 실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 또한 대개는 그 2세~3세대들이야. 그들은 비록 수적으로는 작지만 세력은 무시 못 할 정도로 커. 더군다나, 오늘의 일본을 이끌어 가는 재벌과 유명 출판사 및 신문 등이 모두 그 당시에 커진 것들이야”

“하기야, 캠패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짓들을 했겠어요? 처녀들을 전쟁터로 납치하여 강제로 매춘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731부대라는 것을 만들어 산사람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하는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짓을 서슴없이 자행했으니깐 말이죠”

“그들은 사고방식부터가 틀려! ‘전쟁을 할 때면, 무조건 살아남아야 한다’ 이거야. 한마디로, ‘반드시 이겨야한다’ 는 강한 목적의식을 갖게 되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거지. 그러나 글이나 말로 싸울 때는, 저봤자 당장 죽는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적당히 하게 되는 거구”

“그렇겠네요. 손해는 보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테니까...”

“언젠가 내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다’ 는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지도자라면 항상 그래야한다고 말했었지요”

“그것이 바로 무사들의 좌우명(座右銘)이야. 죽음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생각하고 대비하니까”

“우리의 무사안일주의(無事安逸主義)와는 극과 극이네요”

“맞아! 무엇이랄도 ‘하자-한다’ 는 목적이 서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치우는 강한 추진력이 있는 거야. 다분히 목적지향적(目的指向的)이라고 할 수 있지. 그에 비하여 우리는 ‘하자-한다’ 고 해놓고도, 그...수단적인 ‘가부’ ‘도덕성’ ‘명분’ 같은 것을 가지고 따지기 좋아한단 말이야”

“그것은 수단지향적(手段指向的)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래.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이 나쁘면 못하는 게지”

“목적이 정해지면 수단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OK’ 하는 것이 일본이고요?”

“그렇지. 선희야! 일본이나 서구에서는 ‘선네고’ 라는 것이 잘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한 것...기억해?”

“예. 그랬었죠”

“그런 원인의 하나를 이러한 국가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해야 한다는 목적보다도 그 수단방법을 따지니까, ‘선네고’ 와 같은 불법적 방법이 안 되는 거란 말시”

“오빠 말을 듣고 보니, 우리의 적당주의는 그 뿌리가 꽤 깊은 것 같군요”

“우리 속담 중에 내가 젤루 싫어하는 속담이 바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는 건데...즉...누구라도 높은 자리에 앉기만 하면 ‘할 수 있다’ 는 생각 말이야. 종위나 대위라도 맡겨만 주면 사단장도 할 수 있다는 생각,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라도 금뺨지를 달기만 하면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만드는 것도, 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고 믿기 때문인 거야”

“그럼 무사도가 배경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가요?”

“선희야! 글은 오백자 정도만 알아도 천자를 아는 척 할 수 있는 거지만, 칼 쓰는 기술은 초단자가 5단자인 척 품 잡았다가는 죽어버리는 거야”

“요즘 YS가 ‘무사안일주의, 적당주의를 버려라’ 고 야단이지만, 대통령이 훈시나 한다고 해서 절대루 쉽게 고쳐질 병이 아니군요”

“왜놈들은 ‘굽실굽실’ 거리며 ‘하이! 하이!’ 하면서 아주 약하고 간사한척 보이지만, 실은 ‘한번 한다면 한다’ 는 악바리 근성을 가진 악삭빠른 민족이야. 천년이상을 소위 ‘죽느냐, 사느냐’ 는 틈바구니에서 살아왔으니 말이야”

“문화적 배경이 다르면 사고방식도 다르다는 것, 정말 실감나네요”

“무사도(武士道)가 배경이라는 것을, 그냥 칼싸움 잘하는 캠패정도로 생각해서는 절대 곤란해!”

“그러게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만 수난을 이겨낸 민족이라면서 혼자 강한 척, 잘난 척하고, 일본은 ‘만만한 섬나라’ ... ‘왜놈 어찌구~ 저찌구~’ 하면서 놀고 있으니...참 어처구니없고 한심하네요”

“뭐니뭐니해도, 사람은 싸울 때와 사랑할 때가 제일 많이 생각나고 발전하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교수님이란 만나면서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느끼게 됐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역시 사랑인가봐요. 자격은 없지만...ㅋㅋ”

“무슨 소리야? 자격을 따진다면 오히려 내가 자격이 없는 게지. 우리 공주님께...”

정호는 그렇게 말하면서 선희의 오탁선 콧잔등을 입술로 살짝 깨물었다.

“음~ 오빠! 아~”

선희의 입에서 흥분에 겨운 신음이 새어 나왔다. 어느새 정호의 왕침이 불끈 솟아오르며 그녀의 조개둔덕을 지그시 찔러갔다.

“좋아?”

“아~ 넘 좋아~”

“나두~ 으으~ 흑!”

벤치에서...또 한 번의 스틸 넘치는 뜨거운 밀애(密愛)가 끝나고...정호는...상큼한 기분으로 계속 강의를 이어갔다. 선희 또한 특유의 눈웃음을 흘리며, 매우 흡족한 표정으로 정호의 왕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그의 다음 강의를 기다리는 듯 보였다.

“생각해 보면, 기후와 같은 자연조건이 적당히 나쁜 것도 일본 입장에서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봐”

“적당히 나쁘다니요?”

“일본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자연조건이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한번씩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할 정도로 적당히 나쁘단 말이야”

“정신 차리게 할 정도라고라?”

“그래. 가끔씩 지진도 일어나고, 태풍도 가끔씩 지나가고, 바람이 많아서 불도 잘 난단 말이야. 일본 속담 중에는 ‘지진과 벼락과 불(火)과 두목이 제일 무섭다’ 는 속담이 있는데,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살아야한다는 것이, 일본인들의 부지런하고 악바리 같은 민족성형성에 크게 작용한 거야.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자연조건은 일본과 비교해서 너무나 좋지 않아? 긴장할 일이 전혀 없는 게지. 다만, 요즘 들어서 공해문제로 인해 약간의 이상기후가 있긴 하지만 말씀이야”

“그래도 우리는 ‘삼천리금수강산’ 만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라는 거야. 만일 이 상태에서 지진대가 한반도로 이동해 오거나 이상기후가 심해지면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거지”

“그러고 보니 벌써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해복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곳에서 또 다른 재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천재(天災)보다 인재(人災)가 많다고도 하는 걸요”

“흠~ 그렇게 참으로 걱정이야. 일본의 민족성 중에는 ‘체념이 빠르다’ 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전쟁이나 자연조건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

“왜지라?”

“전쟁에 지거나 지진이나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폐허위에 서게 되는데, 이는 즉 하늘을 쳐다보고 원망해 봤자 별 뽀족한 수가 없으니, 지난 일은 빨리 체념해버리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지”

“아하! 그렇다면 거기에서 새로운 추진력이 생기고 서로 원망하는 것이 없는 단결심이 생기겠군요”

“그렇지. 선희야! 부산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 중에 ‘앗사리’ 라는 말이 있지?”

“네”

“그 ‘앗사리’ 라는 말은 원래 ‘깨끗하다-담백하다-시원스럽다’ 는 뜻의 일본 말인데, ‘앗사리 체념하고 다시 시작한다’ 는 뜻이야.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도, 연애를 하다가 깨져도, 앗사리 체념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게지. 이게 바로 왜놈들의 매력인 거야”

“.....”

순간 선희는 ‘혹시? 교수님이 나랑의 연애도 앗사리하게 끝내버리면 어찌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교수님은 절대로 그럴리가 없

어! 라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는 정호의 말을 받았다.

“알겠어요. 아무튼 같은 넝쿨나무끼리라고 만만하게 봐버릴 민족이 아니네요”

“그 외에도 일본이 강해질 수 있는 원인이 또 있어”

“또 있어라?”

“그것은 일본민족이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점과, 근친혼(近親婚)이 많다는 것도 강한 나라가 된 원인의 하나야”

“그것은 또 뭘 말이당가요?”

“2차세계대전 중에 일본은 선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어용학자(御用學者)를 동원하여 단일민족임을 선전한 일이 있었으나 패전 이후에는 그만 두었어.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단일민족이 아니기 때문이지”

“정말 단일민족이 아닌가요?”

“그래, 그들은 단일민족이 아니야. 고대부터 중세에 걸쳐 한국인과 포리네시안이 이주해 갔고, 북에서는 아이누족이 내려와 혼혈이 되면서 형성된 민족이 일본민족이야. 그러니까, 일본열도에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을 포함해서 최소한 4개의 종족이 합쳐진 혼혈민족이지”

“오빠! 근데 ‘포리네시안’ 이 뭔데요?”

“음...포리네시안이 뭐냐면...남태평양 일대에 살고 있는 민족을 포리네시안이라고 해. 일본은 섬나라이면서...대만, 필리핀 등 남태평양 일대의 여러나라까지 아주 작은 섬들로 연결돼 있어서, 일찍이 포리네시안들이 이주해 올 수 있었지. 일본인들이 추는 전통춤이나 민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도, 태국, 하와이 사람들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그리고 보니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들 이민족이 서로 자기네 종족끼리 살려는 생각에서 근친혼을 많이 했던 거야. 지금도 4촌끼리 결혼하는 일을 흔히 볼 수 있지. 당연히 법적으로도 인정되고 말이야. 우리는 십촌이 넘더라도 동성동본(同姓同本)이면 무조건 결혼을 불허(不許)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것과 국력(國力)이 뭘 상관이라고? 내가 보기엔 완전 야만인들 같은디?”

“아냐! 그건 선희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야. 이민족끼리 결혼해서 혼혈이 되거나 근친끼리 결혼하면, 우생학적(優生學的)으로 소수의 뛰어난 천재가 태어나고 다수의 평균이하가 태어나거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지도자와...지도자에 추종하는 보통사람이 뚜렷이 구별되니까 단결이 잘되는 거야”

“이끄는 사람과 끌려가는 사람이 뚜렷하니까 단결이 잘된다? 그럴듯하네요”

“선희야! 부창부수(夫唱婦隨)가 무슨 뜻이지?”

“남편이 말하면 부인은 따라간다는 소리 아니예요?”

“맞아! 남편이 따라가든 부인이 따라가든, 한쪽이 이끌고 한쪽이 따라가는 그런 집안이 잘돼는 거야. 부부가 다 똑똑하고 잘나서 지पाल 지가 흔들면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요즘엔 그런 집구석이 많아서 큰일이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하잖아? 똑똑하고 아는 척 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돼는 거야. 한국사람들을 보면, 어려울 때는 잘 순종하다가도...웬만큼 산다 싶으면 곧바로 기어 오르려고 하지. 이것은 다 그만큼 똑똑한 이들이 많아서 그런 게야”

“정말 그런감?”

“말직(末職)에 있을 땐 겸손하다가도, 승진(昇進)이라도 했다 싶으면 이내 못된 근성이 나오고 말지. 그래서 우리는 정(情)을 주기가 겁나는 거야. 모두들 머리가 너무 좋아서 말시...”

“아주 좋지 못한 민족성이네요”

“나도 조선사람이지만 정말 우리 민족성 중엔 버려야할 못된 것들도 많아. 예를 들면,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 는 우리네 속담을 보듯이, 남이 잘되면 축하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 끌어내려서 안달하는 모습들은 버려야할 아주 못된 민족성 중 하나야. ‘짐승은 구해주면 공을 하는데 사람은 구해주면 악물을 한다’ 고도 하지. ‘물에 빠진 놈 건져 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한다’ 는 말도 있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은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이끌면 많은 바보들이 따라가고 그래서 단결이 잘 된다는 것이군요. 맞나요?”

“끌려가는 다수가 바보는 아니지만, 만사(萬事)에 대해 그다지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잘 따른다는 거지. 한때는 ‘일본제국은 불과 3천명에 의해서 움직인다’ 는 말이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전혀 생소한 말을 듣는 것 같군요”

“일본은 장수(長壽)일등국이 된지 오래인데, 거기에는 식습관, 의약, 의술, 무공해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내가 보기엔 일본인들의 차분한 생활양식이 아주 큰 원인이라고 생각돼. 그들은 무조건 ‘크게 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겠다’ 는 생각보다 눈앞만 보고 차분하게 맡은 바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비록 작은 구멍가게일지라도 대를 이어서 하고 있고...”

“오빠! 그렇담...리더는 반대로 ‘아주 똑똑하고 크게 되겠다’ 는 사람들인가요?”

“그렇다고 봐야겠지?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징은,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가 매우 어려워. ‘강한 듯 하면서도 약한 나라’ ‘스케일이 큰 듯 하면서도 제제한 나라’ ‘잔인한 듯 하면서도 상냥스러운 나라’ 등등 ‘이중성-양면성’ 이 아주 강한 나라인데, 그것은 바로 지도계층(指導階層)과 추종계층(追從階層)의 구별이 뚜렷한데서 오는 특징이야. 일본 지도층들이 하는 짓을 보면, 대범하고 대담하고 크고 잔인무도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바리 같은 기질이 있는데 반해, 일반인들은 그저 평범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하는 순하고 상냥한 사람들이지”

“교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는 일본의 일반인들이 보이고 있는 그 ‘순한면’ ‘상냥한 면’ ‘작은 면’ 만 보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민족의 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일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썼어. 예를 들면, 16세기에 폴츄칼 선교사였던 ‘후로이스’ 가 쓴 ‘유럽과 일본의 문화비교’ 를 위시하여, 20세기엔 미국의 인류사회학자 ‘루드 베네딕트’ 가 쓴 ‘국화와 칼’ 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많고 다양해”

“일본은, 나라의 모습과 사람의 얼굴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악바리 같은 자들이 나라를 이끌고...순한 자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일제말기에는 끝내 일본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악질조선인은 생매장해 버리고, 그다음 악질들은 만주로 보내라는 비밀 지령이 내려. 하지만 해방으로 인해 못하고 말았지. 이 모두가 지도계급에서 나온 발상이겠지만 말이야”

“그렇다면, 일본 지도계급의 대가리는... ‘돌대가리’ 는 물론 아니요... ‘철대가리’ 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과연 무슨 대가리일 것 같아요?”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칼대가리’ 라고나 할까? 그것도 아주 잘 드는 칼”

“무섭다~! 정말 경계해야겠네”

“이들 칼대가리들이 언제 어느 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언제 어느 방향으로 튀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일본에는 원칙이 없다고도 하고 애매한 민족이라고도 하는 등, 말이 많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일본인의 예스(Yes)는 노(No)와 같다’ 고 했지. 이를 좋게보면 적응력이 강하다는 것이 되지만, 나쁘게 말한다면 ‘예! 예!’ 하다가도 자신에게 불리한 기미가 보이면 언제라도 돌아선다는 말이 되겠지.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모습을 봐. 패전 직후에는 짝소리도 못하던 그들이, 이제 경제대국이 되니까...슬며시 군사대국을 꿈꾸며 역사까지 왜곡하며 망언을 일삼고 있잖아?”

“그러고 보니, 일본 민족...정말 간단하게 생각해버릴 민족이 아니군요”

“우리가 미국과 친할 땐 짝소리도 못하던니, 우리가 미국과 사이가 나빠지고 미국이 자기들을 더 생각하니까, 독도문제 등을 들고 나오면서 망언도 심해지는 거야”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들 땅이 아니란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생떼를 쓰는 것 같아요”

“바로 봤어. 일본인들이 바보가 아닌데...우리나라의 철대가리들이 그걸 몰라”

“참으로 한심하군요. 우리나라 철대가리들...ㅋㅋ”

“일본이란 나라는 이렇게 여러 종족들이 모여 살다보니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야. 그래서 17세기초 지도자였던 쓰또꾸 태자(聖德 太子)는 화합(和合)을 강조했고, 나라 이름도 화(和-야마토)라고 했을 정도야. 일본학자들 중에는 ‘우리는 고대에 이미 국제화를 경험했다’ 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미 고대부터 이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여 모방하고 조화하는 것을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칙이 없지.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원칙이 많고 말이 많은 게 탈이야”

“교수님, 우리가 원칙을 좋아하는 민족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권력을 잡았다하면 원칙 만들기에 바쁘니까요”

“일본인들의 말 재주는 또 얼마나 좋은데?”

“그들을 원숭이 같이 흉내 잘 내는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빈말은 아니군요”

“일본인들은 흉내 잘 내는 걸 수처로 생각하지 않아, 발정과정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수치고 모방이라는 거야. 심지어는 일본의 문화를 월광문화(月光文化)라고 하면서 자긍심을 가질 정도니까 말이야”

“월광문화가 무슨 뜻이지라?”

“그건 말이야...달은 자체의 빛이 없고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할 뿐인데, 일본도 자체의 문화는 없고 외래의 문화를 받아 반사할 뿐이라는 거야. 하지만, 반사도 못하는 민족에 비해선 훌륭하다는 게지”

“다수 민족이 살다보니 그런 모방능력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지. 이에 비하면, 우리는 단일민족인데...단일민족은 평균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태어나거든? 그래서 따지기 좋아하고 배타성이 강해 단결이 잘 안되는 거야. 우리 배에는 사공이 많은데 반해, 일본인들 배에는 사공이 적어서 단결이 잘되고 중소기업도 잘되는 거야”

“중소기업이 잘되는 것과도 관계가 있을까요?”

“있고말고. 대기업은 힘이 조직을 붙들고 있고 조직이 사람을 다스리고 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인간관계가 사람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모두 머리가 좋아 따지기를 좋아하니까 중소기업에서 단결력이 약한 거야. 작은 배에 사공만 많고...”

“저두...사공이 많다는 오빠 말엔 전적으로 공감해요”

“우리는 위기에 처하거나 강력한 지도자를 만나면 단결이 잘 되는데, 평화 시에는 모래알과 같아. 일본의 아사히(朝日)저널이 우리 민족의 이러한 점을 지적해, ‘동고(同苦)는 해도 동락(同樂)을 못하는 민족’ 이라고 비꼰 적이 있었지”

“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한다’ 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의아해했는데, 오빠 말을 듣고 보니 이제야 대충 이해가 되네요. 비록, 어떤 동기에서 공부는 못하게 됐지만 머리 회전만은 기동차게 잘 돌아간다는 그런 말이 되겠군요”

“그래, 우리 민족은 머리가 다 좋아. 로마의 후예라는 긍지를 가진 이태리인들과 우리는, 단일민족이라서 그런지 비슷한 점이 많아. 단결심이 약한 것, 노래를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것도 닮았지 뭐야. 어떤 학자는 같은 반도(半島)민족이라서 닮았다고 하는데, 그런 풍수지리학적 원인도 무시할 순 없겠지만 단일민족이라서 그렇다고 보는 게 옳을 거야. 영국이 일찍 발달되고 2백년 이상 세계사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혼혈과 근친혼이 많았던 것도 간과할 수 없어”

“그래서 일본인들은 개인적으로 약해도 몇 사람이 모이면 강해진다고 하는군요”

“그렇지. 그런 목적지향적인 일본인의 사고방식은, 작게는 가족제도에서도 나타나고 교우관계나 애인사이에서도 나타나곤 해”

“어떻게요?”

“ ‘같이 사는 가족이다’ ‘친한 사이다’ ‘사랑하는 사이다’ 고 하면 너무 어렵게 따지지 않고, ‘같이 산다’ ‘친하다’ ‘사랑한다’ 는 목적에 맞춰버리지. 상당히 오픈 마인드(open mind)한 면이 있던 말씀이야”

“예를 들자면요?”

“그렇까? 선희야 일본에서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으로 바꾸지? 즉, 기무라(木村)가 다나까(田中)집안에 시집을 가면 다나까(田中)가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죽고 난 이후야. 며느리 혼자 사는 것도 보기 싫고, 그렇다고 다른 집에 시집보내기도 싫고, 자식문제도 골치 아프고...”

“그래서요?”

“그래서 재혼은 시키되 다른 집에 시집보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남자를 데릴사위로 맞이하여 다나까(田中)로 입적시키는 거야”

“일본사람들...합리적이라고 해야 할지, 개판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더욱 기괴한 것은 죽은 남편의 친형제나 사촌이 이 며느리와 결혼해 주면 더 좋아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허용되고 자식들에게도 의붓아버지보다 삼촌이 더 좋으니까 말이야”

“하지만.....어떻게 시동생하고.....”

“우리 감각에서 보면 완전히 패륜이지만, 이들에겐 미덕(美德)이니 말이야. 말하자면, ‘잘 살아야 한다’ ‘혼자 살게 할 수 없다’ 란 뚜렷한 목적의식에 결혼이란 것을 맞춰버리는 거야”

“목적지향도 대단한 목적지향이네요. 그러니까, 형님이 데리고 자던 여자와 같이 잔다는 말이지요?”

“선희도 그 ‘같이 잔다’ 는 점이 제일 마음에 걸릴 거야. 그러나 일본인들의 생각은 달라. 일본인들의 생각은 ‘잔다’ 즉 ‘성관계를 한다’ 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냐. ‘산다’ 즉 ‘생활한다’ 에 초점이 있는 거야. 그들에게 있어서의 성관계는, 그저 생활상의 한 수단이고 과정일 뿐이라는 게지”

“과연 목적에 강하다...할~”

“그러니 따지는 게 적지. 좋은 게 좋다, ‘호(好) 즉 선(善)이다’ 는 식이야”

“그러고 보니 헬레니즘의 성격이 강하네요”

“그래, 그렇다고 봐도 무방해. 근데 우리 선희 기억력 좋은데?”

정호는 그렇게 말하면서 슬며시 선희의 치마 속에 손을 넣고는 도톰한 조갯살 사이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아니나 다를까? 죽은 남편동생과 다시 결혼해서 그 짓을 한다는 얘기에 흥분해서인지, 이미 선희의 조개는 흥건히 젖어 있었다.

“헉! 오빠~ 잠깐만...”

선희는 정호의 하체를 치마폭에 감싼 채 엉덩이를 살짝 들어 그의 바지피를 내린 뒤, 불끈 솟은 왕침을 양증맞은 손으로 잡고는 조갯살 사이로 밀어 넣었다.

“으~으~”

“으음~ 오빠... 좋아?”

“으~으~응!”

선희의 풍만한 엉덩이가 연신 방아질을 해대자, 정호의 왕침은 핏발을 세운 채 더욱 굽어지면서 발사 일보직전의 카운터다운에 접어들었다.

“음~ 오빠 조금만 더...의!”

“으~으~으~헉!”

“으으음.....”

“오빠...개운해?”

“응!”

“오빠 거시기는 먹으면 먹을수록 너무 멋져. ㅋㅋ”

“너 또 까볼래?”

정호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어느새 그의 두 손은 선희의 젖가슴을 안고 있었다.

정호의 감탄사가 이어졌다.

“아~ 우리 공주님 젖가슴은 너무나 부드럽고 풍만해”

정호의 양손가락이 봉긋 발기한 앵두를 비비기 시작하자 또다시 선희의 교성이 이어졌다.

“으~ 오빠....한번만 더해줘...응?”

다시금 정호의 성난 왕침이 선희의 치마폭에 숨은 채 조갯살을 헤집고 들어갔다.

“으으익!”

“아흐~익!”

“좋았어?”

“응! 넘넘 좋았어. 근데 친구나 애인 사이엔 어떻게 나타나는데?”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듯 두 번식이나 시원하게 애액을 쏟고 나서인지? 선희는 어느새 차분한 모습으로 돌아와 질문을 이어갔다.

“친구나 애인 사이엔 어떻게 나타 나냐고? 선희야! 일본인들은 쓸데없이 남의 말을 잘하지 않는 편이야. 가정교육에서도 이점을 강조하지.

그래서 좀처럼 남의 흉을 보거나 결점을 말하지 않는 편이야. 그러나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상당히 신랄하게 상대의 흉을 보거나 결점을 지적해. 친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까지 생각한단 말이야”

“친하다고 흉을 본다고요?”

“한국사람들은 이점을 모르고 A가 B의 흉을 보니까 둘이 사이가 나쁜 줄 알고 같이 B의 흉을 보는 일이 가끔 있는데, 이건 커다란 실수야. 친하면 친할수록 ‘내가 흉을 봐야 한다’ 고 생각하고, 상대 또한 ‘그 사람이라면 내 흉을 봐도 좋다’ 는 생각이라구. ‘친하다’ ‘사랑한다’ 고 하면 서로가 믿어버리단 말이야. 솔직히 그런 것들을 보면 그들이 참 부러울 때도 있어. 우리는 ‘친한 사인데 그럴 수 있나?’ 고 하는데, 그들은 ‘친한데 어때?’ 라고 하니 말이야”

“미안해요. 전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교수님이 전화를 안받는다고 오해도 하고 미워도 했나 봐요. 이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수님을 믿을 거예요. 신앙처럼 믿을 수 있는 애인이 없다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갑자기 쓸데없는 얘길 꺼내기는...결국 전화 했잖아”

“그건 실은 야단 쳐주기 위해 한건데...”

“야단을 치고 싶다는 건 곧 사랑한다는 뜻이야”

“그러고 보니 말 되네요?”

“난 선희의 그런 점이 정말로 좋아. 모든 문제를 곧 나 개인의 문제와 연관시켜 들을 줄 안단 말이야. 나의 이 골치 아픈 강의를 그렇게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사회적인 문제이겠지만 나 개인에 밀착시켜서 듣기 때문이지. 정치적인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든 규모의 차이는 있어도 원리는 같으니까 말이야”

선희는 정호의 칭찬을 듣는 것이 무척 좋은 모양이다. 그녀는 정호의 솜은 왕침을 살짝 쥐면서 나직이 속삭였다.

“교수님! 내가 정말 그렇게 좋아?”

“좋은 정도가 아니야. 존경할 정도라니까? ㅋㅋ”

“치! 칭찬인지? 아님 놀리는지? 몰라도 듣기는 좋네. 그럼 내가 상을 줘야지 ㅎㅎ”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주위의 시선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왕침을 잡은 손을 위아래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빨라지는 선희의 손놀림에 따라 서서히 모든 것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가고...마침내...그녀의 손에 왕침을 맡긴 채 지그시 눈을 감고 있던 정호의 입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단말마가 터져 나왔다.

“허~허어~으~으~ 음!”

“오빠...좋았어?”

“응! 고마워 선희야...사랑해!”

선희의 상(賞)에 대한 보답이런가?

‘쭈욱~’ ‘쭈~’ ‘쭈~’

정호의 입술이 선희의 하얀 목덜미를 부드럽게 키스한 뒤 힘껏 빨기 시작하자 그녀의 입에서 자지러질 듯한 묘한 신음이 새 나왔다.

“아하! 아으~ 아~~~”

“괜찮았어?”

“으응!”

또 한 번의 황홀경을 맞본 두 사람.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맘속 첫사랑으로부터 진정한 남성을 느끼면서,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가득 머금은 채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선희. 싱그러운 처녀의 풀내음과 탄력을 온몸으로 느끼며, 도톰한 조개둔덕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정호. 둘은 진정으로 행복감에 젖어있었다. 조개둔덕을 쓰다듬던 정호의 손놀림에 흥분한 선희가 갑자기 고개를 뒤로 젖히며 정호의 입안에 그녀의 혀를 집어넣었다. 정호는 마치 이를 기다리라도 한 듯 밀려들어오는 혀를 입안 깊숙이 빨아들었다. 또 한 번의 달콤하고 긴 키스가 이어졌다.

“사랑해...선희야!”

“나 두....”

숨사탕이 아무리 달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달콤하겠는가? 정호는 담배 한개피를 피워 물고 나서, 이순간의 달콤한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계속 이야기를 이어 갔다. 그녀가 이야기 속에 깊이 빠져들자, 그녀를 잡고 있다는 안도감을 함께 느끼면서...

“아무튼 일본사람들은 전쟁과 지진과 바람에 시달린 사람답게, 아주 강하게..아주 약하게..사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은 교묘하게 피해버리거든? 일본인들의 단결심이 하도 강하니까 지독한 전체주의자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은 그 단결심의 바탕엔 이렇게 강한 개인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걸 알아야 해”

“음...그런거?”

“속내를 들여다보면 일본인들은 서양인들보다 더 지독한 개인주의자들이야”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면 전체주의(全體主義)와 같아진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런 이치(理致)인가요?”

“그렇지. 민주주의의 바탕이 개인주의라는 설명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똑똑한데?”

“치! 말로만 칭찬하면 안돼는 게 분홍빛 교실의 규칙 아닌지라?”

“요건 나중에...응?”

“그럼...약속!”

선희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손가락을 걸며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치 ‘오빠 사랑해!’ ‘나두~’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정말 이지...사랑과 진실이 가득한 분홍빛 교실이다. 정호의 강의가 이어진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의식구조(意識構造)를 하마구찌(□口)와 스즈끼(鈴木)같은 일본인 교수는 간인주의(間人主義)라고 했는데, 이는 마치 직물(織物)과 같은 거라고 했지. 실오라기는 한데 모여 직물이 돼야 강해지지만, 그 직물에서 실오라기가 하나라도 빠져 나온다면 불량품이 돼 버리고 마니깐, 실오라기 하나하나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야. 즉, 실오라기는 직물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고 자기보호를 위해 직물의 일부가 된다는 게지”

“음...그러니까...직물이 돼야만 비로소 실오라기 구실을 한다? 일리 있는 말이네요”

“스즈끼(鈴木) 교수는 ‘전체를 위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슬며시 감춰놓는 것이 일본인이다’ 고 했어. Honda자동차의 창업자인 Honda 소이찌로(本田 宗一郎)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사람을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좋다’ 라고 한 말은 아직도 기업 CEO들 사이에서 회자될 정도로 너무나 유명하지”

“알 것 같으면서도 쪼가 어렵네요. 누구나 다 일본인들은 전체주의의 화신같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철대가리들 뿐만 아니고...”

“그건 피상적(皮相的)인 거야. 일본인들에 대해 그렇게 보는 것은, 특히 2차세계대전 때 너무나 악착같이 싸웠고 국가를 위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야. 하지만, 그들이 하는 짓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가령, 일본인들은 ‘무라하찌부’ 가 되길 아주 싫어해. ‘무라하찌부(村八部)’ 라는 말은 ‘마을의 팔푼이’ 라는 뜻인데, 좀 싫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다들 하는 대로 따라해야지 혼자 떠돌이를 피우는 사람은 팔푼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마을 전체가 단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각 개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나 혼자 팔푼이가 되지 않으려고 그저 따라하고 있다는 게야”

“그러니까 외관상 보기엔 전체주의 같지만 속내는 개인주의란 말씀이죠?”

“그렇지. 설문조사를 할 때, ‘잘 모르겠다’ 는 항목에 가장 많은 답을 하는 민족이 일본인이라는 거야. 이는 모 일본인 교수가 TV에 출연

해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이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는 의사표시(意思表示)라는 게야”

“정말...일본인이란 사람들, 약은사람들이라고 해야 할지? 강한사람들이라고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네요”

“일본어를 마스터 하여 포로수용소에서 일본군 포로를 심문했고, 전후에는 타임지(誌) 도교 지국장을 지낸 ‘후랑크 기브니’ 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지. ‘일본인들은 친구기간에 <저 녀석 이상한 놈이다>는 소리를 아주 듣기 싫어하고, 좀처럼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고 말이야. 꼭 말머리에 ‘글쎄요...???’ 라는 부사를 달아놓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고 말을 맺는단 말이야”

“우리가 따지기 좋아하고 말재주가 좋은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네요?”

“우리는 아쉬울 땐 짝소리 않고 있다가도, 좀 살만하다싶으면 말이 많지. 그러나 일본인들은 보스가 시키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게지”

“두목(頭目)이 지진이나 벼락같이 무섭다고 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또한, 일본인들은 스스로가 ‘무드’ 즉 분위기에 약하다고 하고 있는데, 일단 분위기가 조성되고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비는 민족이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도자들 중에는 칼대가리 같이 예리한 천재들이 많아서, 이들이 방향설정을 하고 거창하게 분위기를 잡으면 그냥 뭉치는 거지”

“그것 역시 개인주의에서 나오는 것이겠네요?”

“선희야! 일본인들의 근검절약(勤儉節約)은 알아주지 않니? 그것이 겉으로 보기엔 나라를 위한 근검절약 같지만, 알고 보면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 함부로 흥청망청하지 않는 것이야”

“그런데 우리는 애국심(愛國心) 때문이라고 하죠”

“그건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철대가리들의 말이지. ‘백성들이 아껴 쓰라. 일본인들의 근검절약정신을 본 받아라’ 라고 하는 거지. 저이들은 뒷구멍에 숨어서 흥청망청하면서 말이지”

“가부장적 사고방식이죠”

“맞아. 게다가 의리를 중히 여기기로는 알아줘야지. 일본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욕은 ‘마을 팔푼이’ 라는 것과 ‘의리 없는 놈’ 이라는 게야. 즉, 혼자 외롭게 살기 싫다는 이기심이 바탕에 자리하고 있는 게지”

“의리는 무사도가 바탕일 것 같은데요?”

“바로 보았어. 무사는 혼자 있기보다 힘을 합하는 것이 중요했으니까. 또 무사도라는 게 알고 보면 살인문화(殺人文化)가 아니겠어?”

“그렇죠”

“그 살인을 정당화하고 미화까지 하자니 자연히 ‘정의를 위해 죽었다’ ‘의리를 위해 죽었다’ ‘원수를 갚았다’ 는 식으로 합리화했던 거야. 그게 결국은 너와 내가 힘을 합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의리’ ‘인정’ 이라는 덕목(德目)이 강하게 정착하게 된 거야”

“나를 위해 힘을 합치고 그것이 우리로 확산되고 국가와 민족으로 승화되어야 공동체라 하셨지라”

“정말 선희의 기억력은 알아줘야 하겠는데?”

“오빠! 그 외에도 일본인들의 개인주의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더 있나요?”

“그럼, 더 있고 말구”

“오빠! 빨랑 말해 주세요. 넘~재밋다”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일본인의 친절과 공손에 대해 선희는 어떻게 생각해?”

“일본인들은 도덕심이 강해서 친절하고 공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게 틀린 거야! 도덕심 때문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요? 정말 헛갈리네. 친절(親切)과 공손(恭遜)이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니...”

“그걸 알면 정말 놀랄 걸?”

“참~ 그건 그렇고...거시기...오빠! 배고프지 않아라?”

“아차! 내 정신 좀 보소! 우리 공주님 배고픈 것도 모르고 그냥 지껄었네”

“아닌뒤? 난 우리 서방님이 시장할까봐서 한 말인데...ㅋㅋ”

선희는 정호의 왕침을 어루만지며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애교를 떨었다. 정호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니 바다도 하늘도 온통 분홍빛이다. 이려고도 강의를 잘된다니 참으로 요상한 스승과 제자 사이이다. 근처 횃집에서 제법 빛깔 좋고 듬직한 참돔 한마리를 잡아, 회에다 매운

탕에다 그리고 소주 두병까지 푸짐하게 점심식사를 마치고 난 두사람은 아까 그 벤치로 다시 돌아가서 앉았다. 자세는 역시 ‘분홍빛 교실’의 정자세로.

벤치에 앉아 선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저는요...교수님이 ‘친절’ ‘공손’ 이 도덕이 왜 아니라고 하는지 빨리 알고 싶어서 식사도 빨리 끝냈지라. 얼른 말해줘요 네?”

하지만 정호는 지금 말할 기분이 아니었다. 아까 먹은 소주의 취기가 그의 왕침을 자극해 한껏 부풀어 오르며 선희의 조개둔덕을 헤집고 파고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으~오빠!”

“가만있어봐! 거시기부터 하고...응?”

“으응! 알았어 오빠!”

쿵개 핏발선 정호의 왕침이 선희의 조개둔덕 사이를 힘차게 파고들자 그녀의 입에서 희열에 찬 교성(嬌聲)이 흘러나왔다.

“아으~좋아...여보!...으음~”

선희의 엉덩이가 속도를 더하자 정호의 입에서도 정점에 이른 교성이 튀어나왔다.

“으으~흑!”

절정의 고개를 두 번이나 넘기고 나서 선희가 흡족한 표정으로 특유의 눈웃음을 치며 강의를 재촉했다.

“오빠...좋았어? 이제 빨리 말해줘...응?”

“휴우~ 알았어요 우리 공주님”

“아이~ 빨랑!”

“우리 공주님이 그렇게 알고 싶다니 정말 다행이고 기특하고 귀여운데? 철대가리들은 이게 다르다는 걸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몰라”

“그게 그렇게 대단하당가?”

“난 대단하다고 봐. 잘 들어 봐”

“알았어요”

“사람들은 수신(修身)과 도덕(道德)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친절하고 공손한 매너를 도덕으로 밖에 보지 못하는 거야”

“뭔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라”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지”

정호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듯하다가 설명을 시작했다.

“선희야!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뜻은 알지?”

“그럼요”

“그래, ‘먼저 내 몸을 다스리고, 그 다음이랴 가정을 다스릴 수 있으며, 가정을 다스린 다음이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다스

린 다음이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는 교훈이지. 예기(禮記)라는 중국의 고전에 있는 말인데, 이게 진리인 것 만큼은 부정할 수 없겠지?"

“그렇죠”

“수신(修身)한다는 것은 곧 나의 몸과 마음을 닦아서 어떤 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예\_”

“그런데 도덕(道德)은 인륜(人倫)의 도(道), 즉 사람들(人倫)이 가야 할 길(道)이라는 거야. 이 길은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길인 동시에, 집단과 집단, 집단과 개인을 연결하는 길이란 말이야. 달리 말하면, 인간관계(人間關係)와 사회생활(社會生活)에서 지켜야할 질서(秩序)라는 말이지”

“그리고 보니 수신과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네요”

“따라서 수신은 도덕의 시발점에 있던 말이야.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옳게 다스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옳게 할 수 없으니까”

“못돼 먹은 놈이 다스리는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고, 돼먹지 못한 놈이 하는 정치는 개판정치란 말이죠? ㅋㅋ”

“바로 그거야. 거짓말이나 하는 못돼 먹은 놈이 하는 정치는 개판이지. 요즘 정치가들은 개판을 치고도 자기들이 개판을 쳤는지도 모르고 있으니...한마디로 말해 수신(修身)이 덜 된 거야”

“정말이지 요즘 정치인들은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정치인은 으레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들으니까 별로 속상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짓말 정치를 개혁한다기에 한표 찍어줬더니, 개혁한다는 젊은 정치인들이 더 뻔뻔스러우니 정말 역겨워요. 거짓말도 아주 치사한 것만 골라서 하고 말이죠”

“그렇지? 구세대(舊世代)는 그런대로 수신교육을 조금은 받았는데, 신세대(新世代)는 ‘자유’ ‘민주주의’ ‘민족주의’ 그딴 거 밖에 모르고, 그 명분 또한 거짓말도 합리화해준다고 미는 거야”

“내가 볼 땐 꼭 미친 짓 같아요”

“그렇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그것은 다 무식해서 그런 거야”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수신과 도덕이 별개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네요”

“수신(修身)은 개인적 문제이고 도덕(道德)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행동을 두고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지. 가령, 내가 여기서 지금처럼 은밀하게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희를 벤치에 눕혀놓고 공개적으로 섹스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글썩요...? ㅎㅎ”

“그렇다면, 이를 본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었다는 도덕적 문제가 생기겠지?”

“아마도...그렇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친 년놈들, 돼 먹지 못한 년놈들’ 이라는 욕을 먹을 게 뻔하고,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욕을 먹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야”

“그렇군요. 미친 년놈들...ㅋㅋ. 그런데 일본인들의 친절이 도덕이 아니라는 것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음...그것은 말이지...일본인들은 친절이란 걸 도덕으로 가르치지 않고 수신으로 가르친단 말이야. 생각해봐 선희야! 도덕적으로 생각한다면, 남들이 다 불친절한데 나 혼자만 친절하다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

“그건 그래요. 요즘 같으면 남들은 다들 미친 듯이 설치는데 나 혼자 친절하자니 웬지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높은 사람들은 해도 괜찮고, 서민인 우리는 왜 못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도덕은 상대적인 거니깐. 문제는, 일본인들은 가정교육에서부터 도덕으로 가르치지 않고 ‘남들이야 뭐라던 나 자신의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한다’ 고 가르친단 말이야”

“.....???”

“만약, 선희와 생면부지(生面不知)인 길가는 사람이 너에게 길을 물었을 때, 네가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준다면 그 사람은 너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게고 너도 기분 좋고 복(福)받지 않겠어? 그러나 쓸데없이 불친절하게 가르쳐준다면, 그 사람은 속으로 너를 욕할 거고 너는 욕먹을 짓이나 하고 다니는 못난이가 되지 않겠어? 일본인들은 ‘어디를 떠나든? 누구와 헤어지든? <그 자식 잘 갔다>는 말을 등 뒤에 남긴다면 너는 실패작이다. 언제 어디를 떠나든지 항상 <아까운 사람을 잃었다>는 생각을 남겨야 한다’ 고 가르친다는 거야. 따라서 일본인의 친절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수신이지 도덕이 아니란 말씀이야. 즉, 친절하게 행동한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질서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은, 도덕(道德)이 아니라 친절이라는 수신(修身)에 수반된 부수적결과물(附隨的結果物)이라는 게야. 이제 이해가 돼?”

“또까 알 것 같네요”

“선희야! 아까 내가 말한 그 타임지 기자는 ‘일본인의 친절과 공손은 예의(禮儀)라기 보다는 생활관행(生活慣行)이다’ 라고 했는데, 그만큼 몸에 밴 습관인 거야”

“일일이 타인과의 관계를 따져서 하는 친절이 아니고 그냥 몸에 밴 것이군요”

“그래,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자기방어와도 같은 게지”

“이젠 다 알겠어요”

“아니야, 아직 좀더 알아야 될 것이 있어”

정호는 자세를 가다듬고 다시 말을 이어 갔다.

“일본인들은 과거에는 학교교육에서도 수신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가정에서만 수신교육을 하고 있어. 가정에서의 수신교육을 ‘시즈께(仕村)’ 라고 하는데, ‘만들어 붙인다’ 는 뜻이야. 즉, 몸과 마음을 튼튼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붙인다는 게지. 가정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섯 가지 정도를 가르치는데, 하나는 방금 말한 ‘친절’ 과 ‘공손’ 이고 다음은 ‘정직’ 이야”

“정직하라고 하는 것도 도덕적인 게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보면 도덕이 될 수 있겠지. 그러나 이것 역시 수신으로 가르치고 있어. 즉, ‘너의 이익여부와 관계없이 사람은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가 아니고, ‘정직하게 살면 네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 정직(正直)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그것은 ‘결과적’ ‘부수적’ 이라는 게지”

“나를 위한 정직이지 남을 위한 정직이 아니라는 거네요?”

“부모들 입장에서, 내 자식이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는 버릇이 생기면 ‘자라서 쇠고랑 차는 신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다’ 는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한 거다. 좋은 말이네요”

“싱가폴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님과 선생님의 매를 맞아보지 못한 사람은 커서는 경찰의 매를 맞는다’ 고 하는데,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지”

“남을 위한 정직이 아니다? 이젠 일본인의 정직에 대해서도 새롭게 봐야겠어요”

“한의학의 고전(古典) 중에 약2,000년 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황제내경(皇帝內經)’ 이라는 작가미상의 책이 있는데, 여기에는 ‘마음의 불안정이 만병(萬病)의 원인(原因)이다’ 고 했고, 그 불안정의 원인이 ‘거짓말 하는 것’ ‘불친절 한 것’ ‘양보하지 않는 것’ ‘공손하지 않는 것’ 이라고 했어. 일본인의 수신(修身)과 같은 내용인게지”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이젠 수신의 뜻이 보다 확실해 지는 것 같아요”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대표적 범죄는 위증죄, 사기죄, 무고죄인데,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위증은 16배, 무고는 39배, 사기는 26배가 많다는 거야. 이것은 일본의 인구가 우리에게 비해 3배정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숫자인 거야. 안타깝게도 수신(修身)이 있는 나라와 수신(修身)이 없는 나라의 차이인 게지”

“사기, 위증, 무고 같은 범죄는 간접살인이나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가니까요”

“그래, 아무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선희야! 일본인들은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내 할 일은 내가 하기’ ‘음식투정 안 부리기’ 등을 가르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모두가 도덕이 되는 거야”

“그렇겠네요”

“선희야! 이방자(李方子) 여사 알지?”

“네. 일본의 황족으로 구한말(舊韓末)에 일제에 의해 영친왕(英親王)과 정략적으로 결혼한 분이시요. 지금은 돌아가신...”

“맞아. 사회적으로는 그분을 여사(女史)라고 하고 종친들과 측근들은 비전하(妃殿下)라고 불렀지. 그분이 196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 오셔서 창덕궁의 낙선재(樂善齋)에 머무셨는데, 그 때 내가 아는 분이 잠시 비서로 그분을 모신 적이 있었어”

“아~ 그랬었어요?”

“그 때 이방자여사를 모시던 시녀들이 그분에게 와서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야”

“무슨 걱정요?”

“ ‘아침에 비전하 방에 들어가 보면, 비전하께서 손수 이불을 깨끗이 개서 장롱에 넣어놓으시고...잠옷도 제자리에 걸어 놓으시는 등...하도 방이 깨끗해서 할 일도 없고, 또한 차도 손수 끓여 드시는 일이 많은데...아마도 저희들이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한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야”

“.....”

“그래서 그 비서분이 이방자 여사께 말씀 올리기를 ‘비 전하! 모시는 사람들이 서투러 정말 죄송합니다. 혹여 마음에 드시지 않는 점이 계시면 기탄없이 타일러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는 일본의 황족은 시종과 시녀들이 다 해주는 줄 알겠지만 황족도 시즈께(仕村)를 받지요. 웬만한 것은 제 손으로 다 하는 게 버릇이 돼서 그러니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고 하시더라는 거야. 이런 점을 본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의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는 정말 심각한 문제야”

“그러게요”

“선희야! 너는 여자니까 특히 일본여자들이 어떤지 알 필요가 있어”

“그래요?”

“일본은 여자에 대한 수신교육이 남자보다 훨씬 더 엄격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엄격하고요? 왜죠?”

“일본여자들이 간사할 만큼 상냥하고 친절하다보니깐, 일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으레 일본여자를 남자의 노예같이 생각하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야. 사실, 세계에서 우먼파워가 제일 강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야. 비록 그 타입은 다르지만...”

“그것도 뜻밖이네요. 미국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가 알고 있기에...일본은 좀...”

“미국여자들은 남자를 정면에서 붙들고 끌어가는 타입이고, 일본여자들은 등 뒤에 서서 생글생글 웃고 있지만 남자의 꼬리를 붙들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타입이지”

“꼬리를 잡혔으니 정말 꼼짝도 못하겠네? 웃긴대! ㅋㅋ”

“일본남자들은 앞에선 잔뜩 으스스대고 있지만 실은 여자에게 꼬리를 잡혀있는 거야. 예를 들면, 미남 정치가로 소문난 하시모토(橋本) 전 수상은 부인의 말이라면 무슨 말이라도 다 들어주기로 소문났던 사람인데, 그의 부인은 한번도 정면에서 뭘 요구한 적이 없었다는 게야. 언젠가 그가 수상으로는 처음으로 장애인들을 수상관저로 초대할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상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인이 원해서 했다는 거지.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부인은 장애인들의 초청을 수상에게 정면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수상이 있는 자리에서 혼잣말로 ‘장애인들을 관저로 초청했으면 참 좋겠다’ 고 중얼거렸는데 그것을 수상이 듣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는게야 “

“그러고 보니 부인이 남편의 꼬리를 붙들고 조정할 것이네요. ㅋㅋ”

“그렇지. 그렇다면 그러한 일본여성들의 우먼파워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여성의 ‘아름다움’ 과 여성의 ‘여성다움’ 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 아름다움은 미모가 아니라 행실과 매너에서 오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지”

“우리에게는 간사스럽게 보이는 일본여성의 그 아름다움 말이지요?”

“그렇지. 일본인들은 그러한 매너를 아주 자세하고 철저히 가르치지. 예를 들어, ‘여자는 남자를 대함에 있어, 절대 아래로 내려다보지 말고 항상 쳐다보는 자세를 취하라’ 고 가르쳐. 그래서 손님이 방문하여 차를 대접할 때도 의자에 앉지 않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대접해. 이를 본 어느 한국 기업인이 상술을 위해 새로 개발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틀린 말이야. 이러한 매너는 이미 중세에 확립된 예절이야”

“정말 대단한데요?”

“게다가 ‘남자의 매력은 배짱, 여자의 매력은 애교’ 라고 할 정도로 일본여성들의 애교는 정말 대단해”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화류계에 종사하는 여자들이나 애교를 떠는 걸로 생각하는데, 일본여자들은 아무에게나 떠다는 가요?”

“몸속에 배어 있으니까...배이게 생활하니까...”

“배이게 생활하다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상대를 보가며 ‘여자답게 굴어야 할 남자’ 와 ‘여자답게 굴지 말아야 할 남자’ 를 일일이 가려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아무에게나 평상시에 아름답게 행동하기에 그런 매너가 생활화되고 저절로 몸에 배게 된 거야”

“일본여성의 매너는 세계적으로도 알아준다는 말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군요”

“선희야! 여자가 처신함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뭘 줄 알아?”

“글쎄요?”

“우먼 아 라브어블(Woman are Loveable)이라고 해. ‘여자는 사랑스러운 존재’ 라는 뜻이지”

“ㅋㅋ. 그런가?”

“다시 말하면, 여자는 아무의 사랑이나 받아들일겠다는 듯이 예쁘게 처신할 줄 알아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의 사랑이나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무나 좋아한다는 듯이 애교는 떨되, 실제로는 아무나 좋아해선 안 되고 가려서 좋아해라’ 이거네요. 그 참 어렵네요”

“그렇지. 우리는 아무에게나 친절하고 애교를 떨면 헤픈 여자 취급을 하지? 그런데 이건 아주 잘못된 거야. 우리도 이젠 여자는 아름다워야 한다는 걸 가르쳐야 돼”

“일본여자들이 실제로 헤프지 않나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절대 헤프지 않아. 언젠가 내가 업무차 일본에 들렀을 때, 거래처의 여성이 하두 아양을 떨기에 ‘내가 좋아서 그런가?’ 생각하고 한번 수작을 부려봤더니 묘하게 싹 빠져나가 버리던 걸? ㅎㅎ”

“어머머! 우리 서방님은 역시 끼가 있었나 보네?”

“아유~ 괜한 소릴 했구먼. 아니야! 그런 게 아니구...”

“아니긴 뭐가 아니야...?”

선희는 정호의 왕침을 살짝 비틀며 강짜 아닌 강짜를 부렸다. 정호는 터질 듯한 욕정을 가까스로 억누르며 서둘러 말머리를 돌렸다.

“여자에 대한 시즈께(仕村) 즉 수신교육은, 단지 ‘친절’ ‘공손’ 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남자를 만족시켜라’ 도 가르치는 거야”

“뭐? 남자를 만족시킨다고? 어떻게...?”

“예를 들면, ‘여자는 아침에 예쁘게 보여야한다’ 는 것까지 가르치지. 잠자리에 드는 밤에는 예쁘게 보이기 마련인 것이 여자이지만 정말 예쁜 여자는 아침에 예쁘게 보이는 여자가 정말로 예쁜 여자라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는 항상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화장한 얼굴을 보여라’ 고 가르쳐. 그러니까 남자들이 약해질 수 밖에...물론, 잠자리에 들 때도 잠 화장을 하는 것은 당근 기본이구...”

“잠화장은 어떻게 하는데?”

“글쎄? 나도 거기까진 자세히 모르지만...아마도...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어 내리고, 연하게 화장을 하는 정도가 아닐까? 최소한 한국여자들이 하듯이 화장을 다 지우고 콜드크림을 번들번들하게 바른 귀신같은 얼굴은 아니겠지?”

“뭐? 콜드크림을 번들번들 바른 귀신같은 얼굴? ㅋㅋㅋ”

정호의 설명에 선희가 배꼽이 빠져라 웃는다.

“한국의 남편들은 술집이나 가야 화장냄새 나는 여자를 안아본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화장을 지우고 잠자리에 들지”

“미혼인 나는 그렇다 치고 아줌마들은 그럼 안 되는데?...ㅋㅋ”

선희가 묘한 눈웃음을 치면서 또 웃는다.

“그뿐이 아니야”

“또 있어라?”

“그래, 포로노가 생기기 전의 얘기지만...흠~”

“뭔데요? 빨랑 말해 봐요”

선희는 포로노라는 말에 뭔가 필(feel)이 오는지 정호의 왕침을 짹 쥐며 다그쳤다.

“알았어! 거시기 너무 아프니깐...좀...살살...”

선희는 정호의 응석에 왕침을 조였던 손에 힘을 빼면서 말했다.

“아프긴 뭐가 아프다고...속으론 좋으면서...이제 됐어라?”

“응, 됐어! 일본의 상류사회에선 처녀의 외출이 자유롭지 않아서 섹스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결혼 직전에 어머니가 성교육을 가르치는데 아주 진하게 가르쳐”

“진하다면...? 어느 정도 진하게 가르치는데요?”

“혼자서 보게...음화(陰畵)를 처녀인 딸의 방에 넣어둔다는 거지”

“어떤 음화인데요?”

“음...이걸 꼭 말해줘야 하나?”

“오빠! 빨랑 말해줘~ 응?”

선희가 또 슬그머니 왕침을 비틀며 보낸다.

“알았어! 그러니까...일본 민화(民畵)에 보면 마흔여덟 가지의 짝짓기 자세를 그린 게 있는데, 꽤 유명하지”

“마흔여덟 가지!?! 짝짓기 자세가 그렇게도 많아? 웃긴대! ㅋㅋ”

선희의 얼굴이 갑자기 붉게 물들었다.

“그건 말이야...미리 그런 음화를 보여 줌으로써 첫날밤을 치를 때 남자가 어떤 자세의 짝짓기를 원하더라도 놀라지 말고 응해주라는 걸 가르치는 거야”

“오빠도 그 그림 봤어? ㅎㅎ”

“아~니? 난 못 봤어”

“차~! 거짓말!”

선희는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교수님은 여태까지 열 개 정도의 자세밖에 하지 않았는데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라고 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빙긋이 웃었다.

“진짜 거짓말 아니거든?”

사실 정호는 음화를 본적이 있었다. ‘다음엔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자세를 꼭 선희에게 시험해 봐야지’ 라고 속으로 다짐하면서도, 선희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짐짓 안 봤다고 둘러댄 것이다. 잠시 말이 없는 두 사람. 짝짓기 생각에...둘은 벌써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흥분의 절정을 치닫고 있었다. 서서히 기지개를 켜며 힘차게 고개를 치켜드는 정호의 왕침. 조갯살을 흠뻑 적시고도 모자라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리는 선희의 애액. 아니나 다를까? 선희의 양증맞은 손아귀를 벗어난 왕침이 거침없이 그녀의 조갯살을 파고들었다. 선희가 허리를 활처럼 뒤로 젖히며 교성을 토해냈다.

“오빠 거시기~ 너무 커...아파! 으으”

“커서 싫어? 그럼 빼?”

“아니...넌 좋아~ 계속해줘...윽!”

“으으~ 흑!”

“선희야 좋았어?”

“응! 당신 두?”

“응! 나 두~”

한바탕 달콤한 교접이 끝나고, 선희가 먼저 자연스레 아까의 얘기를 이어갔다.

“일본여자들이 남자에게 잘 보이게 하려는 것은, 결국 남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여성미를 지키기 위한 것, 자신이 놀라지 않기 위한 것이군요”

“그렇지. 자기 자신의 과시이고 자신을 위한 호신술이지. 일본인들의 전반적 사고, 괜히 남 앞에서 잘난 척하고 큰소리 쳐봤자 나만 손해라는 인식이 강하단 말이지”

“그런 일본인의 모습을 두고 우리는 ‘간사하다’ ‘압삽하다’ ‘나약하다’ 는 말로 흘려버리는군요”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악은 일본인들을 경계해야하는데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리고 마는 게지. 나부터도 왜놈들을 늘 만만하게 보는데, 막상 회사일로 밀어붙여보면 잘 밀리지 않거든?”

“아~ 나도 좀 더 약해져야겠는데? 그래서 우리 서방님 꼬리를 짝 붙들어야쥐. ㅎㅎ”

“그래? 선희는 벌써 내 꼬리뿐만 아니라 심장까지도 짝 쥐고 있지 않았어? ㅋㅋ”

심장까지도 짝 쥐고 있다는 정호의 말에 선희는 날아갈듯 기분이 좋았다.

“그럼 난 여자로서 F는 아니고 C학점은 되겠네?”

“무슨 말씀, 선희는 내게 A+++지”

진심을 말한 정호는 그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은근히 쑥스러웠다. 선희는 정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슬쩍 말머리를 돌렸다.

“A+++?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말하셔~이젠 수신과 도덕의 구별이 확실해졌으니까 빨랑 다음진도나 나가지라”

“그럼 그럴까?”

“뭐하고 있당가? 빨랑빨랑 진도나 나가라니께”

“음...도덕은 상대적인 거야.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지. 그러나 아름다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 즉 수신(修身)을 잘한다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인생의 기본인 거야. 바로 이 기본이 잘돼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 도덕은 저절로 확립되는 거야. 일본의 미쯔이(三井)재벌의 2세는 평생 동안 첩을 두지 않았는데, 그 당시 시대상황으로 봐선 대단히 드문 일이었지. 이를 두고 주위에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이다’ 고 하니까, ‘나는 도덕에 대해선 잘 모른다. 다만, 나는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첩을 두지 않은 것뿐이다’ 고 했다는 거야”

“그 사람, 완전히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사고방식이네요”

## 제15장 - 오야붕 곤쥬(親分 根性)

선희는 뭔가를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헌데, ‘왜 그렇게 좋은 수신교육을 하지 않게 되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호는 다소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선희의 말을 받았다.

“정말 핵심적인 문제에 착안했구나. 지금 그걸 설명할 참이었는데...”

“그런가요? 알고 싶어요...왜죠?”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야...없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흐름 속에 있었던 거야”

“없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흐름...? 어떤 흐름인데요?”

“일본은 무술연마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수신을 특히 강조해 왔지. 물론 글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수신을 해야겠지만, 무술연마를 위해서는 더 수신을 해야 했거든?”

“그래요?”

“글공부는 즐기면서 할 수도 있지만 무술연마는 그렇게 안 되잖아”

“그러네요”

“그래서 옛날부터 수신을 중요시 해오던 중에, 1880년경 학교교육을 정비하면서 수신을 아예 독립학과목으로 정했었지”

“근대에 들어와서?”

“그렇지”

“잘한 것 같네요”

“그런데, 군부가 실권을 장악하고 군국주의(軍國主義)정책을 펴 나가면서부터 교육도 ‘스파르타식’ ‘군대식’ 으로 바꾸어, 수신을 피교육자에게 기합(氣合)을 주고 군기(軍紀)를 세우는 일에 악용했던 거야. 수신(修身)은 인간을 만드는 교육이기 때문에 자연히 기합도 주고 정신일도(精神一到)의 훈련도 하게 되는데, 그걸 악용한 거야. 특하면 ‘인간이 덜 됐다’ 고 하면서 기합을 주고 매로 때리곤 했지”

“어째 요즘 한창 시끄러운 ‘이지메’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거야. 그런 이지메 분위기가 학교와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진 결과 점차 사람들이 수신교육을 싫어하게 된 거야”

“그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2차대전에 패한 일본이 미군정하에 들어가게 되니까 미군이 수신교육 폐지를 명령했고, ‘수신’ 이라는 과목을 폐지하고 난 후 ‘도덕’ 이라는 과목을 두어 자유민주주의적 사회철서를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게 된거야”

“그런데...우리는요?”

“우리도 일제 치하에서 수신교육에 호되게 당했지. 일본말을 하지 않아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도, 일본아기와 싸워도 ‘인간이 덜 되었다’ 고 때렸으니까. 그래서 독립이 되자마자 곧 ‘수신’ 을 폐지하고 ‘도덕(道德)’ ‘공민(公民)’ ‘사회생활(社會生活)’ 등으로 바꾸어 민주주의(民主主義)나 가르치기에 바꿨지”

“자유, 평등 같은...?”

“그렇지”

“그랬었군요”

“그래도 일본에서는 ‘시즈께’ 라는 가정교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수신교육이 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반해,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을 자처하는 우리는 그런 가정교육이 사라져 버리고 만 거야. 하기에, 우리 교육도 해방이후 미국에 의해 민주주의를 수입하고 나서도, 1980년 이전인 박정희 대통령시절까지는 그런대로 가정과 학교에서 수신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었지. 그런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통금해제’ ‘두발자율화’ ‘술집개방화’ 등등, 쿠데타정권의 유지 목적에 따른 우민화(愚民化)정책의 급격한 시행으로 말미암아 조였던 고삐가 한꺼번에 풀리면서, 위아래도 없고 인정도 메말라 버린 그야말로 완전한 자유세상이 돼 버리고 만 게지”

“민주주의의 장점도 많지만, 민주주의를 너무 방종(放縱)한 결과 ‘예의범절(禮儀凡節)’ ‘인정(人情)’ 과 같은 소중한 우리 것들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개판이 된 거군요”

“개판까지야...하지만 소중한 우리 것들을 잃었다는 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

“예전의 우리 가정교육은 어땠나요?”

“우리의 교육은 일제 이전엔 주로 양반계급만의 것이었고, 일제 치하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대중화되었지”

“양반에게만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지. 그래도 양반들은 가정과 서당에서 철저한 수신교육을 받았지만, 그 외는 제대로 된 수신교육을 받지 못했지. 그러다가 일제치하에서 반상(班常)을 불문하고 혹독한 수신교육을 받다보니 아주 신물이 났던 거야. 그래서 일제의 잔재를 몰아낸답시고 수신을 버리고 오직 미

국식 자유민주주의적 교육에 빠진 결과, 급기야는 과보호(過保護)라는 골치 아픈 문제까지 생기게 된 거야”

“그리고 보니 역사란 정말 무섭네요. 일단 어떤 흐름을 타게 되면 좋은 것 나쁜 것 가리지 않고 그냥 무더기 도매금으로 흘러가 버리네요”

“무섭지. YS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느니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하겠다느니 요란스레 큰소리를 뽕뽕 쳤지만, 일제교육의 부활이라는 여론이 두려워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결국 수신교육을 하자는 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지. 수신은 중국이 오리지널이고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한건데 아마도 일본 거라고 생각했나봐”

“철대가리들의 목소리는 그냥 목에 힘주는 소리로 밖엔 들리지 않아요”

“말에는 뉘앙스라는 것이 있어. 그 말이 주는 ‘느낌’, 또는 ‘숨은 의미’ 라는 거지. 가령, 한국이나 일본에서 ‘외국인 같다’ 고 했을 때는 ‘멋이 있고 유식하다’ 는 뉘앙스가 있지. 왜냐하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들 외국문화를 받아들여 근대화를 했으니까”

“교수님 보고 외국인 같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 내가 외국인 같다고? 공치사 발언은 그만해라. 지나가는 소도 웃겠다. 런던이나 뉴욕 같은 곳에서 ‘외국인 같다’ 고 하면 ‘촌놈’ 이라는 뉘앙스가 있어. 왜냐? 일찍 대도시가 생겨 촌놈들과 외국인들이 와서 어리둥절하며 헤맸으니까”

“그럴 듯 한데요?”

“또, 프랑스에서는 ‘바람둥이 같다’ 는 뉘앙스가 있어. 파리에 ‘멋 따라’ ‘유행 따라’ 한량들이 모여들었고, 정치적 망명객들이 많이 와서 멋을 부리며 놀았다는 역사가 있으니까”

“세기적 한량이었던 ‘카사노바’ 도 프랑스에 망명해서 많이 놀았다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지? 그래, 선희 말처럼 프랑스 여자들...꽤 많이 울렸지. 그것도 아주 상류층 사회의 여자들이 카사노바의 주 먹잇감이었지”

“그랬어요? 전 거기까지 잘 몰랐는데...”

“또 독일에서는 ‘막노동꾼’ 이라는 뉘앙스가 있지. 독일인들은 배타성이 강하여 외국인이 와서 좋은 직업을 가지기 어려우니까 막노동을 했기 때문이야”

“참 재밌다. 외국에 가서는 함부로 ‘외국인 같다’ 는 소릴 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물론이지. 그런데 요즘 철대가리들이 하고 있는 말중에는 아주 기분나쁜 뉘앙스를 풍기는 것들이 많단말이야”

“어떤 말들이...?”

“방금 선희가 ‘목에 힘주는 소리 같다’ 고 했잖아. 바로 그런 것들이야.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하겠다’ 고 하니까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한 식물국민을 만들겠다’ 는 소리로 들리는 거야. 먼저 ‘지도계급을 보고 인간이 되어라’ 고 한다면 몰라도, 국민들에게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하겠다’ 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지”

“또 어떤 기분 나쁜 말이 있는데요?”

“전에도 말했듯이 ‘공동체’ 라는 말도 기분 나쁜 거지. 지도계급에 있는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면 전혀 공동체의 지도자답지 않은데, 국민들에게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라’ 고 하니까 즐라 기분 나쁜 게지”

“또 있나요?”

“당근, 또 있지. 일본인의 근검절약(勤儉節約)이라든지 애국심(愛國心) 같은 것들을 배우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일본의 지도층들이 술선수범 하는 것, 오야붕 곤조(親分 根性) 같은 그런걸 배우라는 소릴 먼저해야 되는거야”

“ ‘오야붕 곤조’ 가 뭔데요?”

“오야붕 곤조(親分 根性)는 두목근성(頭目根性)이라는 건데, 이 근성은 ‘나는 손해를 보고 괴롭겠지만 당당하게 두목답게 행동하겠다’ 는 고집스러운 기질이야. 비록 괴롭고 힘들더라도 술선수범하고, 희생적으로 부하를 위해주고, 부하에게 밑게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두목의 도리를 다한다는 거야. 가령 말이지...”

“예”

“약 20년 전에 한국에 왔다가 돌아가는 일본의 어느 작은 중소기업 사장과 같이 일본에 간 적이 있었어. 그 당시만 해도 외국에 나갔다 오면 면세점에서 선물도 많이 사고 친지들로부터 선물도 많이 받았을 때야. 그래서 외국출장을 다녀오면 먼저 집부터 들려서 가져온 선물꾸러미를 내려놓고 회사로 갔지. 나야 뭐 그 당시 학교에 있었으니까 별 문제였지만, 당시 내가 알고 있는 한국 기업체의 임직원들은 거의 다 그랬어. 그런데 이 사장은 공항에 내리자 말자 곧장 회사로 가는 거야”

“선물을 다 가지고요?”

“그럼. 그래서 전무에게 담배며 술이며 선물로 받은 김, 버섯, 인삼 등을 모두 사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고선, 자신은 달랑 소주 한 병만 가지는 거야. 더구나 전무가 ‘사장님, 위스키 한 병만이라도 가져가시죠?’ 하니까, 막 야단을 치는 거야”

“야단을 쳐요?”

“그래, 그것도 아주 화가 난 목소리로 ‘전무는 내가 집에선 술 마시지 않는 걸 모르나?’ 고 하더라구”

“그건 좀 심했네요”

“내가 옆에 있는 사장 부인에게 ‘정말 집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 봤더니, 부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마시지요. 하지만 저놈의 오야붕 곤조(根性)는 어느 누구도 절대 못 말려요’ 하더라구”

“.....”

“한국의 철대가리들이 이러한 오야붕 곤조를 배우라는 소리는 하지 않고, 국민 길들이기 같은 소리나 하고 자빠졌으니까 ‘일본을 알자’ 는 말의 뉘앙스가 나쁜 거야”

“사실 말이에요. ‘일본을 배우자’ 고 하면 나도 모르게 은근히 거부감이 생겨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좀더 골치 아픈 얘기를 해 볼까?”

“하세요. 나는 골치 하나도 안 아파요. ㅋㅋ”

“일본의 근대화 과정은 그야말로 광란(狂亂) 그 자체였어. 즉, 일본의 학자들도 이점을 인정할 만큼 한마디로 말해서 ‘미친 짓이었다’ 는 게야”

“미친 짓이었다고요? 왜요?”

“일본의 학자들은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두고 ‘이데올로기의 잡탕 같은 시대였다’ 고 했는데, 이는 근대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천황을 신격 존재로 받드는 전근대적인 일을 자행했고, 또한 가미카제(神風)와 같은 자살특공대를 만들어 이를 미화하기도 했지. 그것이 비록 실패작으로 끝나긴 했었지만 하마터면 동북아(東北亞)의 지도를 바꿔놓을 만큼 승승장구 했잖아?”

“그랬었지요”

“그들이 그렇게 미친 짓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 술선수범했다는 거야. 근검절약을 몸소 실천했고, 어느 장군이나 장관도 자기 자식을 후방으로 빼돌리거나 병역기피를 시키지 않았어. 만약에, 지도자들의 이런 술선수범이 없었다면 아마도 군국주의(軍國主義)에 반대하는 데모가 거세게 일어났을지도 몰라. YS는 걸으론 술선수범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그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으니, 결국 그의 말은 ‘사탕발림’ 에 불과했다는 게야”

“우리는 문민정부가 들어섰다고 ‘줄아라~’ 했었는데...”

그 때, 선희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정호는 그녀의 한숨이 역사의 무서움을 실감한 한숨이려니 생각했지만, 실은 섬그늘이 바다에 깔려 일어 설 때를 알리기 시작했기에 나온 아쉬움의 한숨이었다.

“벌써 황혼이 찾아드나봐? 야속하게스리...”

아직도 상심하고 있지 않나 싶어 슬금슬금 눈치나 보는 어머니가 있는 외갓집으로 돌아 갈 생각을 하니 절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정호는 집에 돌아가기 싫어하는 그녀가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다. 사실, 집으로 돌아가기 싫은 마음은 정호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반겨주는 이 없는 썰렁한 하숙집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싫은 거다. 선희를 알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홀아비 신세를 잘 견뎌왔다. 바이어가 자주 오는 편이라서 요정에 갈 기회도 잦았고 술과 여자도 심심치 않게 즐겼다. 한가로울 때는 독서와 클래식음악이 벗이 되어주곤 했었다. 그런데, 선희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생활의 활력은 느끼면서도 고독의 그림자는 더욱 진해졌다.

## 제16장 - 일본인의 성관념(性觀念)

“선희야! 이제 그만 일어서야지?”

“그럼 그래요...”

정호는 웃옷을 벗어 선희의 어깨를 덮어주며 먼저 일어섰다. 아직은 초가을이라 그런지 바닷바람이 그렇게 춥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정호는 웬지 선희의 어깨를 덮어주고 싶었다. 선희가 금세 쪼르르 달려와 정호의 팔짱을 꼭 낀다. 두 사람은 ‘혹시라도 떨어질까?’ 팔짱을 꼭 낀 채 그렇게 한참을 걸었다. 정호는 걸으면서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선희야! 일본인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알아두어야 할 게 있는데...”

“뭔데요?”

“성도의(性道義)라고 할까? 성관념(性觀念)이라고 할까? 아무튼 그것이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야. 우린 너무나 패쇄적인데 비해, 일본은 너무 개방적이고 자유롭단 말이야. 서양인들이 보고 놀랐을 정도니까...”

“그렇게 대단하당가요?”

“16세기에 약30년 간 일본에 체류했던 포르투갈 선교사 ‘후로이시(Frois Luis)’가 쓴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 ‘유럽에서는 미혼여성의 최고명예는 정조를 잃지 않고 순결을 지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여성은 처녀의 순결을 전혀 중요시하지 않는다. 순결을 잃는다고 해도 전혀 불명예가 아니며 결혼도 할 수 있다’ 라고...”

“사실일까요? 좀 믿기 어려운데...”

“사실이야. 대표적인 예로, 도쿠가와 막부의 2대째 장군인 도쿠가와 히데다따(德川 秀忠)는 세 번 이혼한 여자와 결혼했으니 말할 것도 없지. 만약, 여자 가치의 판단 기준으로 ‘처녀성’을 생각했다면 최고 권력자인 쇼군이 왜 처녀장가를 들지 않았겠어? 혼전성교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일본인들은 자유연애를 통한 혼전성교가 배우자 선택의 한 방법인 것 같다’고 후로이시가 썼을 정도야”

“미리 짚짓기를 해보고 속궁합이 맞으면 결혼한다? 정말 웃긴다. ㅋㅋ”

정호는 자지러질 듯 웃는 선희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일본은 매춘도 일찍부터 발달되어 16세기경에 벌써 공창(公娼)이 생겼고, 17세기경에는 벌써 ‘호색일대남(好色一代男)’이라는 에로소설이 나왔을 정도였으니, 이만하면 성개방(性開放)도 대단한 개방이 아니겠어?”

“쪽바리들이 색을 밝히는 건 지금도 여전하지 않을까요? 정신대 같은 것만 봐도...”

“일본인의 성개방이 19세기말에 서구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많이 점잖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성 자유 민족이지. 몇 년 전 이자와(井澤)라는 작가가 쓴 ‘한의 법정(恨の法廷)’이라는 소설에는 처녀성을 잃었다고 고민하는 한국처녀를 보고 ‘일본에 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어”

“문제없이 결혼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1960년대에 ‘차탈레부인의 사랑’을 번역한 것이 외설죄로 기소된 적이 있었는데, 검사가 ‘성을 노골적으로 표현해서는 안되는 일본의 전통을 무시하고...’라는 논고(論告)에 대해, 교토(京都)대학의 교수가 반박한 것을 보니 기가 차드라구”

“어떤 반박을 했는데요?”

“성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면서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가며 ‘어떻게 그런 무식한 논고를 할 수 있느냐?’고 반박한 것이었어”

“어느 정도로 노골적이었죠?”

“일본의 시조신(始祖神)이 첫날밤에 여동생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그대의 몸에는 되려다 덜된 부분이 있고 내 몸에는 되다가 남은 부분이 있나니, 그대의 덜된 부분과 나의 남은 부분을 합하여 자손을 번식하여 나라를 번창하게 하고...’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야. 시조신부터 이렇게 노골적 표현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지”

“덜된 부분...? 남은 부분...?”

선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이내 활짝 웃었다.

“이제 이해가 가니? ㅎㅎ”

“그런데 시조신이라면 신화(神話)가 아닌가요?”

“일본인들은 3세기경까지를 ‘신화의 시대’ 라고 하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어떤 이유지라?”

“왜냐하면, 이때는 가야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원시상태에 있던 일본의 원주민들을 가르치며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던 때였어. 가야인들은 원체 체구가 크고 원주민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철로 만든 칼과 갑옷, 그리고 마구(馬具)와 거울 같은 문화의 이기와 기술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신(神)으로 보였던 거야”

“그럼 일본의 시조가 가야인이겠네요”

“일본 왕가의 시조가 가야인(伽倻人)이라는 설도 있긴 해. 제일교포 역사연구가인 정현규(鄭鉉奎)씨가 책으로 써내기도 했지만, 이웃나라 왕가(王家)에 대한 일이어서 학계에서는 밝히길 주저하고 있지. 따라서 일본의 시조신이 가야인인지도 몰라”

“그럼 신이 아니고 인간인데 남매기간에 결혼했던 말인가요?”

“사기(史記)에 나와 있는 ‘이모’ 라는 말이 여동생이라는 ‘이모또’ 의 고어(古語) 인지? 아니면 그냥 여자이름 인지? 에 대해선 학설이 분분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근친(近親)인 것만큼은 틀림없다는 게 통설이야”

“하για 고대였으니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당시엔 신라(新羅)왕가에서도 성골(聖骨)은 부모가 다 왕족(王族)이었던 것으로 봐서, 그 부모가 친남매(親男妹)였을 가능성도 있잖아?”

“그러게요. 어느 한쪽이 왕족이 아닌 귀족일 경우는 진골(眞骨)이라고 했으니, 신라인이나 가야인이 건너갔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12세기 전반에 편집된 ‘곤자꾸모노가따리(今昔物語)’ 라는 이야기책에도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남매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고 이 자식들을 또 서로 결혼시켜서 자손을 번식시킨 ‘이모세시마(妹兄島)’ 라는 섬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통설이 맞는 것 같아. 아무튼 고대 이래로 성교(性交)를 생산(生産)과 번영(繁榮)을 뜻하는 신성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극히 최근까지도 모심기가 끝나고 풍년을 기원하는 축제를 할 때면, 그 마을의 선남선녀를 뽑아서 결혼을 시키고 첫 성교를 마을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공개적으로 하는 지방이 있었어”

“설마 그럴리가? 정말 그렇다면 완전히 짐승이게요?”

“나도 설마? 했는데, 몇몇 나이 많은 일본 교수에게 물어보니 사실이라는 게야”

“일본인들이 섹스에 대해선 별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건 엄청 별난 거네요”

“나쁘게 말하면 음란하고 좋게 말하면 합리적이라고 할까? 짝짓기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생산을 하고 정을 나누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야.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단순히 생리현상의 하나로 보는 게지”

“ ‘언니가 죽고 형부와 살더라도 언니와 ‘살든 사람’ 이라는 생각에 중점을 두지, 언니와 ‘자든 사람’ 이라는 생각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고 하신 말이 기억나네요”

“그래? 아~우리 공주님 기억력 좋은데?”

“정말 우리와는 극과 극이네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고대부터 창녀가 있었고 공창이 있었어. ‘포르노’ 는 그리스어로 ‘창녀’ 라는 뜻이야”

“예수 이야기에도 ‘마리아 막달레나’ 라는 창녀가 나오죠?”

“그렇지”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도 매춘은 있지 않았나요?”

“꼭히 있다고 한다면야 ‘기생’ 이나 ‘술집작부’ ‘광대’ 등이 몸을 팔기는 했었지만, 일본이나 유럽처럼 매춘을 본업으로 하진 않았어. 일종의 아르바이트나 정으로 했던 게지. 그러나 유럽이나 일본의 매춘은 몸 파는 것을 목적으로 한 거야. 부산에 있는 ‘완월동’ 이나 대구에 있는 ‘자갈마당’ 등 사창가는 다 왜놈들이 만든 거야”

“그렇군요. 역사도 대충 피상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겠네요. 정치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우리나라 철대가리들은 공부할 생각은 안하고 도대체 뭘 하는지 몰라”

“이런 공부는 안하는 게 점잖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우리도 많이 변하지 않았나요?”

“성 개방은 세계적인 추세니까 계속 전통만 고집하고 있을 수 있겠어? 성 표현이 자유로워지니까 개방은 불가피한 거야. 오죽하면 20세기는 성 개방의 세기였다고 할까?”

“성 표현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진 거죠?”

“2차대전후부터야. 다 가족계획 때문이지”

“가족계획과 뭐 상관이 있어라?”

“역사를 돌아해보면, 인구는 많을수록 좋다고 하던 때도 있었고 19세기초 같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고 하던 때도 있었어”

“19세기 초라면 멜서스의 ‘인구론’ 이 나왔던 시기 같네요”

“맞아. 영국학자인 그는 최초로 산아제한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의 주장은 결혼시기의 연장과 같은 것이었어. 그래서 그를 ‘도덕적산아제한자’ 라고도 하지”

“결혼을 늦게 한다고 해서 인구증가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요?”

“결혼을 일찍 하면 한 세대에 증손(曾孫) 고손(高孫)까지 보게 되는데, 늦게 하면 손자(孫子) 정도에서 끝나게 되니까 증가가 둔해지는 거지”

“그러네요”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피임을 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를 ‘신 멜서스 학파’ 라고 했어. 그런데 2차대전이 일어나자 이번에는 ‘많이 낳는 것이 애국’ 이라고 할 정도로 인구부족현상이 일어 난 거야”

“군인이 필요해서...?”

“그렇지. 그런데 2차대전이 끝나자, 이번에는 ‘인구폭발’ 이라고 할 정도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야. 군인과 해외로 피난 갔던 사람들이 다들 집으로 돌아와 짝짓기를 시작하자 갑자기 인구가 증가한 반면, 페니실린의 발명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 점차 수명은 늘어나고 죽는 사람은 적어진 거야. 소위 다산소사형(多産小死形) 인구증가가 된 게지. 주로 선진국에서”

“그랬군요”

“그래서 가족계획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정부가 앞장서서 본격적으로 피임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보니 자연히 성적 표현도 자유로워진 거야”

“피임하는데 성적 표현이 자유로워진다고요?”

“피임을 가르치려면 음경, 질구, 정액, 사정과 같은 말들을 예사로 하게 될 뿐 아니라, 남녀생식기의 그림이나 사진까지도 보여줘야 했거든?”

“그럼 그전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었나요?”

“하긴 했지만, 병원의 의사들이나 했고...남자끼리 모인 술자리 정도에서나 했지... 요즘 같지 않았어”

“아하~! 그랬었군요”

“내가 대학에 다닐 때, 형법시간에 교수가 범죄의 기수시점에 대해 강의를 하는데 간통죄에 관한 게 나온 거야. 두 사람이 여관에 들어가기만 해도 기수냐? 옷을 벗고 같은 침대에 올라가기만 해도 기수냐? 아니면, 교접을 하다가 사정까지 하지 않고 들켰다면 미수냐? 등등에 관한 거였어”

“웃긴다. ㅋㅋ”

“제일 유력한 설은 ‘성기접합설(性器接合說)’ 이라는 거야. 음경이 질구에 닿아야 기수라는 거지. 그 때 이 강의를 하던 교수는 얼굴이 빨게 지며 학생들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 요즘에야 별 것도 아니지만...”

“ ‘즐거운 사라’ 의 작가인 마광수와 같은 교수도 있는 걸요?”

“요즘엔 무엇보다 섹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을 바꿔 놨 버렸어”

“어떻게요?”

“예전에는 결혼을 전제로 출산과 양육을 동반한 섹스가 원칙이었어. 또한 섹스에 대한 표현도 짝짓기 한 것을 두고 ‘조물주 노릇했다’ ‘동업 좀 했다’ 고 할 정도였어”

“조물주 노릇이라뇨?”

“짝짓기를 하면 생명체가 창조되는데 생명체는 바로 조물주가 창조하니까...”

“말 되네요. 그럼 동업은요?”

“생명체를 만드는 건 혼자서 못하잖아. 둘이서 만드니까 동업인 게지”

“그것도 말 되네요? ㅋㅋ”

“그런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임을 선전하면서 ‘섹스는 그것 자체로 즐기는 것이다. 반드시 출산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다. 피임으로 임신 없이 마음껏 즐겨라’ 고 역설한 거야. 그러자 너도나도 ‘얼씨구 좋아라~’ 며 마음껏 짹짹놀이를 즐기게 됐고, 더불어 성적표현도 보다 대범하고 과감해졌고 이에 자연스럽게 섹스산업도 발달하게 된 거야. 20세기를 ‘성 자유’ ‘성 개방’ 의 세기라고 부를 정도로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철대가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처할 생각이 없고, 공공연히 할 짓 다하는 세상에 그저 ‘윤리도덕’ 이니 ‘미풍양속’ 이니 하면서, ‘금지’ ‘단속’ 밖에 모르는 것 같으니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운동권 출신의 정치철대가리들이 그렇지. 지네들은 뒷구멍에서 온갖 짓을 하면서도 국민들 앞에서는 ‘도덕’ 과 ‘인권’ 을 들먹이지”

“인권이란 것도 가만히 보면 꽤 애매한 개념인 것 같아요. 매춘부의 인권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마음대로 벌어들여 두는 게 인권을 존중하는 건지? 몸은 귀중한 것이니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인권을 존중하는 건지? 참으로 아리송해요. 근로자들은 다들 자기 몸뚱아리를 파는 사람들 아닌가요? 인간의 즐거움 중에 최고의 즐거움 중 하나가 바로 섹스인데...한번 결혼했으면 죽을 때까지 배우자 한사람과만 섹스를 즐겨야 한다? 이걸 너무 심하지 않나요?”

“우리의 인권론(人權論)은 케케묵고 낡아빠진 백년 전 것이야. 백년 전에 강도나 살인범이라도 인권이 있다고 해서 ‘교도주의’ 를 강조했는데, 그것이 범죄행위의 피해자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해서 반대에 부딪혔고, ‘형벌은 역시 형벌다워야 한다’ 는 주장이 강해져 양쪽의 인권을 모두 존중하는 방향을 찾게 된 거야. 그것이 백년 전의 일이지. 그런데 우리나라의 무식한 정치철대가리들은 범죄를 저지른 자를 대우해 주기만 하면 인권문제는 ‘OK’ 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사기를 당한 사람은 가슴앓이를 하다가 암으로 죽어 가는데, 사기를 친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 누워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 밥을 먹으며 편히 쉬고 있지않아요”

“덕택에 포주와 단속공무원의 주머니만 두둑해지고, 매춘 값이 비싸져 대중적인 것이 못되다보니 성범죄는 나날이 늘고, 몸 파는 여성들에 대한 착취 또한 심해져 ‘우범시대’, ‘비위생시대’ 가 되는등 부작용만 커지는 거야”

“단속이 강화되면 찾는 손님이 없을 테고, 그럼...값이 내려가야지 왜 비싸지죠?”

“매춘금지법이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지 오래이긴 하지만 어찌됐던 엄연한 위법이야. 단속을 피해 영업을 계속하려면 관할 경찰서나 구청에 돈을 쥐야 눈감아 줄 건 뻔한 이치인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어? 당연히 손님에게 받거나 창녀에게서 착취해야하니까 그렇지”

“그렇겠군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성적 자극만 잔뜩 받고 배설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야. 일본에서는 섹스산업이 최고조에 달했던 1970년부터 1988년 사이에 성범죄가 1.5% 감소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기간에 역으로 10%나 증가했지 뭐야”

“그럼 포주들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건요?”

“단속 공무원들의 로비를 포주들이 하니까 그렇지. 포주들은 로비를 한답시고 창녀들의 몸값에서 뜯어가고 일부를 슬쩍 뺏망하기 때문이야”

“어렵네요. 그런데 철대가리들은 이런 걸 모르나요?”

“물론 알고 있지. 하지만 알더라도 말하기가 싫은 거야. 잘못 말했다가는 ‘전통이다’ ‘도덕이다’ 하고 얼어맞기 일쑤니까. 요컨대 유럽이나 일본은 매춘에 대한 역사적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 개방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매춘이 없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게야. 또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다양해서 어떤 사람은 죄악시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개방적이라서 초점을 맞출 수 없어. 요즘엔 남자는 90% 여자는 60%가 혼외성교(婚外性交)를 하고 있다잖아. 암튼, 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새는 줄 모르는데 초점은 동방예의지국에 맞춰야하니 어려운 게지”

“혼외성교라...?”

“애인이 있다는 거지. 로마인들은 매춘이 있기 때문에 유부녀와 처녀가 정조를 지킬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매춘을 금하니까 애인을 두는 거지. 그러니까 유부녀와 처녀가 당하는 거야. ㅎㅎ”

“차라리 특정구역을 정해서 엄격한 허가제를 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세금도 내게 하고...창녀들도 창녀라는 직업을 당당히 말하고...”

“물론, 창녀들도 그들의 직업을 당당히 말하고 번만큼 납세도 하면 얼마나 떳떳하겠어? 그런데 허가제로 했을 때, 그 ‘허가(許可)’ 라는

‘이권(利權)’을 둘러싼 부작용이 있고, 허가를 받은 사창과 그렇지 못한 비밀사창이 생겨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야. 허가라는 자체가 일제 시대의 유물이기도 하구...”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자유화 해버리면 온통 창녀 투성이가 되게요?”

“그런 사고방식이 문제인 거야. 선희야! 통금이 없어졌다고 밤새도록 사람들이 돌아다니든? 돈벌이가 잘된다는 주유소가 신고제가 됐다고 해서 온통 주유소 투성이가 되든? 영업시간 제한을 풀었다고 해서 모든 술집이 날 새도록 영업을 하든?”

“그건 아니죠”

“바로 그거야. 아무리 자유화를 해도 창녀가 안될 사람은 안되는 거고, 사창가에 가기 싫은 사람은 안가는 거야. 인체에 자기조절능력이 있듯이 사회에도 자기조절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회를 두고 유기체(有機體)라고 하는 학설도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저 법과 행정의 잣대로만 다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게야”

“뭐...행정편의주의...그거겠죠”

“일단 전면적인 자유화를 해놓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을 단속해 나가는 슬기로우미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게야.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라는 것부터 문제니까”

“감히 누가 그런 말을 먼저 꺼낼 수 있느냐는 거군요”

“그렇지. 그러나 성 자유의 경험이 있는 일본은 아주 잘하고 있어. 일본은 전후에 여성국회의원이 나와서 매춘폐지를 강하게 주장해 사창도 공창도 모두 없애버렸어. 그러나 잇따라 성개방시대가 오자 ‘창녀다’ ‘유곽이다’ 는 말은 없어졌으나 ‘터키탕이니’ ‘안마니’ 하는 변형된 매춘이 유행되기 시작했고, 당국이나 일반 여론도 별로 떠들지 않아 그런대로 큰 부작용 없이 잘하고 있는 거야”

어느새 둘은 꽤 많이 걸었다. 정호는 강의하는데 취했고, 선희는 듣는데 취해서 시간가는 줄 몰랐다. 택시 승강장이 있는 곳까지 오자 선희가 말했다.

“오빠! 오늘 교실은 정말 좋았어요. 일본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에서의 일본학 강의”

“선희가 좋았다면 나는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신나는 거지”

“하지만 참 안타깝네요.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뭔데?”

“일본의 지도층인 우파 쪽 사람들은 머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잘 드는 칼... 완전히 칼대가리지”

“그런데 왜 역사왜곡이나 하지마라는 신사참배를 구태여 하는 거죠?”

“그걸 설명하려면 좀 긴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다음에 해야죠 뭐”

“아니야! 역에 가서 내일 아침 차표를 미리 끊어놓고 저녁식사 후 근처의 호텔교실에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 되지 뭐”

“어머머~! 정말? 아이 신난다”

선희는 곧장 헤어질 줄 알았는데 정호가 오늘밤 자기랑 같이 자고 가겠다고 하니, 어린애처럼 깡충깡충 뛰며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정호는 그런 그녀가 귀여운 듯 가볍게 엉덩이를 쓰다듬어 주고 나서 그녀의 귀에 입술을 대고 나직이속삭였다.

“밭아야 할 상도 있어...”

가쁜 숨을 내쉬며 선희가 말을 받았다.

“나 두...서방님께...드릴 상이 있어라~”

## 제17장 - 미국이 만든 후란켄슈타인- ‘日本’

저녁식사를 마친 뒤 호텔방에 들어선 두 사람. 그들은 마치 성에 굶주린 짐승처럼 서로의 옷을 거칠게 벗겨나갔다. 선 자세 그대로 정호의 왕침이 선희의 조갯살을 무지막지하게 뚫고 들어가자 그녀의 입에서 참을 수없는 교성이 흘러나왔다.

“아으~ 으~”

“으...음~ 좋아?”

“으응!”

선희는 더 이상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정호의 목에 매달린 채 길게 뻗은 두 다리로 정호의 허리를 뺨처럼 휘감고 탐스런 엉덩이를 연신 앞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호도 이에 뒤질세라...선희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받쳐 들고...그녀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가며 절구질을 하기 시작했다.

‘철썩! 철썩! 철썩!’

한번의 사정이 끝나자, 정호는 자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선희를 안아 침대 끝자락에 눕히고, 허리를 구부려 그녀의 양다리를 그의 어깨위에 걸쳤다. 정호의 딱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성난 왕침이 더욱 깊숙이 조갯살을 파고들자, 이내 선희의 입에서 자지러질 듯한 비명이 튀어나왔다.

“아악!”

이어서 정호의 왕침이 정교한 시술에 들어갔다.

‘좌33, 우33’

‘세번은 짧게...한번은 길게’

“오빠~ 으으으~”

“좋아?”

“응!”

“으으~ 흑!”

한바탕 진한 교접이 끝나고 선희가 축 늘어진 왕침을 손으로 매만지며 속삭였다.

“오빠! 한번만 더하자 응? 나...그동안 많이 외로웠거든...”

정호는 크게 한숨을 한번 내쉬고 난 뒤 그녀의 말을 받았다.

“알았어. 조금만 쉬고...응?”

강짜를 부러봤자 억지로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선희는 차라리 강의를 유도했다.

“오빠! 아까 내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했잖아?”

“음 그랬었지. 말해 봐”

“내가 보기엔 일본의 역사왜곡은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에 손해가 될 것 같은데요?”

“선희야 그런데...좀 그렇다. 이렇게 발가벗고 강의하기엔... ㅎㅎ”

“어때? 일본사람들은 엉뚱한 짓을 잘한다면서? 일본학 강의를 이쯤은 돼야지. ㅋㅋ”

“그런가?”

“그럼 돼지라. ㅎㅎ! 이 교실의 학장님이 OK하면 되는 거야”

정호는 그런 선희가 너무 귀엽다는 듯 힘껏 그녀를 안아주었다.

“좋아. 그럼 일본학 강의를 마무리해 볼까요?”

“Let's Go~”

선희는 이렇게 외치며 정호의 품속을 더욱 파고들었다.

“고대부터 일본은 역사왜곡에 도가 트인 민족이야. 거기에 재미를 드린 거야”

“고대부터라고요?”

“그래, 일본의 역사는 엄밀히 따져서 2,000년이 훨씬 못돼는 거야. 그걸 왜놈들이 2,600년으로 후까지(蒸し) 한 거지”

“ ‘후까지’ 는 일본말인데?”

“일본학 강의니깐 좀 쓰면 어때? 내 고향 경상도 울진지방에서는 아직도 잘 쓰는 말이야. 어쩌면 이게 옛날 경상도 말인지도 몰라. 일본의 고전인 망요수(萬葉集)라는 책을 이영희라는 한국학자가 옛날 경상도 말로 읽어니까 다 읽혀지더라고 하잖아. 예를 들어, ‘폼羅-오라’ 를 일본어로는 말이 안 되는데 경상도 말인 ‘오라’ 로 하니까 말이 된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도 5,000년 역사는 좀 후까지 한 것 같은데요?”

“꿈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믿기 어렵지”

“그런데 어째서 일본만 왜곡, 후까지했다는 거죠?”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도, 역사의 시작을 멀리 부풀리고 시조를 신 또는 동물에 의인화(擬人化)하지. 왜냐하면, 시작할 당시를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인 거야”

“누군지 잘 모르니까 꿈이라고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 그런데 일본은 확실한데도 후까지하고 확실한 사람을 신(神)으로 했지”

“왜 그렇죠?”

“일본의 역사는 가야인(伽倻人)들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부터 시작된 거야. 1세기경에 압록강 유역에 있던 한사군(漢四郡)에서 탈출한 한 무리의 고구려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서해를 남하하여 김해에 정착한 뒤 가야국(伽倻國)을 세웠으나, 동쪽에선 신라의 압박을 받고 서쪽에선 백제의 압박을 받게 되자,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지금의 구주(九州)로 건너가면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럼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그냥 원주민들이 야만적인 상태에서 원시생활을 했겠지. 일본의 저명한 국사학자인 ‘가와세 가즈마(川瀬 一馬)’ 가 쓴 책에 따르면, 당시의 일본인들은 돌과 나무막대기로 싸우고 있었다는 거야”

“무기란 것이 없어요?”

“그래. 거기에 체구가 큰 가야인들이, 철로 만든 갑옷을 입고 철로 만든 칼을 들고 거울과 같은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들어갔으니, 말을 잘 듣고 잘 따라 준거야”

“그들 눈에는 신(神)으로 보일만 했겠네요”

“ ‘일본(日本)’ 이라는 말은 가야인(伽倻人)들이 건너가면서부터 생긴 거야. 가야의 수도였던 김해(金海)에서 보면, 구주(九州)는 바로 ‘해(日)’ 똥는 ‘곳(本)’ 에 해당했거든. 그래서 ‘해(日) 똥는 곳(本)에 간다’ 고 했었어. 그 후로 ‘왜(倭)’ 또는 ‘야마또(和)’ 라고 하다가 ‘일본(日本)’ 이 된 거야”

“그리고 보니, 일본이라는 국호는 우리 한국인이 지어 준 거네요”

“음 그렇게 속단할 수도 없어. 그런데, 구주로 건너간 가야인 중 일부가 다시 동북지방으로 올라가 지금의 오사까(大坂) 근처에 상륙해서 본격적으로 가야에서 사람과 문물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고, 3세기경에는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야. 말하자면, 가야인들이 곧바로 일본에 건너가 나라를 건설한 것이 아니고, 원주민들을 가르쳐 점진적으로 나라의 형태를 만들어 갔던 거야. 그래서 일본 고대사에는 ‘건국(建國)’ 이라는 말 대신에 ‘나라만들기(國造)’ 라는 말을 쓰며, 이 ‘나라만들기’ 가 적어도 300년 이상이 걸렸던 거야”

“그 당시 시대를 신화(神話)의 시대라고 한다 했죠?”

“그랬지. 그러니까 실제로 나라를 만들고 문화를 심은 것은 가야인을 위시한 한국인들이인데, 이를 그대로 기록할 수 없으니까 이들을 전부 신(神)으로 왜곡(歪曲)해서 기록해버렸고, 이 신화시대(神話時代)를 ‘가미요(神代)’ 라고 하면서 기원전 6세기까지 길게 후까지 한 거야. 그래서 일본 고대사에는 많은 신이 등장하지. 이름의 끝이 ‘미코도(命)’ 인 것은 모두가 신의 이름이야. 예를 들면, 신라인이 가서 배 만드는 기술과 항해술을 가르쳐서, 섬들 간의 교통이 편해지고 가까워졌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지 않고, ‘야쓰까미 즈오미쯔 노노미코도(八束水臣津野命)’ 라는 신이 밭줄을 걸어 ‘나라(國) 오래! 오래! 오래!’ 고 당겨서 섬을 가까이 두었다고 기록해 놓은 거야. 이를 ‘구니비끼(國引)’ 라고 하는데, 이런 신화가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신화로 왜곡한 거네요”

“한국인들이 일본의 원주민보다 체구가 크고 힘이 센데다, ‘칼’ ‘거울’ ‘구슬’ 같은 신기한 물건을 가지고 갔으니 신으로 보인 것도 무리는 아니야. 이 세 가지 보물은 아직도 왕가의 상징으로 보존되고 있는데, ‘삼종신기(三鐘神器)’ 라는 거야”

“경주박물관에 있는 것과 똑같다지요?”

“그래. 그래서 가야인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왕이 되었다는 설도 있고, 가야인들이 일본의 추장들 중에 유력자를 도와 왕으로 추대하고 조정의 실질적인 실권자가 됐다는 설도 있지만, 어느 설에 의하든 한국인이 일본 조정의 실권자였던 것만은 틀림없고, 일본 왕가에 한국인의 피가 섞인 것은 틀림없다는 거야”

“그랬군요”

“선희야! 일본이 봉건제도를 하기 시작한 때는 7세기부터였거든? 당시, 가야인들이 지방 추장들의 도움을 받기위해 이들에게 작위(爵位)를 줘서, 그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에서 시작된 거야. 이것은 7세기에 호구조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알 수 있어. 호구조사를 통해 호족들을 찾은 게지”

“그럼 그런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건너간 한국인들이었겠네요”

“아마도 그렇다고 봐야겠지? 일본의 왕이 한국인이었든 원주민이었든 간에 한국인이 실권자였던 것만은 틀림없으니까...한국인이 기록했을 거야”

“그런데 한국인이 쓰면서 왜 신이라고 기록했을까?”

“그 나라...즉, 당시의 일본은 한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미 자기네 나라였지 가야도 신라도 백제도 아니었던 거야. 그들이 봤을 때, 신라는 정복하려다 실패해 버리고 온 땅이요...그들이 버리고 온 문화가 있는 땅이었던 게지. 그래서 712년에 쓴 고사기(古事記)에는 신라를 이상향(理想郷)으로 기록했어”

“그랬군요”

“이후, 신라정복에 계속 실패하자 720년에 쓴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는 드디어 신라(新羅)를 적국(敵國)으로 기록했고, 심지어는 기원전에 가야에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 라는 식민지가 있었다는 날조까지 해놓은 거야”

“어찌됐건 문화는 한국문화네요”

“그렇지도 않아. 문화란 일단 옮겨지면 그곳의 문화가 되는 거지 그것이 발생한 곳의 문화는 아니란 말이야. 가령, 미국은 200년 역사 밖에 되지 않고 다민족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민인 인디언들의 문화를 제외하고는 미국 자체의 고유한 문화는 없지만, 우리가 미국문화라고 부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생겨난 곳을 따지지 않아”

“그런가요?”

“ ‘햄-ham’ 과 ‘에그-egg’ 로 아침 식사를 하면 미국식이지만, 돼지고기 훈제로 ‘햄’ 을 만드는 건 인도인이고 계란을 식용으로 쓴

최초의 인간도 인도인인 거야 “

“그렇군요”

“알고 보면, 우리의 한국문화도 몽골, 중국, 인도 등에서 온 것이지만 우리 문화라고 하고 있잖아? 이런 이치를 무시하고, 일본문화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말을 해서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려하는 건 정말 유치한 거야. 일본인들은 우리를 보고 뒤쳐져 있으니깐 깡다구로 그런 말을 한다고 해. 정히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우리가 좀더 강해진 다음에나 하든지...”

“.....”

“아무튼, 그 후에도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왜곡이 있었고 조상들이 한 일을 ‘날조’ ‘각색’ 해 놓았는데, 이러한 거짓말도 오래 가다보니 참말같이 돼버린 거야. 한편, 신화도 점점 더 신성시되고 말이지”

“거기에 재미를 붙인 거군요”

“맞아!”

“그리고 보니, 인본인...정말 대단한 놈들인데요?”

“교과서의 날조, 왜곡 외에도 소설로 날조한 것은 부지기수(不知其數)야. 문화라고 해봤자 고작 사람 죽이는 게 주류였으니 어느 정도의 각색이 필요했던 게지. 그래서 별 것 아닌 무용담까지 교과서에 쓰면서 ‘의리와 인정으로 죽였다’ 느니 ‘나라를 위했다’ 느니 하면서 미화해 날조했지”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그걸 모르나요?”

“알지. 알지만 결코 손해 볼 것 없다는 거지. 굳이 조상에 대해서 나쁘게 평할 게 뭐냐는 게지”

“우리와는 너무 판이하네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나라의 사극은 너무 사실에만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사극이란 사극은 죄다 우리 선조들이 파당을 지어 주구장창 정치싸움만 하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 넘넘 싫어요. 드라마에서라도 좀 아름답게 써주면 어디가 덧난당가요?”

갑자기 선희가 열을 올리며 흥분하자, 정호는 선희의 젖무덤을 진하게 한번 빨아주고 나서 차분히 다음 말을 이어갔다.

“맞아! 우리 공주님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 그런데 선희야! 왜놈들은 불우했던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 창씨개명도 밥 먹듯이 했0다는 걸 알아?”

“그래요? 창씨개명은 우리에게만 강요한 것이 아니었나요?”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가령, 일본인이려면 누구나 숭배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 家康)’ 도 원래는 ‘마쓰타히라 다케씨요(松平 竹千代)’ 였지. 그런데, ‘이마가와(今川)’ 라는 영주에게 인질로 끌려가서는 ‘이마가와(今川)’ 로 개명했고, 19세가 되던 해에 ‘이마가와(今川)’ 영주가 죽자 독립하여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 家康)’ 로 다시 바꿔버린 거야. 도쿠가와(德川)는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가 용맹을 떨치던 곳의 지명이었다는 게야. 도쿠가와 뿐만 아니고 미관말직(微官末職)에 근무하다가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다 창씨개명(創氏改名)을 했던 거야”

“말하자면 완전히 쌍놈들이군요. ㅋㅋ”

“뿔~ 쌍놈이 성공했다고 봐야지. 그러나 왈가왈부 따지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본다는 무서운 놈들이라는 건 똑똑히 알아야 돼”

“저들의 내부적 역사야 ‘왜곡을 하든’ ‘창씨개명을 하든’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역사까지 왜곡 날조하니까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저들이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은 짓을 왜 할까요?”

“그들의 속셈이 다르지”

“다른 속셈이라?”

“그들에게는 국수주의(國粹主義)란 게 있어. 우리의 민족주의(民族主義) 같은 건데, 다른 점이 많아. 그들은 이것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역사왜곡도 불사하는 거야”

“국수주의와 민족주의는 어떻게 다른데요?”

“우리의 민족주의가 ‘민족문화(民族文化)지상주의’ 인데 반하여, 그들의 국수주의는 ‘국익(國益)지상주의’ 야. 한마디로 말해, 국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합리화(合理化), 정당화(正當化), 미화(美化)되는 거지”

“.....???”

“우리는 문화적 우수성을 강조하니까 윤리나 도덕 같은 것을 앞세우지. 그것은, 로마인들이 ‘우리는 가난해도 로마의 후예다’ 는 자긍심(自矜心)을 가지듯이, 우리도 ‘반만년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이다’ ‘동방예의지국이다’ 라며 자긍심을 가지려는 거야. 이에 비해서, 일본인들은 ‘우리는 신의 나라이자, 신이 보호해주는 강한 나라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선 어떤 짓도 해야 한다. 애국이 최고의 덕목이다’ 라며 ‘우리는 무사의 자식이다’ 는 자긍심을 강조하는 것이 다른 게지”

“교수님 잠깐!”

“왜?”

“전에 ‘선네고’ 란 걸 얘기할 때 ‘우리는 못하는데 일본에서는 잘한다’ 고 하셨지?”

“그랬지. 그런데 왜?”

“그게 그러니까...우리의 국가관에 의하면 ‘비문화적(非文化的)이니까’ 안 되는데, 일본인들의 국가관에 의하면 ‘국익(國益)을 위한 거니까’ 된다는 이치가 되겠네요?”

정호는 선희의 예리한 차이점 분석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맞아! 우리 공주님 제법 예리한데? 국가관의 여하에 따라 그런 대국민 행동상의 차이가 생기는 걸 알아채다니 말이야”

“치~! 말로만 칭찬하면 학칙위반인디?”

“그렇지...? 그럼...”

정호가 선희의 몸을 앞으로 힘껏 당기자 성난 왕침이 조갯살을 거칠게 파고들었다. ‘한번... 두번... 세 번...’ 숨 넘어 가는 교성에 이어... 절정에 다다른 단말마의 비명. 세 번이나 황홀경을 만끽한 두 사람.

“공주님... 좋았어?”

“응~ 자기두?”

“으응”

분홍빛 교실의 달콤한 휴식시간은 그렇게 끝났다. 정호는 담배 한개피를 꺼내 물었다. 예전엔 교접이 끝나면 끝없는 허무함이 밀려왔지만, 이젠 완전히 달라졌다. ‘빠도 빠도 또 빠고 싶은’ ‘해도 해도 또 하고 싶은’ 원초적 본능만이 있을 뿐이었다. 선희는 정호의 왕침에 묻은 애액을 입으로 정성스레 애프터서비스하고 난 뒤, 흐뭇한 미소를 입가에 흘리면서 정호의 품속을 파고들며 나직이 속삭였다.

“그러니까, 일본인은 오빠처럼 힘 자랑하기 좋아하는 깡패군요. 그쵸? ㅎㅎ”

“그래? ㅋㅋ. 공주님~ 이제 휴식시간은 끝났어요. 농담 뚫!”

“우리 오빠 즐라 웃긴다. ㅋㅋ”

배꼽을 쥐어짜며 한참을 웃고 난 선희가 마치 종을 치듯이 정호의 왕침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수업시작을 알린다.

“우리 서방교수님. 그럼 수업시작입니다! 땡~!”

“그러니까 그들은... ‘식민지를 취해서 타민족을 지배하여 학대한 나라는 일본만이 아니었다. 근대의 강대국들은 너나없이 다투어 했던 일이다. 서양인들이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했던 일은 우리보다 더 악랄했었고, 미국은 흑인노예를 혹사시키고 인디안을 학살해서 만들어진 나라인 것이다’ 는 말까지 해가면서 자기네 조상들이 나쁜 짓을 했다고 가르칠 수는 없다는 거지. 설령, 이것들이 사실이라든가 문화민족이라면 차마 할 수 없는 소리가 아니겠어? ‘저 놈도 도둑질했는데, 왜 나만 욕해?’ 라는 것과 똑같은 말인데 말이야. 그러니 어찌겠어? 역사왜곡 밖에 더 있겠어? 최대한 미화하고 각색하고 조작하는 거지. 자신들의 야만성을 반성하지는 않고서...”

“독일인들은 잘못을 시인하고 배상도 많이 했다쵸?”

“독일인에 비하면 일본인은 한수 아래의 소인배이라고 할 수 있지”

“한수 아래의 소인배라고라?”

“독일은 뭐니 해도 철학과 과학의 나라요, 문화적인 중량감이 있다는 걸 세계가 다 알잖아. 그러니 히틀러의 잘못을 시인해도 크게 체면이 깎일 것도 없고, 국민의 선민의식이나 애국심에도 큰 지장이 없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던 거야”

“그렇죠. ‘독일’ 하면 퍼뜩 떠오르는 것이 ‘칸트’ ‘괴테’ ‘베토벤’ 같은 것이 떠오르고, 철학이나 과학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게.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어때? 근대의 ‘메이지(明治)유신’ 이전에는 새까만 후진국이었잖아. 고작 생각나는 정도가 ‘사무라이’에다 ‘할복자살’ 이고, 좋다는 거라야 ‘여자들의 애교’ 정도 밖에 더 있던 말이야”

“독일과는 차원이 다르죠”

“18세기까지의 일본은, 중국을 대국으로 생각하고 조선을 문화의 나라로 부러워했는데, 19세기에 들어와 근대화과정을 거치며 ‘제국주의’ ‘군국주의’ ‘국수주의’ 를 채택하여 갑자기 급성장하면서 세계무대로 나오게된거야”

“말하자면 벼락부자에 졸부군요. ㅋㅋ”

“그래 그거야. 벼락부자에 졸부. 그러니 그렇게 급성장한 시대의 지배계급 후손들이 오늘날에도 일본의 지도계급을 형성하고 있으니, 그 시절을 미화하고 싶은 거야.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일본을 깔보거나 만만히 볼 우려도 있고, 대내적으로 국민의 애국심과 선민의식이 약해질 우려성도 있으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시대는 바뀌었지만 같은 사람들이 지도층이고 같은 인맥이네요?”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된 배후에는 미국의 힘이 작용했던 거야”

“미국이요?”

“응. 2차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일본을 세계사의 뒤편길에 아주 물어버릴 생각을 했지. 그래서 군정을 시작한 미국이 1947년에 만들어준 헌법에, 일본은 방어를 위한 전쟁이외에는 못하게 만들어 놓았지. 군대의 이름도 자위대(自衛隊)로 하고...”

“그럼, 일본 헌법은 일본인들이 만든 헌법이 아니네요?”

“그렇지. 그런데 1950년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6.25전쟁이 일어나서 소련의 국제공산주의가 노골화 돼 미소(美蘇)의 대결이 표면화되자, 미국이 일본을 재무장시켜서 극동방위의 방파제로 쓰기로 한 거야”

“6.25전쟁에도 일본군을 투입하기로 했다던데...아닌가요?”

“맞아. 미국은 당시에 그만큼 다급했던 거야. 그래서 미군정(美軍政)이 공직추방령(公職追放令)을 내렸던 일제시대의 정치인 및 공직자들에 대해 추방령을 철회해 준 것은 물론, 재벌해체를 중단하고 기술과 원조를 줘서 한국전쟁에 사용할 군수품의 상당부분을 일본에서 만들게 함으로써, 경제부활을 도우면서 결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종용한 게지”

“일본 놈들은 참 운도 좋네요?”

“게다가, 1952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내에 미국기지를 두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미일안전보장조약’ 마저 체결했지 뭐야?”

“그러고 보니, 결국은 6.25가 일본을 살린 거군요”

“그렇지”

“그럼 일본은 곧바로 재무장을 했겠네요?”

“아니, 그렇지 않아. 일본은 ‘미국이 만들어 준 헌법 때문에 재무장을 할 수 없다’ 느니, ‘야당에서 반대한다’ 느니 하는 핑계로 일단 군비강화는 뒤로 미루면서, 오직 경제개발과 기술개발에 힘써 온 거야. 참 약은 민족이지.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배워야 할 점이야”

“흠, 그래서 미국의 핵우산 밑에서 경제강국이 됐다고 하는군요”

“그렇지. 레이건 대통령 때는 이런 일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극동방위선에서 제외하겠다’ 고 위협까지 했으나 오래가지는 못했지. 타임지의 일본특파원이었던 ‘데이비드 할바스탐’ 은 ‘전후에 일본만큼 미국의 덕을 본 나라는 없었다’ 고 했는데, 사실이야. 그들은 오직 경제발전과 기술개발에 치중했으니까. 일본을 잠재적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금은 핵무기가 없지만 필요하다면 1주일 내라도 만들 수 있다’ 는 뜻이야 “

“정말 별 꼴을 다 보겠어라. 역사는 참 이상하기도 하구...”

“그래서 14년간 타임지의 도쿄 지국장을 지낸 <패트릭스미스>라는 기자가, 일본을 두고 ‘미국이 만들어낸 <후랑켄슈타인>이다’ 고 했던 거야”

“후랑켄슈타인이라면...괴물?”

“맞아! ‘미국이 만들어낸 괴물-일본’ 이라고 한 게야”

“왜죠?”

“패트릭스미스에 따르면, 미국의 CIA는 수십년에 걸쳐 일본의 보수파에 정치자금을 대주는 한편, 대일무역적자를 감수하면서 방위비 부담을 덜어주고...환율의 언바란스(unbalanc)를 감수하면서까지 ‘극동방위의 일익을 담당하라’ 고 종용해 왔으나, 일본은 ‘세계평화에 일조(一助)하겠다’는 의지는 없고, 오로지 경제부흥밖에 모르는 괴물’ 이라는 거야. 만일, 일본이 과거를 합리화하지 못하게 미국이 호되게 야단을 쳤더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미국정부는 이를 모른 척하고...오로지 ‘군사력을 키우라’ 고만 한 거야”

“그랬군요. 난 그것도 모르고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려고 발버둥치니까 그러한 망언이 나온다고 생각했었지라”

“사실, 그러한 망언은 보수파를 겨냥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한 거야. 정치가들은 정말 약아”

“그랬군요”

“소련이 붕괴되니까 엔고의 공세로 어느 정도 일본에 압력을 가하는 것 같더니, 중국이 미국의 주적국(主敵國)으로 떠오르니까 또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군국주의를 부활하든지, 정교일치(政教一致)를 하든지, 재무장만 하라고 하고 있는 거야. 미국의 매스컴은 가끔씩 일본의 과거에 대해 비판하지만, 미국의 정부차원에서는 역사왜곡도 신사참배도 일체 모른 척하고 있는 게지”

“정말 한심한 놈들이군요”

“선히야! 정말로 한심한 건 우리나라의 정치철대가리들이야”

“.....”

“왜놈들이 독도가 자기들 땅이 아니라는 걸 몰라서 떠드는 게 아니야. 우리가 미국과 친하고 미국과 밀착해 있을 때는 찝소리도 하지 않다가, 우리가 미국을 버리고 미군이 떠날 준비를 하는 조짐이 보이니까 독도문제까지 들고 나왔던 거야”

“그렇군요. 늘 잠잠했었는데”

“조선조 말에는 우리 정치가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있다가 나라를 잃었는데, 오늘날 우리 정치가들은 그 당시의 정치가들보다 훨씬 더 모르고 있다는 게야”

“그러니까...감정에만 치우쳐 국제정세를 무시한다는 거죠?”

“21세기를 앞두고 세계의 석학들이 분석 예언한 것을 보면, ‘영어가 세계의 공통어가 될 정도로 영국이 세계사의 중심역할을 한 것이 2백 년간이었는데, 아마도 미국이 그 뒤를 이어 2백년간 세계사의 중심이 될 것이며, 세계경찰의 역할도 21세기 중반까지는 할 것이다’ 고 내다 봤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양키 고 홈’ 이나 하고 있을 때난 말이지. 일본은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싸운...심지어...원자폭탄까지 투하한 미국이지만...지네들의 국익을 위해서 자기편으로 바짝 밀착해 놓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수많은 피를 흘리고, 우리를 일제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준 혈맹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을 배척하려는 경향이 있으니 문제라는 게지. 국제정세와 역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아직 우리나라 형편에선 절대로 미국과 대척점을 저선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보면, 우리와 달리 일본사람들은 알미를 정도로 약삭빠르네요”

“그래. 그런 일본이 알립지만, 지금은 그들이 경제부국이고 이용가치가 있으니 세계 모든 나라들이 참고 있는 거야. 일본인들 중에서도 일본은 장차 ‘국제적 왕따’ 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이들도 있지만, 일본의 우파(右派)들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고 있어”

“오빠! 일본이 정말 왕따 당하는 날이 올까요?”

“내가 볼 때는 반드시 와”

“정말?”

“무엇보다, 일본은 국제관계가 변동하는 틈바구니에서 교묘하게 강국이 된 나라야”

“그렇죠. 미소(美蘇)와 미중(美中)의 틈새에서요”

“선히야! 어느 날, 그 미,중,러 등 강국 사이에 강화조약이 논의된다면 제일 골칫거리로 대두 되는 것이 ‘일본이라는 괴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의 문제라고 봐. 내가 보기에, 일본은 그때 왕따가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일본은 필요 없으니까?”

“그렇지. 지금 일본 우파들은 영풍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오산이야”

“어떤 생각일요?”

“그들의 생각은 ‘중국과 미국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은 미국편을 들어서 중국을 이기고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겠다’ 는 심산이지만, 그것은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 미국이 이기더라도 중국과 미국 간의 냉전기가 끝나면 일본은 무용지물이라는 게야. 또...중국이 완전히 근대화

에 성공하면, 전쟁을 원치 않고 오히려 미국과 친하게 지내길 원할 것이라는 거야. 중국이나 미국이 서로 지배하겠다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야”

“듣고 보니,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을 아주 만만하게 보고 있군요”

“바로 그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욱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그들보다 강해져야 하는 거야. 대등한 힘의 상태에서 내미는 손은 서로 협력하자는 약속이 되지만, 우리가 힘이 약한 상태에서 내미는 손은 구걸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왜놈들의 버릇을 고치든지, 왜놈들과 협력을 하든지, 빨리 대등해져야한다고 봐”

“정말 정치라는 것이 알면 알수록 묘한 것이군요”

“그래, 정치란 본시 묘한 것이니까...이젠 잔머리 함부로 굴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겠지?”

그때...선희가 몸을 뒤틀며 정호의 귓가에 대고 살며시 속삭였다.

“그래요. 자~ 학장니~임! 이제 끝나는 벨소리를 울리셔야죠?”

“그럼...그럴까?”

정호의 왕침이 고개를 치켜들고 선희의 조개둔덕을 거칠게 파고들었다.

“으음~좋아”

“으으으~흑!”

몇 차례의 교접이 더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부둥켜안고 잠을 청했다. 정호가 미국출장 이후 이렇게 오랫동안 그녀와 붙어있는 것은 처음. 그는 선희와 보낸 이틀이 마치 꿈만 같았다. 요즘 정호에게는 가슴을 열어 터놓고 얘기할 상대가 없다. 특히, 일본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 아무에게나 쉬이 하지 못한다. 자칫, 친일파니 매국노니 하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한 것이 좋았다. 벽시계는 벌써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정호의 입술이 선희의 양쪽 젖무덤에 돋은 앵두를 차례로 가볍게 깨물고 난 뒤, 그녀의 귓볼 곁으로 다가가 살포시 속삭였다.

“선희야 잘자~”

“.....”

순간, 그녀의 전신이 사시나무 떨듯이 ‘부르르~’ 떨리고..정호는 벌떡 솟구치는 왕침을 애써 달래며 잠이 들었다. <잠시 쉬었다.... 下권에 서 계속 이어 집니다>

p/s : 본 소설은 ㄴ45장의 上.下권800쪽 분량으로 著者이용희의 자전적실화소설임. 전직 정치학교수 출신인 이정호가...자신을 첫사랑으로 간직한 옛제자 윤선희를 우연히 만나...사랑과 낭만과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진 그들의 다이내믹한 사랑은 ‘분홍빛교실’에서 거침없이 분출되고..정치가를 꿈꾸며..선희는 떠나는데...

에필로그 : \*첫사랑에 울었다.

그러나 내 생애 최후의 사랑에는 울어야 할 이유가 없다.

여한도 후회도 없다.

흐르는 눈물은 너의 과감한 선택과 도전을 보는 기쁨의 눈물이다.

이제 나는 훌륭한 정치가가 되어 돌아올 너를 기다리는 것을 낙으로 살린다.

너의 건투를 빈다\*

## 장편소설 - '분홍빛 교실'

블로그 이용휘의 시대소리 <http://blog.daum.net/yiyonghwi>

저자 이용휘 著

발행일 2011.05.26 12:50:15

 블로그